

홍성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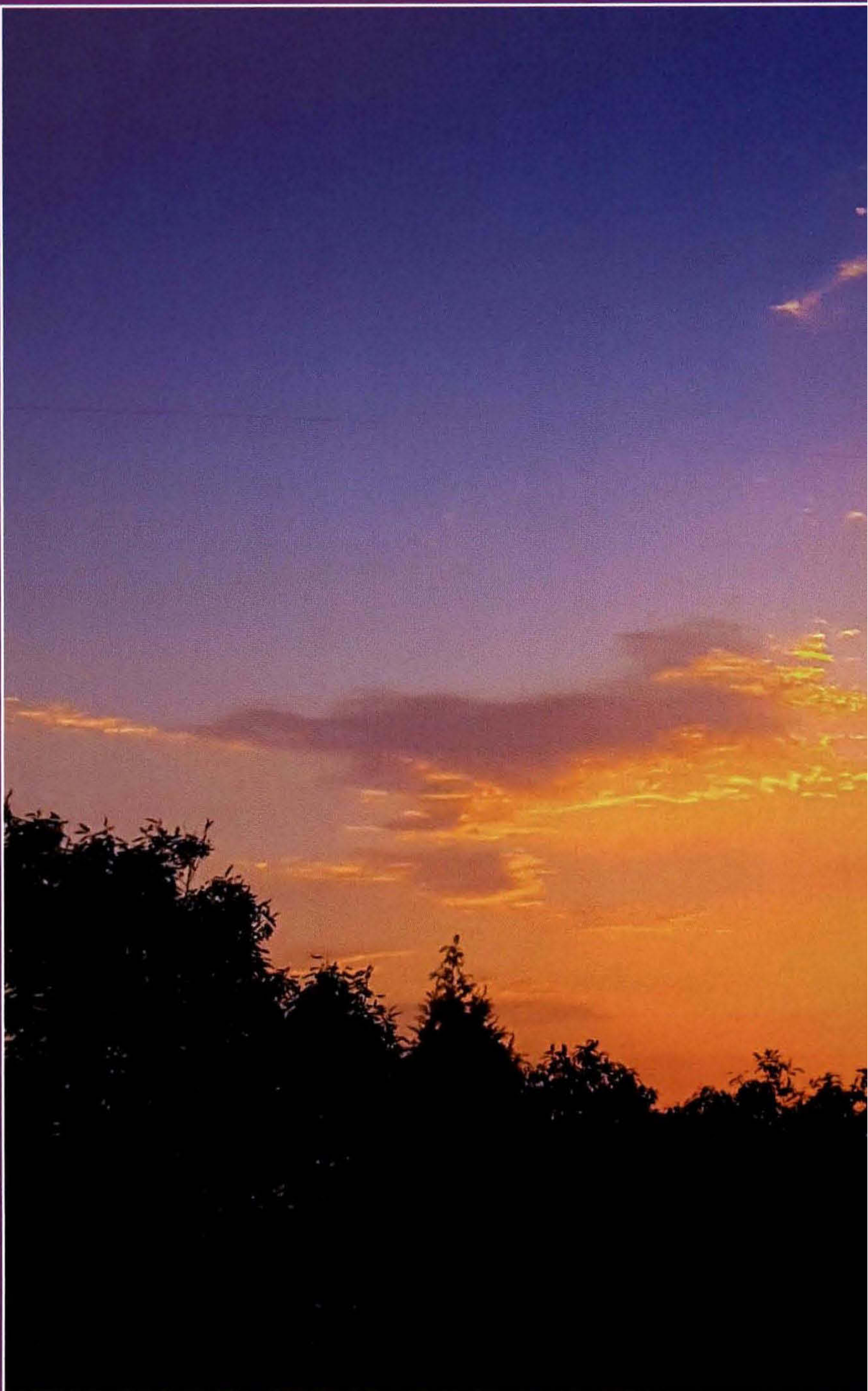


홍성군



홍성의
문화유산

홍성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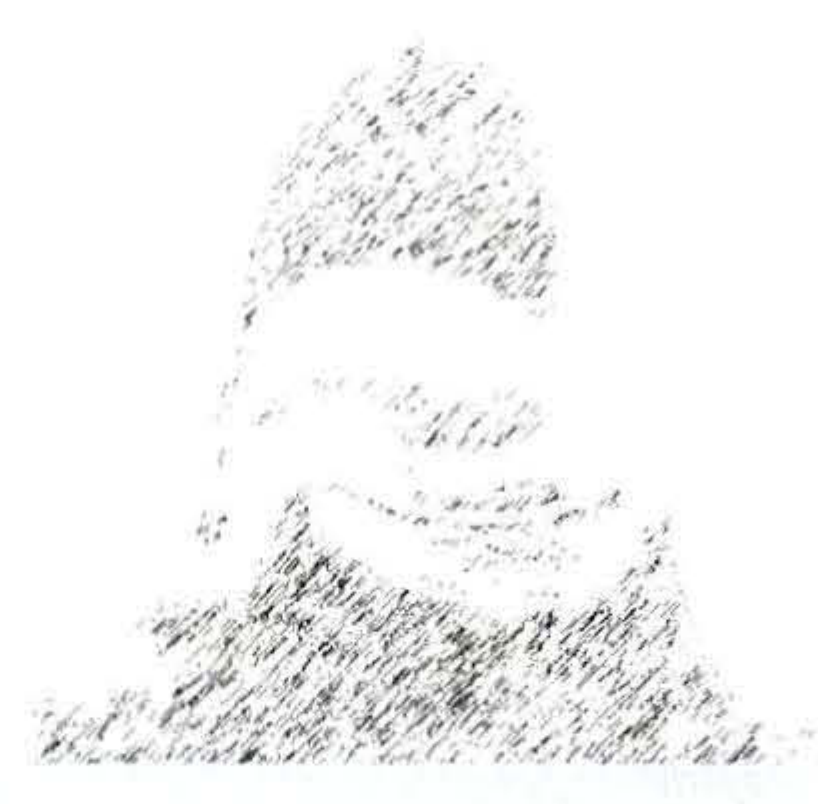


차 례





▣ 발간사	4	○ 홍주향교	66
▣ 문화재 현황	6	○ 결성읍성	68
▣ 국가 지정 문화재		○ 신금성	70
<국가지정 보물>		○ 오관리 느티나무	71
○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	11	<도지정 민속자료>	
○ 고산사 대웅전	12	○ 용대기	75
○ 오관리 당간지주	14	○ 김우열 가옥	76
○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16	○ 전용일 가옥	77
<국가지정 사적>		○ 전세진 유품	78
○ 홍주읍성	18	<도지정 문화재자료>	
• 조양문	20	○ 광경사지 3층석탑	80
• 안회당	22	○ 대교리 석불 입상	81
• 여하정	23	○ 광경사지 석불 좌상	82
• 홍주아문	24	○ 용봉사지 석조	83
○ 홍주의사총	26	○ 대원군 척화비	84
<국가민속문화재>		○ 성삼문 선생 유허비	85
○ 사운고택	28	○ 홍가신 청난비	86
○ 노은리 고택	30	○ 홍주성 수성비	87
○ 보부상 유품	32	○ 김좌진 장군비	88
○ 홍성고등학교 강당	33	○ 용봉사 부도	89
▣ 도 지정 문화재		○ 김복한 묘	90
<도지정 유형문화재>		○ 결성 동헌	91
○ 상하리 미륵불	37	○ 북한 효자비	92
○ 용봉사 마애불	38	○ 임득의 장군 묘	93
○ 전일상 영정	39	○ 연산서씨 석보	94
○ 한유도	40	○ 장곡산성	95
○ 전운상 영정	41	○ 구절암 마애불	96
○ 고산사 아미타불 좌상	42	○ 정충사	97
○ 임득의 초상	43	○ 고산사 3층석탑	98
○ 고산사 석조여래 입상	44	▣ 군 향토유적	
○ 한원진 초상 일괄	45	○ 양곡사	100
<도지정 무형문화재>		○ 창주사	101
○ 지승제조	49	▣ 군관리 유적	
○ 결성농요	50	○ 최영 장군 사당	105
○ 땡땡이장	51	○ 홍주 청난사	106
○ 수룡동 당제	52	○ 홍주 병오 의병 주둔 유지비	107
○ 옹기장	53	○ 김좌진 장군 동상	108
○ 대장장	54	○ 한용운 선생 동상	109
<도지정 기념물>		○ 마애금석문 쌍계	110
○ 성삼문 선생 유허지	56	○ 목빙고	111
○ 이광륜 묘	57	○ 홍가신 사당	112
○ 지석묘	58	○ 금마총(말무덤)	113
○ 한용운 선생 생가지	60	○ 석택리 환호 유적	114
○ 김좌진 장군 생가지	62	▣ 아름다운 우리고장 홍성	115
○ 결성향교	64		



Faint, illegible text or markings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책을 펴 내 며

우리 고장 홍성에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유산들을 자손만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도록 잘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서,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홍성은 충남도청 수부도시로 문화유산의 활용가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홍보하는 책자를 많이 만들었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유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화보 형식의 사진으로 담고 설명을 덧붙여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교육과 홍보에 널리 활용되어 우리 고장 홍성의 역사와 문화적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

홍성군수 김 석 환

홍성의 문화재 현황

구분	합계	국가지정						충청남도지정					홍성군		
		계	보물	사적	국무기념물	국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자속료	문화자료	향유토적	관리
개소수	69	10	4	2	-	3	1	47	8	6	10	4	19	2	10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소유자	수량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국 가 지 정	보물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	홍북읍 신경리 산80-1	국 유	1좌	355	1963.01.21
		고산사 대웅전	결성면 만해로127번길 35-99	고산사	1동	399	1963.09.02
		오관리 당간지주	홍성읍 오관리 297-15	국 유	1기	538	1971.07.07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홍북읍 용봉산 1길 109	용봉사	1폭	1262	1997.08.08
	사적	홍주읍성 • 조양문 • 홍주아문 • 안회당 • 여하정	홍성읍 아문길 27 외 196-2	국 유	109,541 m ²	231	1972.10.14
		홍주 의사총	홍성읍 의사로 79	국 유	40,166 m ²	431	2001.08.17
	국 민 속 문 화 재	사운고택	장곡면 홍남동로 989-22	조환웅	1곽(4동)	198	1984.12.24
		노은리 고택	홍북읍 최영장군길 11-26	홍성군	1동	231	1996.02.09
		보부상유품	홍성읍 아문길 20 홍주성역사관	원홍주 육군상무사	1괄(33점)	30-4	1992.07.24
	등록문화재	홍성고등학교 강당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10	홍성고	1동(357.02 m ²)	272	2006.09.19
충 청 남 도 지 정	유 형 문 화 재	상하리 미륵불	홍북읍 상하리 506-8	홍성군	1구(1.650 m ²)	87	1979.07.03
		용봉사 마애불	홍북읍 신경리 산79	홍성군	1구(540 m ²)	118	1985.07.19
		전일상 영정 및 한유도	홍성읍 아문길 20 홍주성역사관	전택수	2폭	127	1987.12.30
		전운상 영정	홍성읍 아문길 20 홍주성역사관	전택수	1폭	147	1995.10.07
		고산사 아미타불좌상	결성면 만해로127번길 35-99	고산사	1구	188	2007.10.30
		임득의 초상(영인본)	서부면 판교1길 40-1	임철환	1폭	203	2010.07.30
		고산사 석조여래 입상	결성면 만해로127번길 35-99	고산사	1구	221	2013.04.10
		한원진 초상 일괄	홍성읍 아문길 20 홍주성역사관	홍성군	7점	237	2016.03.10
	무 형 문 화 재	지승제조	홍북읍 자경로17 111-601 중흥S클래스	최영준	지승제조	2	1986.11.09
		결성농요	결성면 구성남로 91	조광성	선소리	20	1996.11.30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			장성철	선소리	20	2008.02.29	
홍성 땃땃이장		광천읍 충서로335번길 20-10	백길자	풀공예	31	2000.09.20	
홍성 수룡동 당제		서부면 임해로 315	수룡동 민속문화보존회	풍어제(당제)	36	2003.10.30	
옹기장		갈산면 갈산서길475번길 128	방춘웅	옹기장	38-1	2008. 02.29	
대장장	홍성읍 의사로49번길 28	모무회	대장장	41-2	2009.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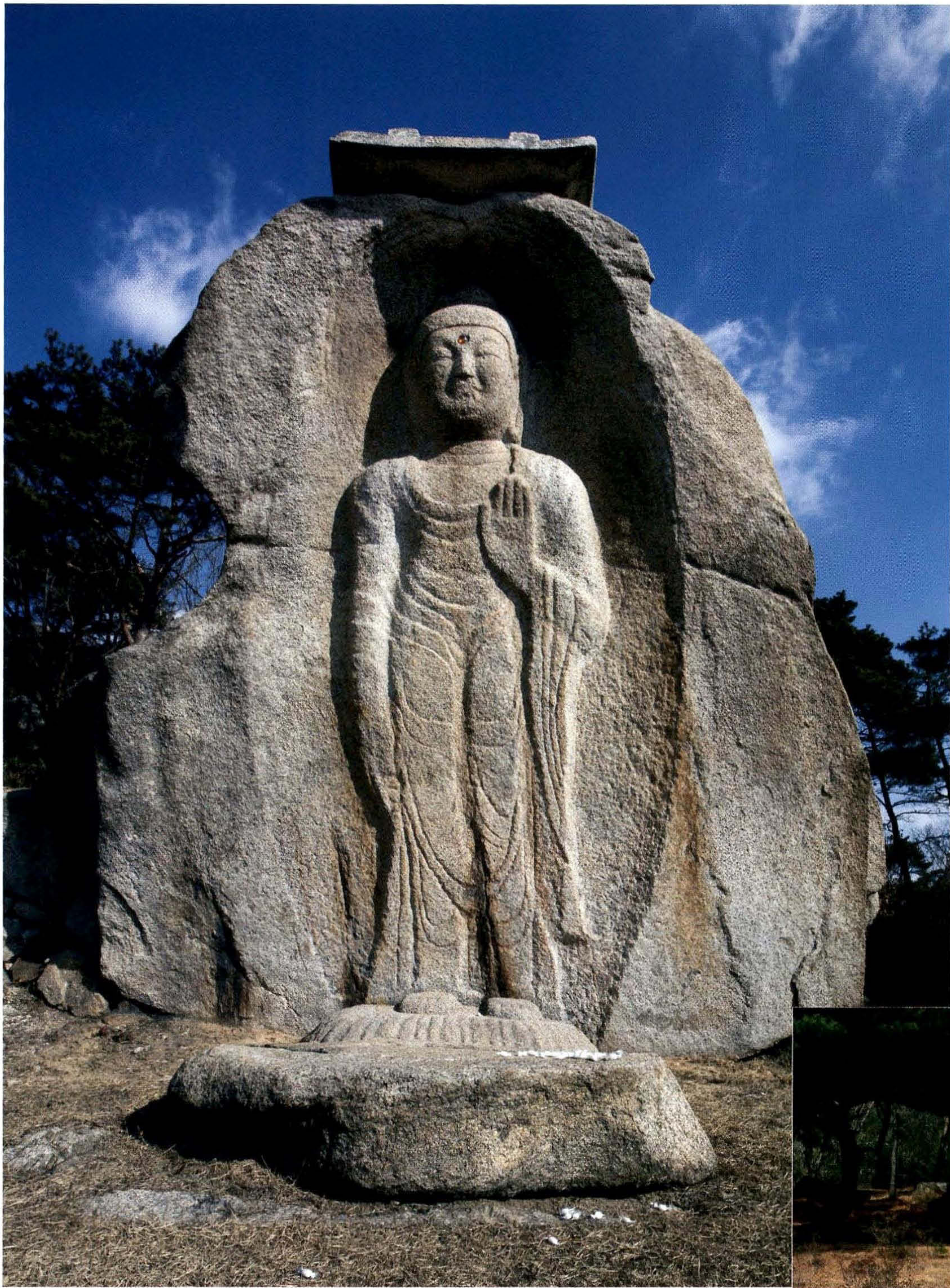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소유자	수량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기념물	성삼문 선생 유허지	홍북읍 매죽헌길403-12	홍성군	2,640㎡	5	1973.12.24		
	이광륜 묘	장곡면 옥계리 산77-2	이진구	1.650㎡	17	1977.07.04		
	지석묘	구항면 태봉리 389 외 3개	사유	4기(60㎡)	28	1982.08.03		
	한용운 선생 생가지	결성면 만해로318번길 83	홍성군	484㎡	75	1989.12.29		
	김좌진 장군 생가지	갈산면 백야로546번길 12	홍성군	12,660㎡	76	1989.12.29		
	결성향교	결성면 홍남서로707번길 21-8	향교재단	1동	134	1997.12.23		
	홍주향교	홍성읍 충서로1575번길 93	향교재단	1동	135	1997.12.23		
	홍성 신금성	결성면 금곡리 228-1 외 15필지	김기철외 6인	46,065㎡	149	1998.07.25		
	결성읍성	결성면 읍내리 319-1	홍성군	11,913㎡	165	2004.04.10		
	오관리 느티나무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사내	홍성군	2주(476㎡)	171	2005.10.31		
민속자료	용대기	결성면 형산리 주교·구수동	마을주민	2매	4	1982.08..03		
	김우열가옥	갈산면 갈산로 79	김우열	3동(388㎡)	10	1985.12.31		
	전용일가옥	갈산면 상촌로9번길 21-1	전용일	1동(442㎡)	11	1985.12.31		
	홍성 전세진 유품	홍성읍 아문길 20 홍주성역사관	전상배	19점	33	2015.12.21		
문화재자료	광경사지 3층 석탑	홍성읍 도청대로 29-21	홍성군	1구(2㎡)	159	1984.05.17		
	대교리 석불입상	홍성읍 대교리 540	홍성군	1구(1㎡)	160	"		
	광경사지 석불좌상	홍성읍 내법길 81-23	용주사	1구(㎡)	161	"		
	용봉사지 석조	홍북읍 용봉산 1길 109	용봉사	3기(17㎡)	162	"		
	대원군 척화비	구항면 오봉리 산141	홍성군	1기(10㎡)	163	"		
	성삼문 선생 유허비	홍북읍 매죽헌길 403-12	홍성군	1기(26㎡)	164	"		
	홍가신 청난비	홍성읍 월산리 625-15	홍성군	1기(39㎡)	165	"		
	홍주성 수성비	홍성읍 오관리 412-6	홍성군	1기(5㎡)	166	"		
	김좌진 장군비	갈산면 행산리 산17-4	홍성군	1기(17㎡)	167	"		
	용봉사 부도	홍북읍 용봉산1길 109	용봉사	1기(29㎡)	168	"		
	김복한 묘	서부면 이호리 산70-9	문중	1기(㎡)	169	"		
	결성동헌	결성면 홍남서로738번길 23	홍성군	3동(354㎡)	306	1989.04.20		
	복한 효자비	금마면 신곡리 211-4	면천복씨	1기(27㎡)	339	1995.10.07		
	임득의 장군 묘	서부면 판교리 산95-1	평택임씨 평성군파	330㎡	340	1995.10.07		
	연산서씨 석보	구항면 지정리 산112	연산서씨 종중	4매	354	1997.08.05		
	홍성 장곡산성	장곡면 산성리 산28-2 외 3필	한기남	61,164㎡	360	1998.07.25		
	구절암 마애불	구항면 거북로 218번길 163	구절암	1구(81mm)	361	1998.07.25		
	정충사	서부면 판교리 25	임철환	1동	401	2009.10.20		
	고산사 3층 석탑	결성면 만해로127번길 35-99	고산사	1기	419	2013.04.10		
	향토유적	양곡사	서부면 홍남서로 131-31	한만중	1식 3동	1	1991.03.05	
창주사		홍동면 운월리 220-2	신안주씨 종중	1동	2	2014.05.01		
군관리유적	최영장군 사당	홍북읍 대인리 산39-7	홍성군	1동	마애금석문 쌍계	장곡면 월계리 용못	홍성군	1기
	홍주 청난사	홍성읍 월산리 625-17	홍성군	1동	목빙고	홍성읍 오관리 805-1외 4필지	홍성군	1동
	홍주의병 주둔 유지비	구항면 황곡리 산81-4	홍성군	1기	홍가신 사당	홍성읍 월산리 산71-8	홍성군	1동
	김좌진 장군 동상	홍성읍 고암리 530	홍성군	1구	석택리 환호 유적	홍북읍 석택리 478-18일원	군/도	1기
	한용운 선생 동상	홍성읍 남장리 산43-1	홍성군	1구	금마총(말무덤)	홍성읍 대교리 55-1	홍성군	1기

국가지정 문화재

- 보 물 :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 고산사 대웅전, 오관리 당간지주,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 사 적 : 홍주읍성(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 홍주의사총
- 국가민속문화재 : 보부상유품, 사운고택, 노은리 고택,
- 등록문화재 : 홍성고등학교 강당







▲신경리 마애여래입상(2008년 8월)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보물 제355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용봉산에 있는 높이 4m의 거대한 불상이다. 남쪽으로 솟아난 바위면을 파고 그 안에 돌을새김을 했다. 얼굴은 몸에 비해 크지만 잔잔한 미소가 흘러 온화한 인상을 준다. 손은 두려움을 막아주는 시무외인이다. 오른손은 내려서 다리에 붙이고, 왼손은 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한 광배는 파낸 바위 면에 선으로 윤곽만을 새겼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비롯한 윗부분은 깊게 새겨 입체감이 있지만, 아래 부분은 얇게 조각하였다. 당시 이렇게 훌륭한 불상이 세워진 배경에는 운주(홍주)의 호족이었던 홍규와 그의 딸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 왕건의 12번째 왕비) 및 고려 왕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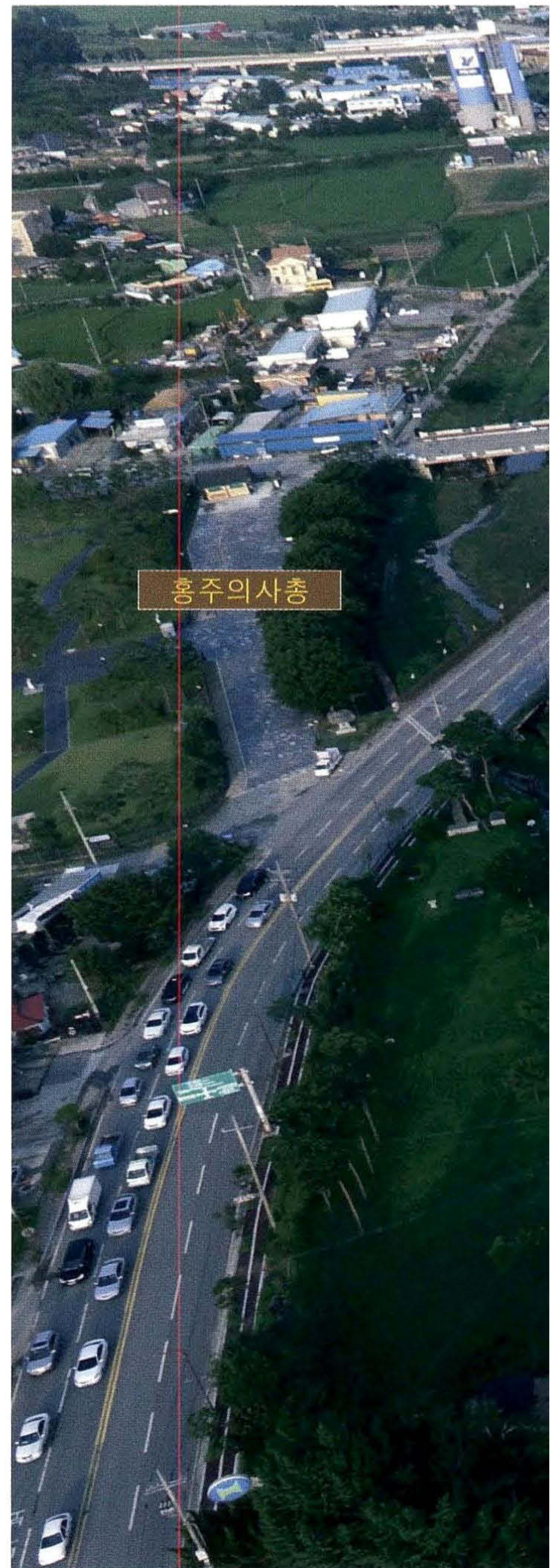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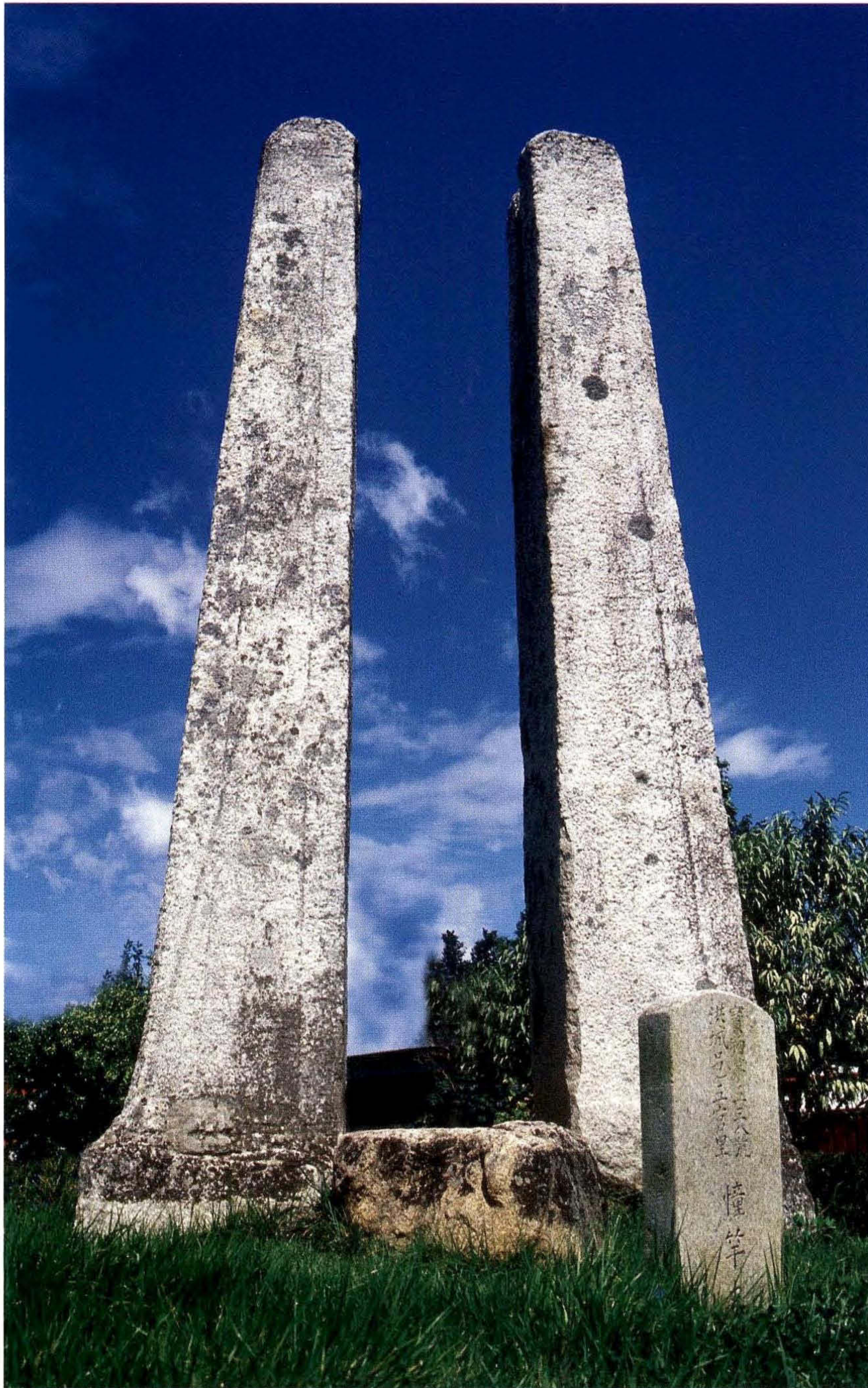


□ 고산사 대웅전(보물 제399호)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청룡산에 있으며, 앞면 3칸, 옆면 3칸 크기이다. 지붕은 옆에서 볼 때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과 기둥 사이에는 지붕의 무게를 나누어 안전하게 기둥에 이어질 수 있도록 '出'자 모양의 받침대를 여러 개를 짜 맞춘 공포(拱抱)가 있는데, 이 건물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설치한 주심포 양식이다. 지붕의 안쪽은 '井'자 모양으로 천장을 마감한 우물천장인데 천장과 서까래가 훤히 보이는 연등천장을 섞어 꾸몄다. 기둥은 전체적으로 아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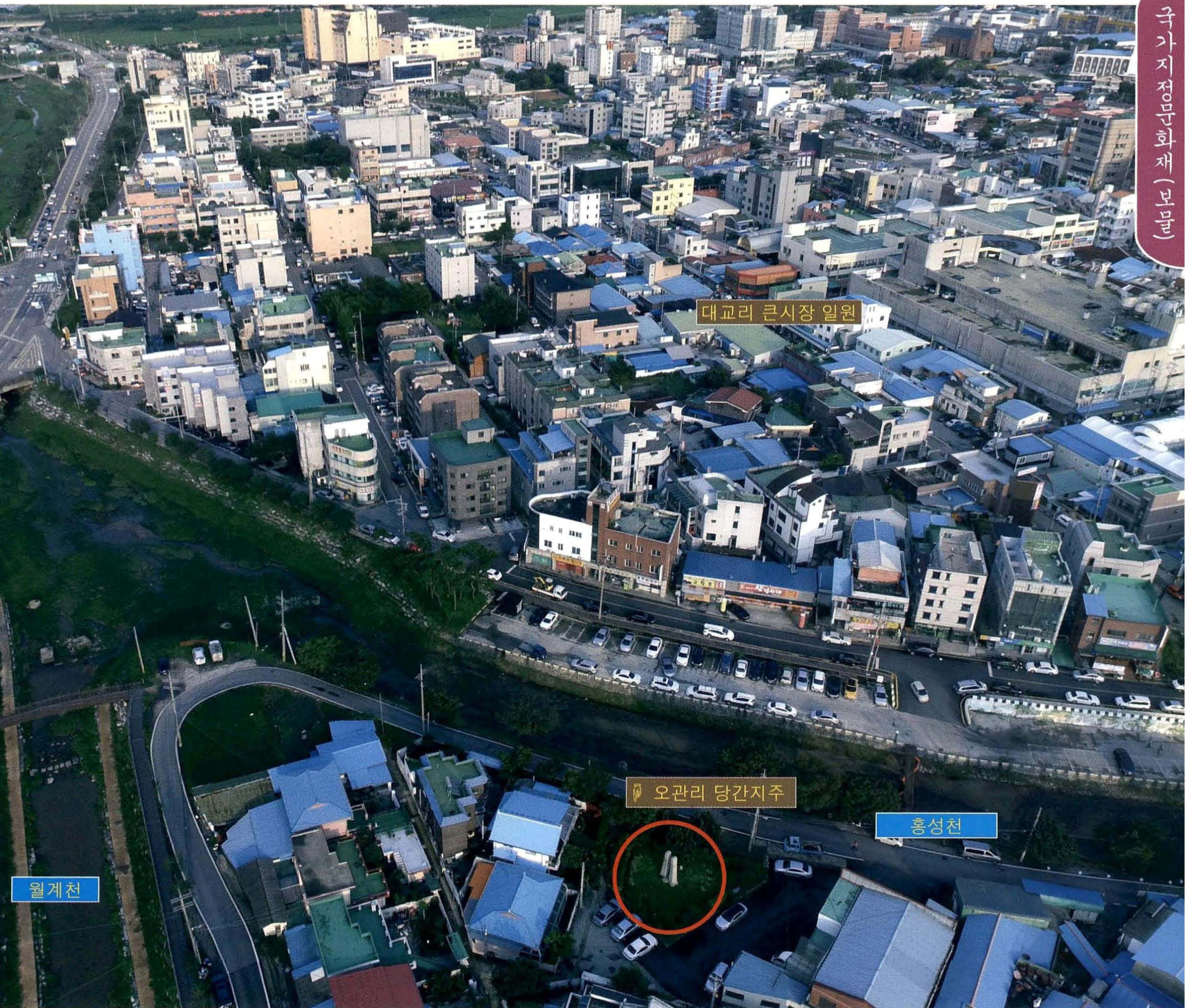


건물에 어울리는 주심포 양식이다. 팔작지붕과 우물천장은 다포 양식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한편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곳이지만, 이곳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대광보전(大光寶殿)' 현판이 걸려있고, 그 안에는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끄는 '아미타불'을 모셨다. 고산사는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지었다고 전하지만 건물, 불상, 탑들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처음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 오관리 당간지주(보물 제538호)

홍성천과 월계천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있다. 일반적으로 절 입구에 세우는 당간지주는 불교 의식이 있을 때 '당(幢)'이라는 깃발을 다는 긴 장대인 '당간(幢竿)'과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두 개의 돌기둥인 지주(支柱)로 구성된다. 오관리 당간지주는 현재 당간은 없고 지주만 남아있는데 지주의 사이는 78cm이고 높이는 4.8m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아래가 넓고 위로 오를수록 가늘어졌다. 둥글게 마감한 지주의 안쪽 위에는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췌기를 박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으며 바깥쪽에는 두 줄의 세로줄을 돌을새김으로 새겼다. 지주의 안쪽에는 아래에 당간을 받치기 위한 '간대(竿臺)'가 놓여있는데 가운데에는 당간이 밀려나지 않도록 둥근 홈을 팠다. 고려 중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오관리 당간지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미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월계천

대교리 큰시장 일원

오관리 당간지주

홍성천





□ 용봉사 영산회(靈山會) 괘불탱(보물 제1262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용봉사에 있다.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불교의 이치를 가르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다. 화면 중앙 위에 석가모니를 크게 그리고, 옆에는 10대 제자를, 아래에는 8대 보살과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과 제석천, 범천을 그렸다. 주로 붉은색과 녹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연녹색과 자주색 등의 중간색을 넣어 화면이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준다. 이 그림은 숙종이 일찍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것이다. 1690년(숙종16)에 승려화가 진간이 처음 그렸고, 1725년(영조1)에 그림을 고쳐 그리면서 적어 놓은 글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있다. 17~18세기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대웅전



▲용봉사 전경



□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홍성읍 오관리에 있다. 돌로 쌓은 성으로 길이 약 1,772m의 성벽 중 약 800m가 남아있다. 홍성천과 월계천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에 물길을 만든 해자(垓字) 역할을 한다. 처음 쌓은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홍주읍성의 최초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451년(문종1)에 고쳐 쌓았는데, 당시의 크기는 둘레가 4,856척(약 1.5km)이고 높이는 11척(약 3.3m)이었다. 4개의 문, 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장인 여장(女牆), 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성 안에 높게 세운 누각인 적대, 우물 2개 등이 있었다. 1823년(순조23)과 1870년(고종7)에 크게 고쳐 쌓아 오늘에 이른다.



1870년 고쳐 쌓았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모범적 사례로 높이 평가하여 조양문(朝陽門, 동문), 경의문(景義門, 서문), 망화문(望華門, 북문), 홍주아문(洪州衙門) 등의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려주었다. 927년 궁준과 왕건의 전투, 1230년 최우와 최향의 전투, 1594년(선조27) 광해군의 군사 모집, 1596년 이몽학의 난, 1866년 이후의 병인박해,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홍주읍성 전투, 1895년과 1906년의 홍주의병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홍주읍성은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홍주읍성 성곽, 조양문, 안회당, 홍주아문, 여하정이 사적 23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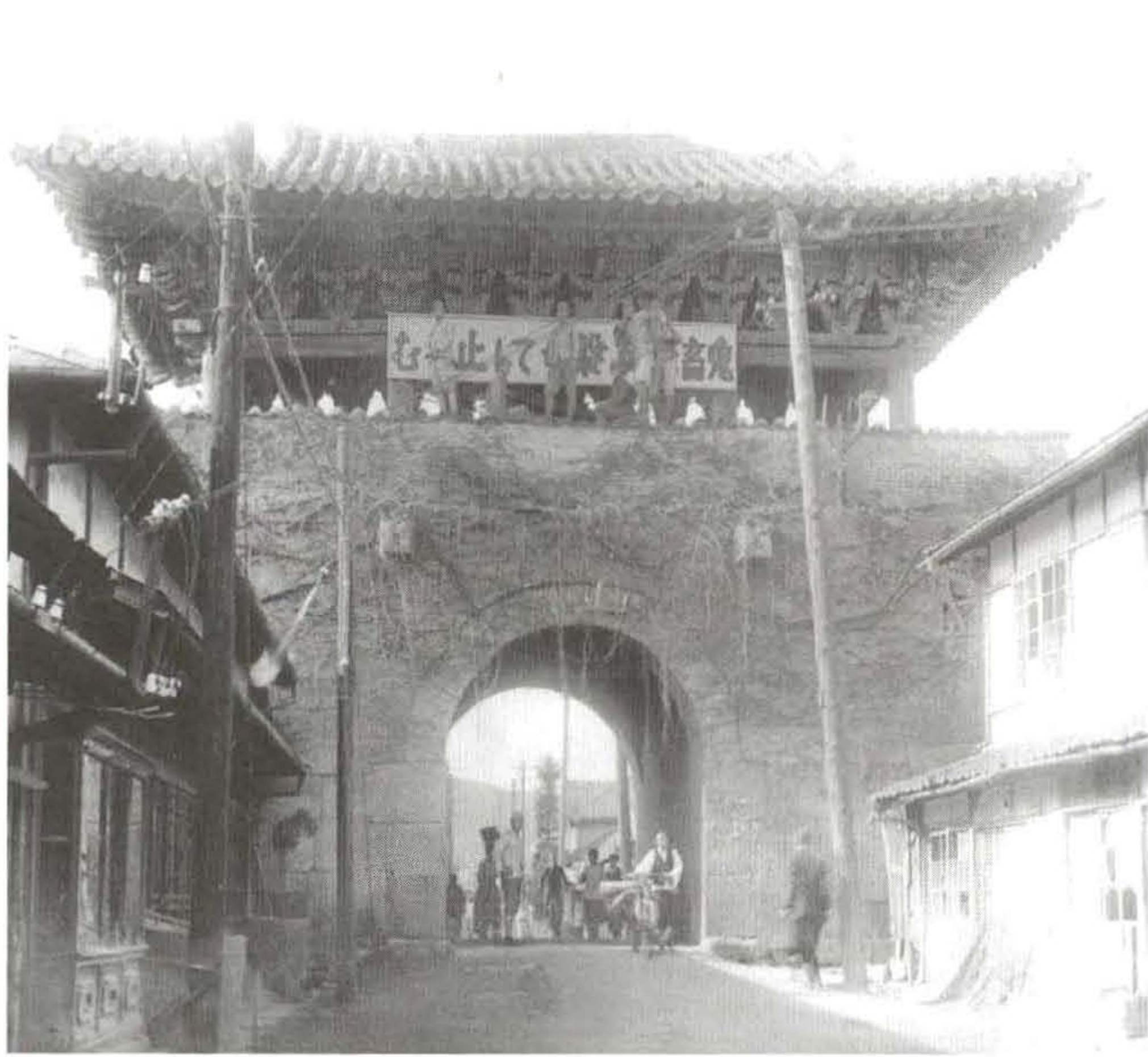
□ 조양문(사적 제231호)

1870년(고종7) 홍주읍성을 크게 고쳐 쌓을 때 만든 동쪽 문이다. 아래는 반원형의 홍예문을 내고 그 위에 앞면 3칸, 옆면 2칸의 누각을 세웠다. 홍주읍성의 동문 이름은 본래 망일루(望日樓)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1870년에 흥선 대원군이 '조양문(朝陽門)'이란 현판을 써준 후 지금까지 조양문이라고 부른다. 이때 흥선 대원군은 경의문(景義門, 서문)과 망화문(望華門, 북문) 현판도 함께 써 주었다. 그러나 이 현판들은 동학농민운동, 홍주의병,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없어졌다. 현재 남아있는 조양문 현판은 김희영(金希英)의 글씨이다. 한편 일제는 가로정비의 명분으로 1913년 서문과 1915년 북문을 없애고 조양문도 철거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철거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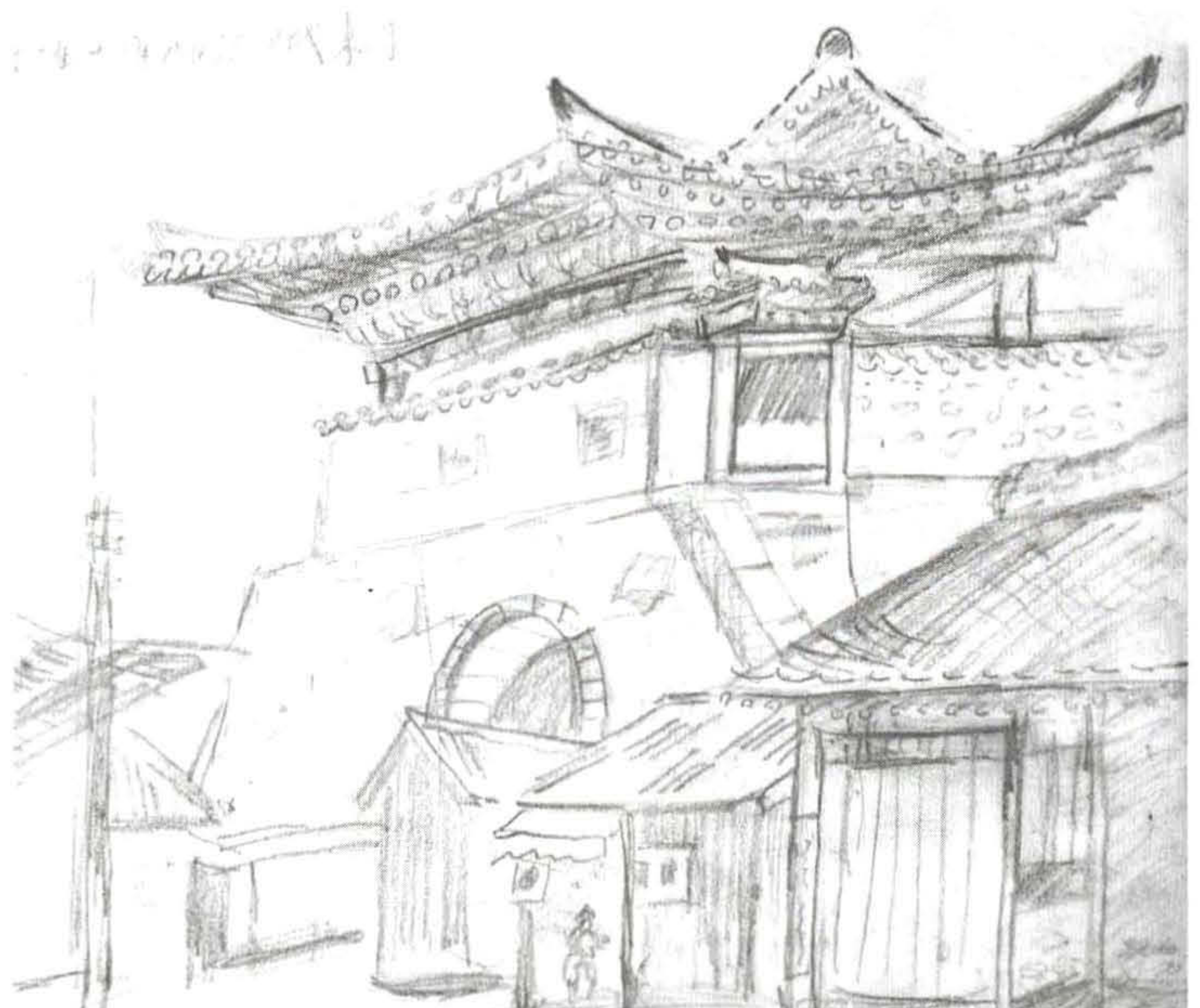
조양문 하단은 육축을 만들고 그 사이에 홍예문을 두었다. 육축하부에 지대석을 놓고 홍예기석을 물린 다음 홍예석을 반원으로 돌려 마감하였다. 육축은 장대석으로 13단을 쌓고 그 위에 사면을 벽돌 15장을 횡으로 쌓아 문루 여장을 만들었다. 육축 상단 홍예문 좌우에는 우수가 잘 빠지도록 전후로 2개씩 모두 4개조의 석누조가 설치되어 있다. 조양문은 정면 3칸(10.51m), 측면 2칸(5.56m)에 걸쳐 팔작지붕으로 만든 단층 문루형식으로 평면은 어칸에 약 2자 정도로 단을 높여 우물마루를 짜맞추고 좌우 협칸은 강회바닥으로 마감하고, 마루바닥의 어칸 부분은 그 아래가 홍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칸만 양측면보다 한단 더 높여 마루 바닥으로 처리하였다. 초석은 화강석으로 만든 방형 초반 위에 복발형 주좌부를 새긴 것을 쓰고 기둥은 직경 약42cm의 민흘림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에서는 창방과 평방으로 기둥 사이를 견고하게 연결한 다음 외1출목, 내2출목 2제공으로 짜 올린 다포식 공포를 설치하였다.



▲조양문의 아름다운 야경



▲1940년대 조양문



▲1962년 이응노 화백 조양문(동문) 스케치화

향화문



□ 홍화문

홍화문(洪化門)은 홍주읍성 남문으로, 1·2차의 발굴조사를 통해 2013년 12월 복원하였는데, 단층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43.45㎡ 규모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개거식 문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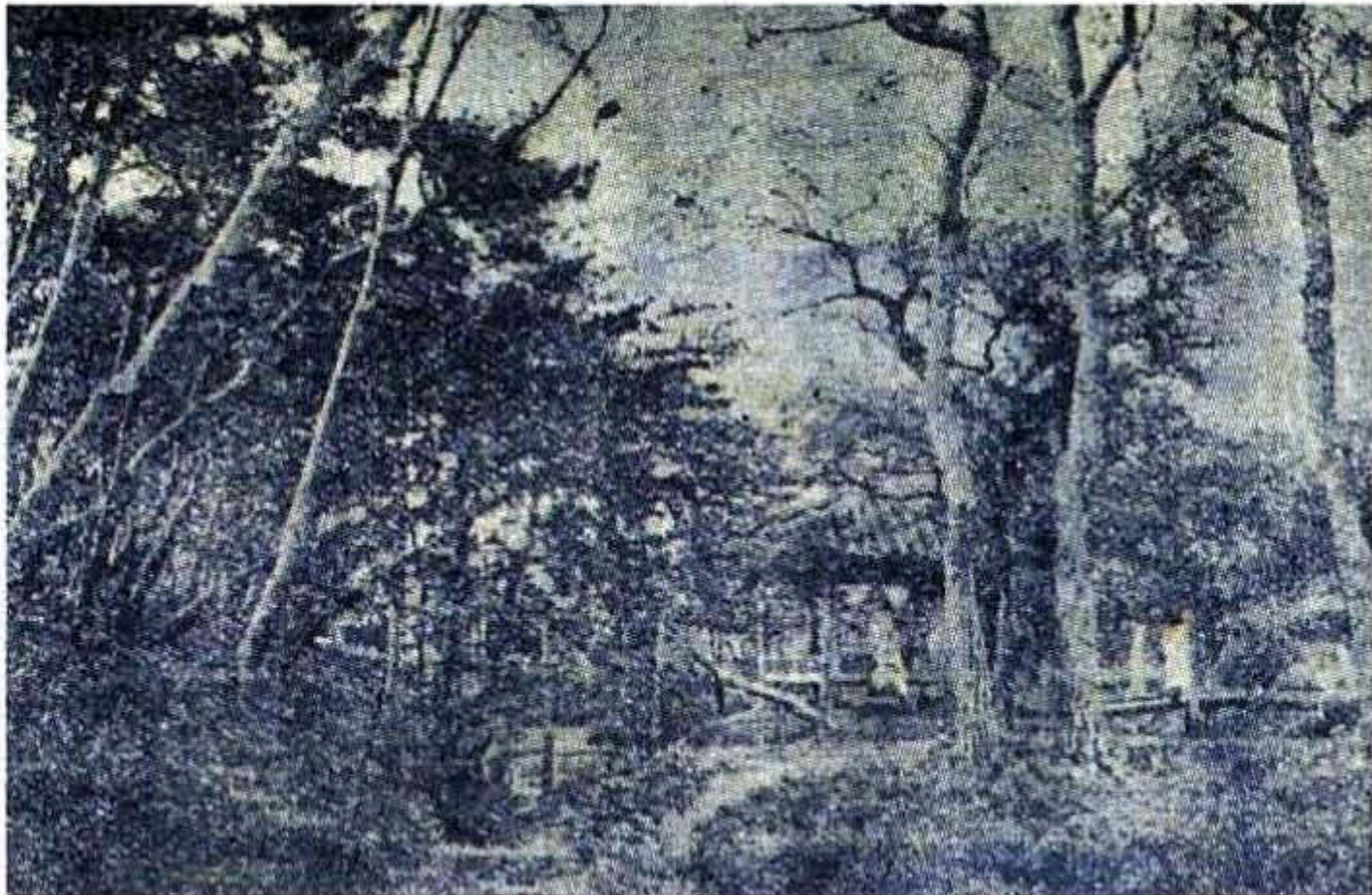
복원 과정에서 군민 설문조사 및 관계전문가,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홍화문’으로 명칭을 결정하였고, 현판은 서예가 변수길의 글씨와 한국서각협회 충남도지회장 김종일의 각자로 제작되었다.



안회당(사적 제231호)

□ 안회당(사적 제231호)

조선시대 홍주목사가 업무를 보던 동헌이다. 앞면 8칸, 옆면 3칸 크기의 팔작지붕 건물인데, 북쪽에 동쪽으로 앞면 2칸, 옆면 2칸의 누마루를 달아내어 전체적인 모습은 'ㄱ'자형을 이룬다. 건물의 가운데 3칸은 넓은 대청마루를 놓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온돌방을 꾸몄다. '안회당'은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 노인은 편안하게 하고 친구는 믿어주며 젊은이는 감싸준다.)"라는 내용의 줄임말이다. 현판은 서예가 석헌 임재우 글씨이다.



여하정 옛 모습▶

□ 여하정(사적 제231호)
 홍주읍성 안의 안회당 서쪽에 있는 연못 위에 세워진 6각형으로 된 수상 정자이다. 1894년(고종31) 홍주목사 이승우가 낡은 청수헌(淸水軒)을 허물고 육각정을 새로 지은 후 '여하정'이라 하였다. 1923년 한쪽 처마에 옛 결성현이 폐현되면서 영심헌(氷心軒) 편액을 옮겨다 걸었지만 잃어버렸고, 그 후 김병수가 쓴 여하정이란 편액을 걸었다. 여하정의 각 기둥에는 시를 판자에 새겨 걸어 둔 주련(柱聯)이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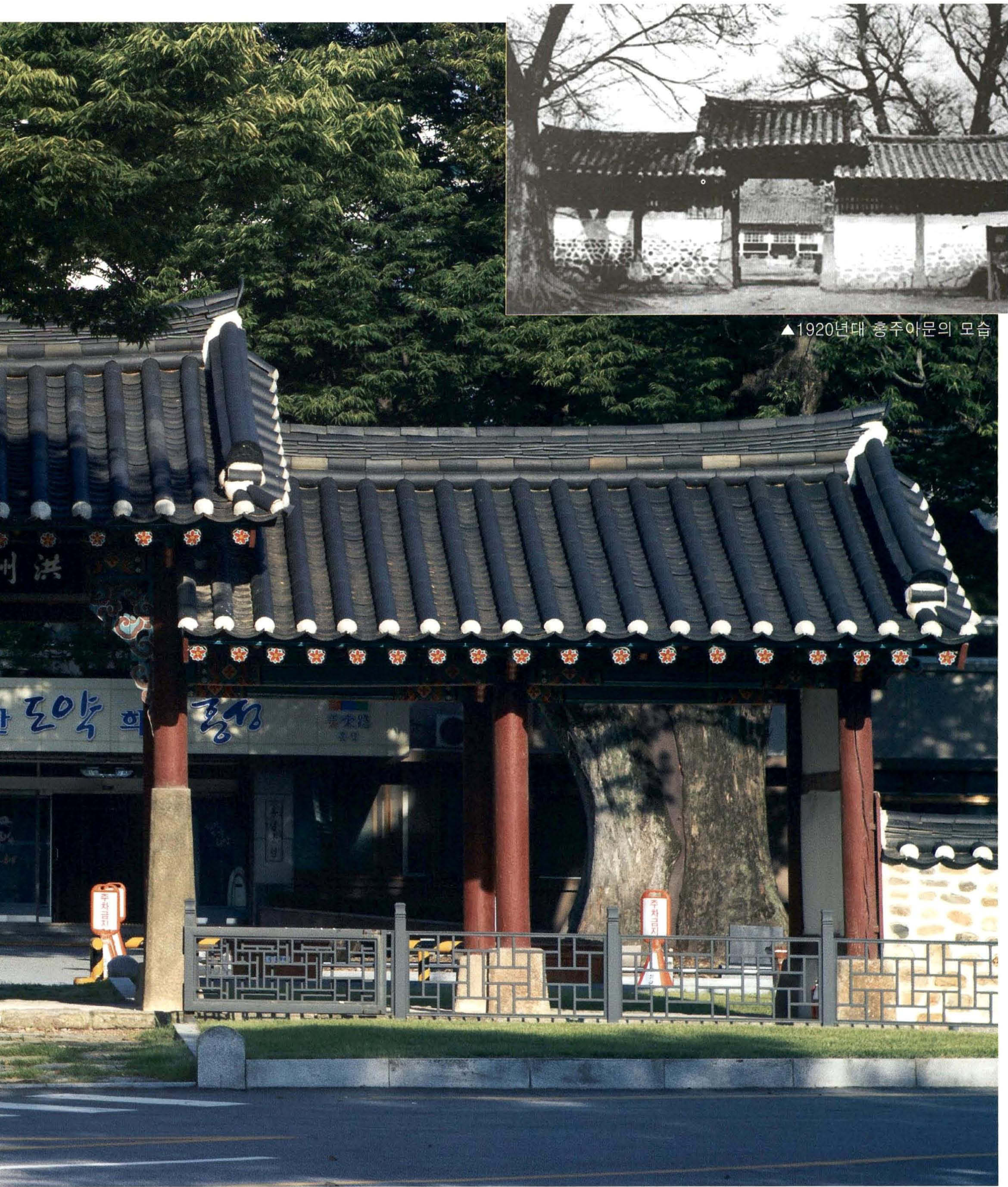


▲ 홍주아문의 겨울 풍경



□ 홍주아문(사적 제231호)

홍주읍성 안에 홍주목사가 업무를 보던 안회당의 바깥에 세운 외삼문(外三門)이다. 1870년(고종7) 홍주목사 한응필이 홍주읍성의 건물들을 고쳐 세울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기는 앞면 5칸, 옆면 1칸이며 '一'자형 건물로 솟을삼문이다. 본래 홍주아문은 가운데 1칸을 문으로



▲1920년대 홍주아문의 모습

사용하고 양 옆의 2칸은 벽을 둘러 행랑채처럼 사용하였던 것인데 일제 강점기 어느 시기에 벽이 없어졌고, 지금은 모두 뚫려있다.



□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한말 홍성지역에 있었던 의병활동 가운데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의병들의 유해를 모신 묘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 뒤 1906년 5월 9일(양력) 전 이조참판 민중식이 부여 홍산 지치(현 내산면 지터리)에서 의병을 일으킨 후 서천~비인~남포~보령~광천~결성 등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홍주로 들어왔다. 5월 19일 삼신당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음 날 홍주읍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30일 새벽 2시 30분,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동문에 이어 북문이 폭파되었다. 홍주의병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수백 명의 의병이 희생되면서 함락당하고 말았다. 홍주의병 연구자료인 홍양일기, 홍양기사,



▲ 홍주의병기념탑



▲ 창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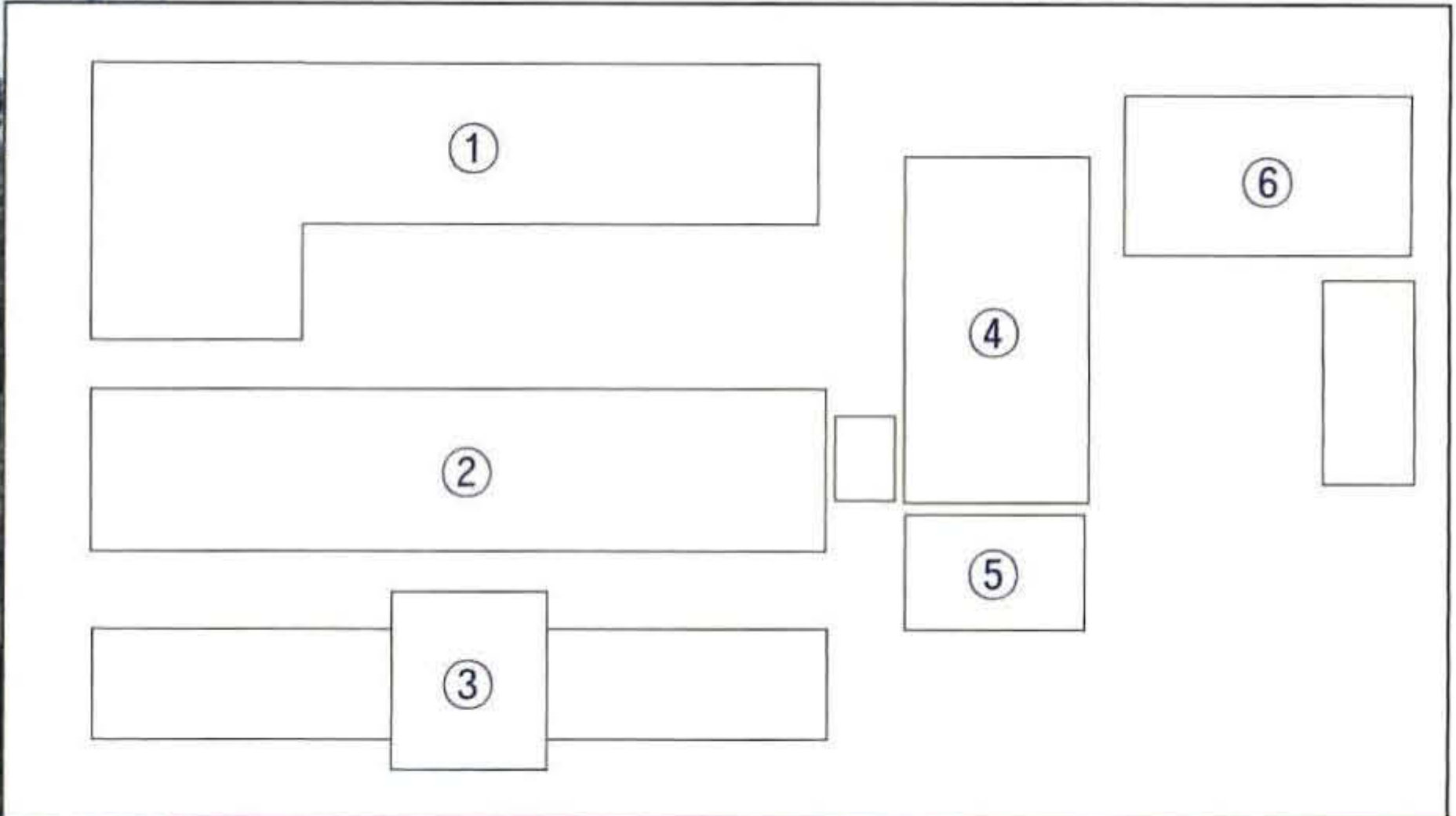
조선최근사 등의 자료들을 종합해볼때, 이 전투에서 희생된 의병 전사자는 최소 98인 많게는 수백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1949년 홍성천변과 남산일대에 흩어져 있던 유골들이 홍주읍성 전투에서 희생한 의병 유골로 밝혀지면서 이곳으로 모셔졌다. 봉분은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리고 아랫부분에는 흙이 무너지 않도록 돌레돌을 둘렀다. 묘의 왼쪽(동쪽)에는 정인보가 짓고 심상직이 쓴 묘비가 있으며, 좌우에는 돌로 만든 기둥으로 분묘를 꾸미기 위하여 세운 망주석 1쌍이 세워져 있다. 사당인 창의사(彰義祠)에 900의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구백의총이라 했던 것을 1992년 홍주의사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매년 5월 30일 순국의사 추모제를 올리고 있으며 묘소 북쪽에 2013년 2월 준공한 홍주의병 기념탑이 있다.



□ 사운고택(국가 민속문화재 제198호)

장곡면 홍남동로 989-21에 있다.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운고택(土雲古宅)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야산이 감싸는 곳에 남쪽을 바라보며 집을 짓고, 입구에는 소나무 숲과 함께 연못과 버드나무를 심어놓아 아름답다. 솟을대문을 낸 '一'자형의 행랑채를 지나면 '一'자형의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의 동쪽 끝에는 중문이 있다. 중문을 들어서서 왼쪽을 보면 '┌'자형의 안채가 있고 오른쪽에는 '一'자형의 광채가 자리한다. 이와는 다른 공간에 광채 동쪽에도 '一'자형의 안사랑채를 배치하고 있는데, 담장을 두르고 대문을 따로 내었다. 안사랑채의 서북쪽으로는 안채와 통할 수 있도록 터놓았다.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가옥이다.

▼건물 배치도



- ① 안채
- ② 사랑채
- ③ 대문채
- ④ 광채
- ⑤ 부경
- ⑥ 안사랑채



▲안채



▲가옥 우측에서 본 모습



▲사랑채



▲대문채



▲고택 앞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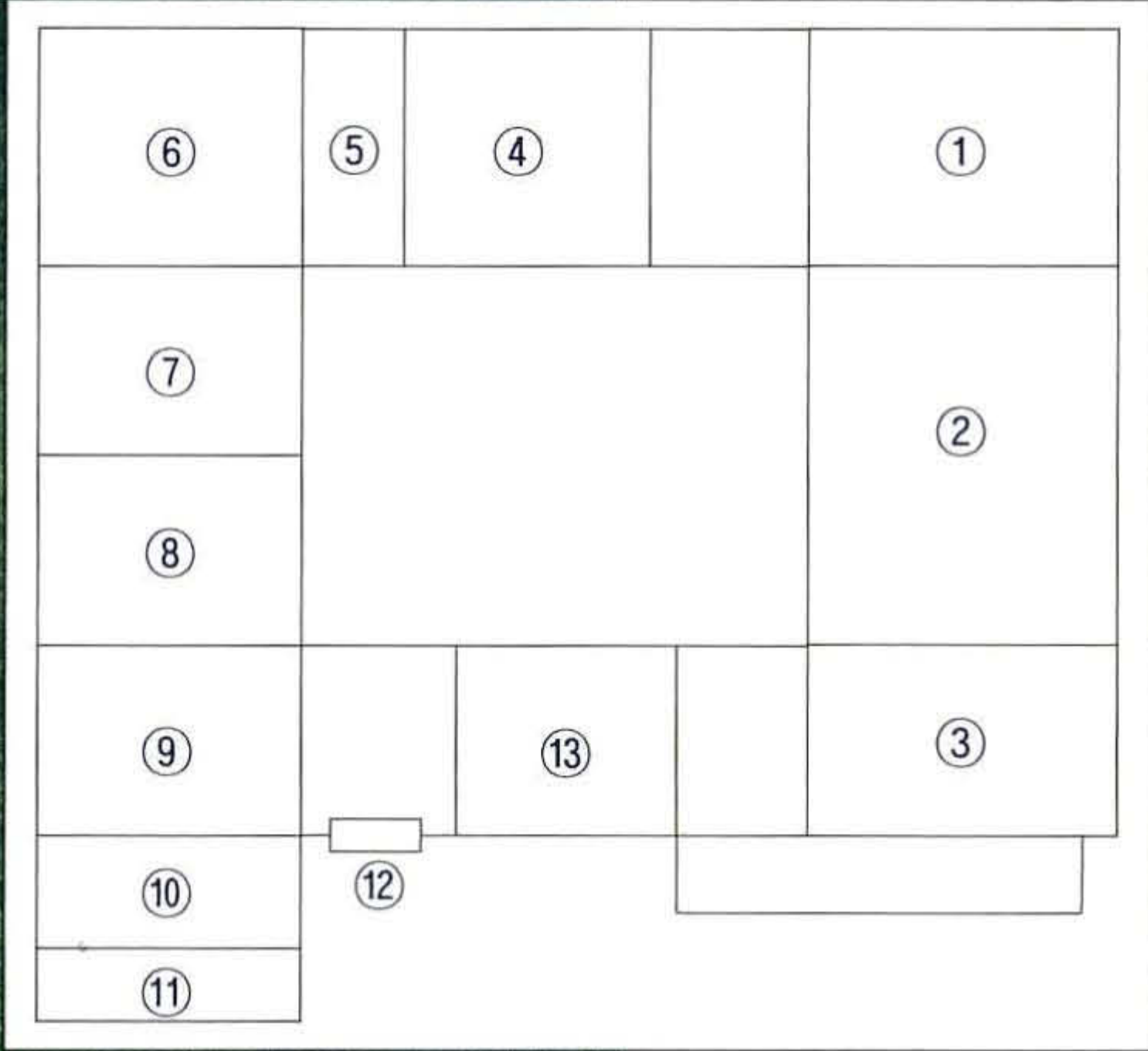


□ 노은리 고택(국가 민속문화재 제231호)

홍북읍 최영장군길 11-26에 있다. 이 고택은 조선시대 사육신의 한 분인 성삼문 선생과 관련된 집으로 전해진다. 주변의 땅보다 약간 높은 곳에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口'자형으로 집을 지었다. 본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붕을 이었다. 북쪽은 지붕 옆면이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고, 동서남쪽 부분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과 앞면이 사다리꼴 모양인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 배치도



- ① 안방
- ② 대청
- ③ 건너방
- ④ 부엌

- ⑤ ⑥ 광
- ⑦ ⑧ ⑨ ⑪ ⑬ 헛간
- ⑩ 방
- ⑫ 대문



▲앞마당에서 본 모습



▲인궤(印櫃) 및 인장(印章)을 보관하는 함



① 상무연구회규칙
② 상리국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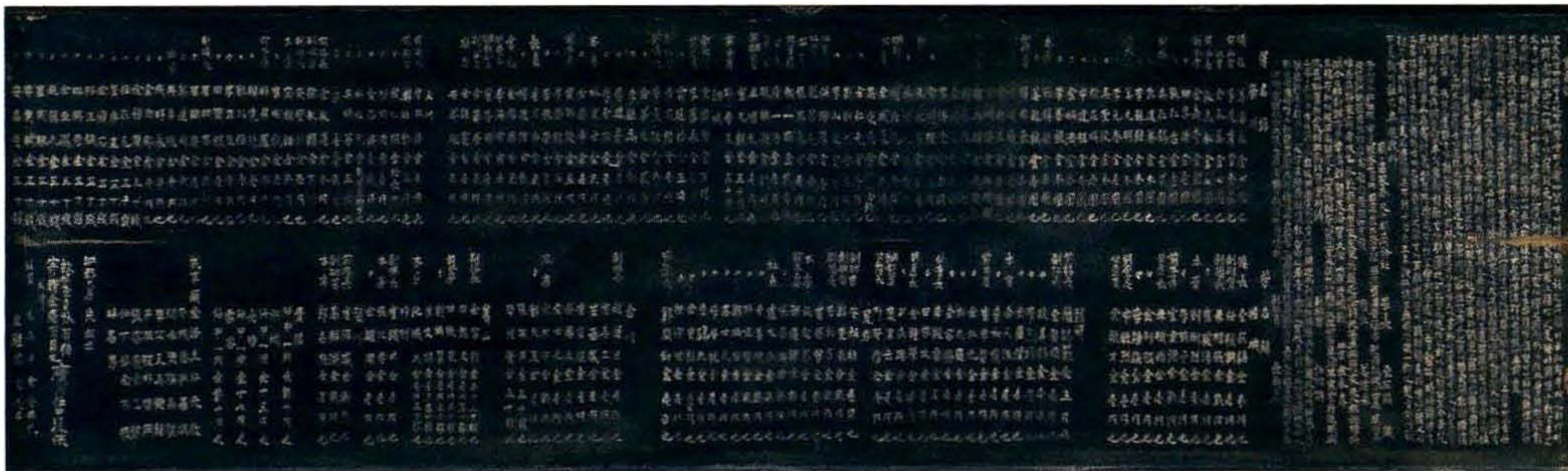
③ 상무연구회규칙
④ 상리국서문



⑤ 우사점장지인
⑥ 우령사지인



⑦ 상무우사장무원지인
⑧ 우사반수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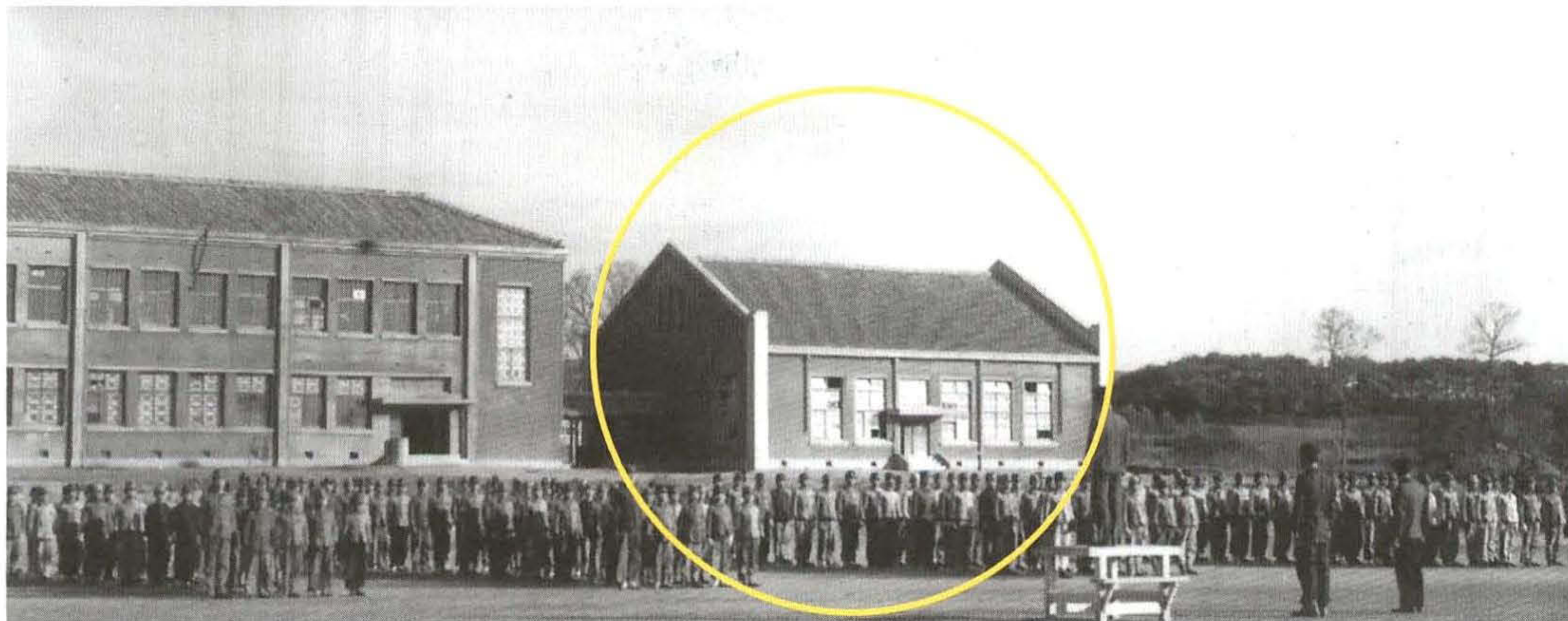


▲원홍주 육군상무우사 현판(중건기)

□ 보부상 유품(국가 민속문화재 제30-4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있다. 조선 후기 이후 보부상이 사용하던 유물 중 1992년에 지정된 '원홍주육군상무사'의 유품이다. 원홍주육군상무사는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홍성·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개 지역의 상업적 권리를 맡아 다스리던 곳으로 장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던 임소(任所)와 전체 임소를 관리하는 본소(本所)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부상 유품에는 청금록(임원들의 기록), 선생안(역대 접장의 명단), 상리국서(商理局序), 동아개진교육회 상무과 세칙,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 규칙, 상무연구회 규칙, 완문(부동산 매매 증서), 소지(상인들이 올린 글), 부의절목(임원들이 죽은 사람들의 집에 보내는 금액과 물품의 규정), 세절찬(임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나누어 준 물품), 비석 5기, 도장 4과, '원홍주육군상무우사' 중건기 현판 등 19건 34점이 있다. 청금록에 의하면 1851년(철종2) 4월 대흥의 임인손이 처음 접장에 선출되었다.

비석 가운데 단제비(壇祭碑)는 홍도원(보부상들의 공동 무덤,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서 한식날 제일 먼저 제사 지내는 비석으로 분묘가 없는 보부상들을 모시는 것이다. 홍도원은 별다른 가족 없이 떠돌아 다니던 보부상들에게는 사후 안식처이자 이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었다.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에 해상공국을 상리국으로 바꾸면서 작성된 당시의 서문, 명령을 내린 전교(傳敎), 상소를 올린 계문(啓文) 등을 적어 보부상 조직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教育會) 자료는 일제가 한반도 식민화 계획을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 자료는 일제가 충남에서 상업주식합자회사를 만들어 공주에 회사를 두고 자본 침투를 꾀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940년대 건축 초기 모습(○안 건물)

국가지정(민속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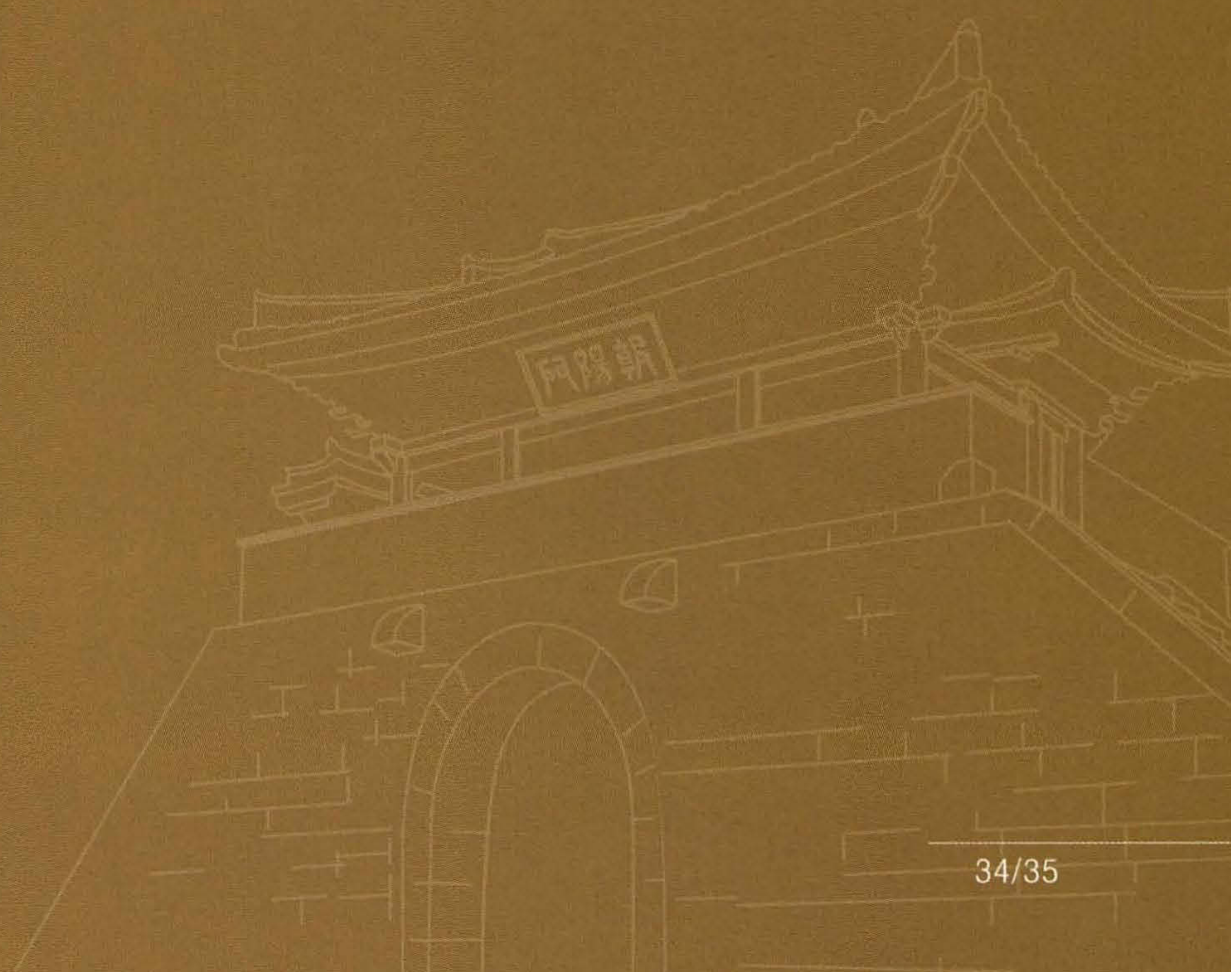


□ 홍성고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272호)

2018년 3월,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10(옛 홍성고등학교 교정)으로 이전한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있다. 1943년에 건립되어 당시 홍성공립중학교의 강당으로 쓰인 건물이다. 단상 위 가운데는 꾸미기를 위해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현재 무궁화와 태극문양으로 꾸며져 있으나 본래에는 일제의 상징 문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점기 이 공간에서 국가 교육 목표인 교육칙어를 읽고 일본 왕을 찬양하는 기미가요를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

- 상하리 미륵불, 용봉사 마애불, 전일상 영정 및 한유도, 전운상 영정, 고산사 아미타불 좌상, 임득의 초상, 고산사 석조여래 입상, 한원진 초상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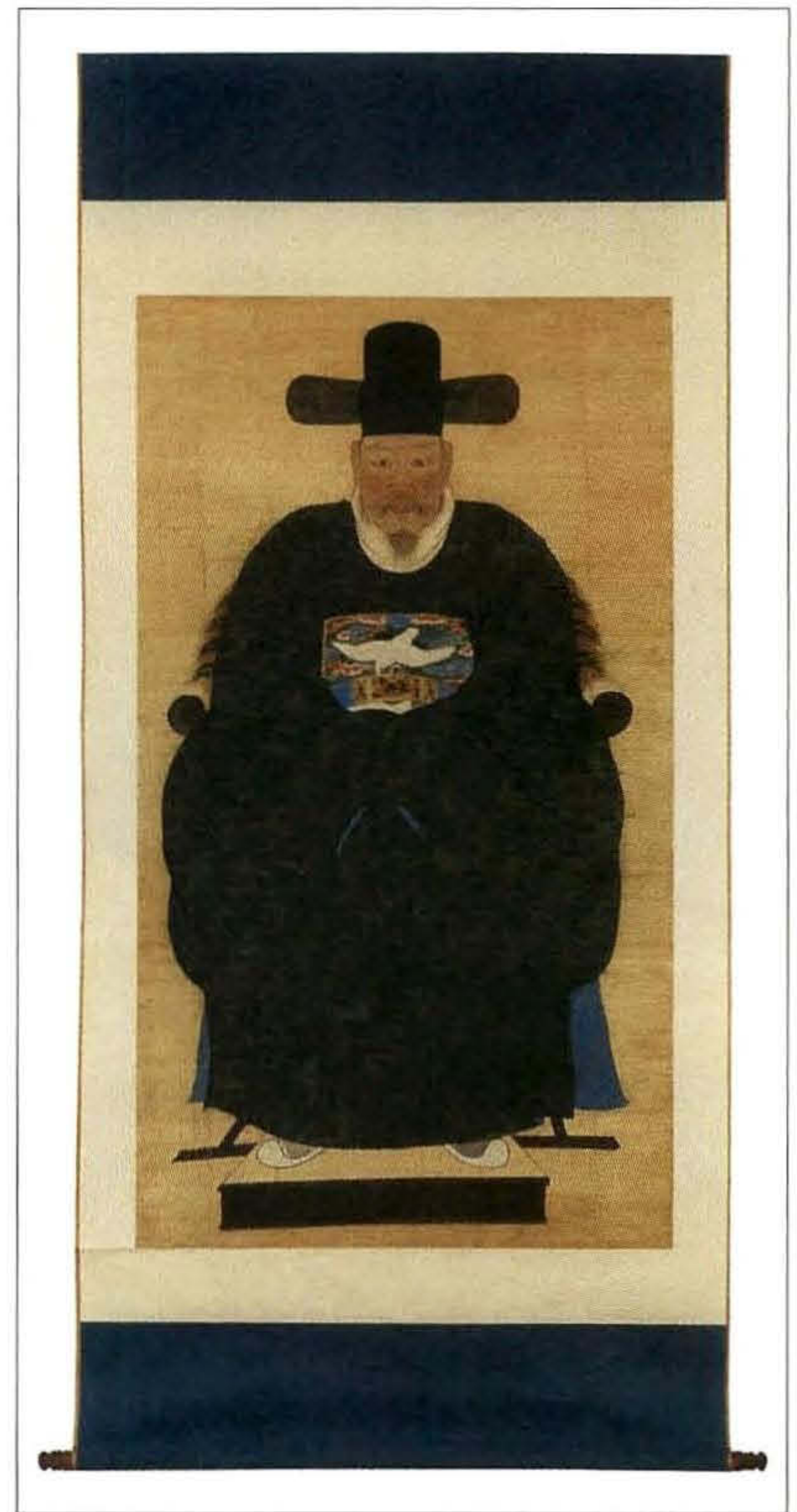
□ 상하리 미륵불(유형문화재 제87호)

홍북읍 이응노로 277번길 65에 있다. 용봉산 남쪽 능선에 솟아있는 자연석 화강암을 깎아 만든 불상이다. 얼굴은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민머리,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낮은 코, 비교적 작게 새겨진 입이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입가에 표현된 미소는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부드럽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 준다. 얼굴 아래의 몸도 입체감 없이 평면적인데, 오른손은 배 위에 대고 넓게 폈고 그 아래에 자연스럽게 펼친 다섯 손가락의 왼손을 돌을새김으로 새겼다. 부처님의 옷인 법의는 양 어깨를 덮고 두 팔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도록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관촉사 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 등 충청도 지방에 남아 있는 거대한 불상들과 비슷한 계열의 작품으로 보인다.



□ 용봉사 마애불(유형문화재 제118호)

홍북읍 용봉산1길 109에 있다. 용봉사(龍鳳寺) 입구의 서쪽에 있는 바위에 돋을새김 한 불상이다. 얼굴 부분은 깊게 새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게 새겼다. 얼굴은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민머리 위에 부처의 지혜를 표현한 상투 모양의 육계가 크게 솟아있다. 눈과 입은 가늘고 작지만 잔잔한 미소가 있다. 귀는 거의 어깨에 닿을 만큼 길게 내려왔고 목에는 3줄의 삼도(三道)가 있다. 양 어깨를 덮은 U자형의 옷주름은 무릎 아래까지 새겼는데 형식적이고 입체감이 떨어진다. 오른손은 내려서 다리에 붙이고 왼손은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반대의 모습으로 표현된 홍성지역의 불상 손 모습의 원형을 보여준다. 8세기의 이상적 사실주의가 엿보이면서도 9세기 불상 양식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불상의 왼쪽에 799년(신라 소성왕1년)에 만들었다는 글이 새겨져 있어 그 가치를 한결 높여준다.



□ 전일상 영정(유형문화재 제127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다. 전일상 영정은 화가 김희겸이 그린 것으로 조선시대 경상좌병사를 지낸 석천 전일상(1700~1753)의 초상화이다. 비단에 그린 초상화는 가슴의 흉배에 두 마리의 학을 수놓은 관복을 차려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가로 90.2cm, 세로 142.4cm의 크기이다.



□ 한유도(유형문화재 제127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있다. 한유도(閒遊圖)는 가로 87.5cm, 세로 119.5cm의 크기로, 장군이 누마루가 있는 정자 위에 앉아 한가로이 더위를 피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언덕 위에 정자가 있고 그 앞으로 냇물이 굽이쳐 흐른다. 정자 앞뒤에는 해묵은 버드나무와 오동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편한 옷차림으로 정자에 나와 앉은 장군이 검을 기둥에 매어 두고 매를 손등에 얹고서 여인네의 시중을 받고 있다. 누마루에 오르는 두 여인은 술병과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있고, 정자 아래로는 두 마리의 개가 장난을 치고 있다. 화폭에 '무진유월일제(戊辰流月日製)'라는 글이 있고 그 끝에 김희겸의 낙관이 찍혀있어 1748년(영조24년)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풍속도 중에서 매우 오래된 것으로 그림에 나타난 생활상이나 문물의 묘사는 당시의 문화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한유도의 주인공은 조선 시대 경상좌병사를 지낸 전일상 장군이다.



□ 전운상 영정(유형문화재 제147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다. 조선 후기 무신인 전운상(1694~1760)의 초상화이다. 전운상은 1717년(숙종43) 24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함경도 부사로 있을 때 어진 정치를 베풀어 왕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비단에 그린 초상화는 감색의 관리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크기는 가로 88.0cm, 세로 136.5cm이다. 의자에는 호랑이가죽이 덮여 있고, 두 손은 옷 소매자락 안에 공손히 모았다. 가죽신을 신고 있는 발은 팔(八)자 모양으로 벌리고 있다. 관복은 호랑이 무늬가 있는 흥배를 가슴에 붙이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둘렀다. 얼굴은 붉은색으로 넓게 칠하고 수염은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눈이 날카롭고 얼굴에 살이 없어 무인의 특징을 잘 담아내었다. 그린 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한유도와 그 솜씨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화원 김희겸이 1740년(영조16)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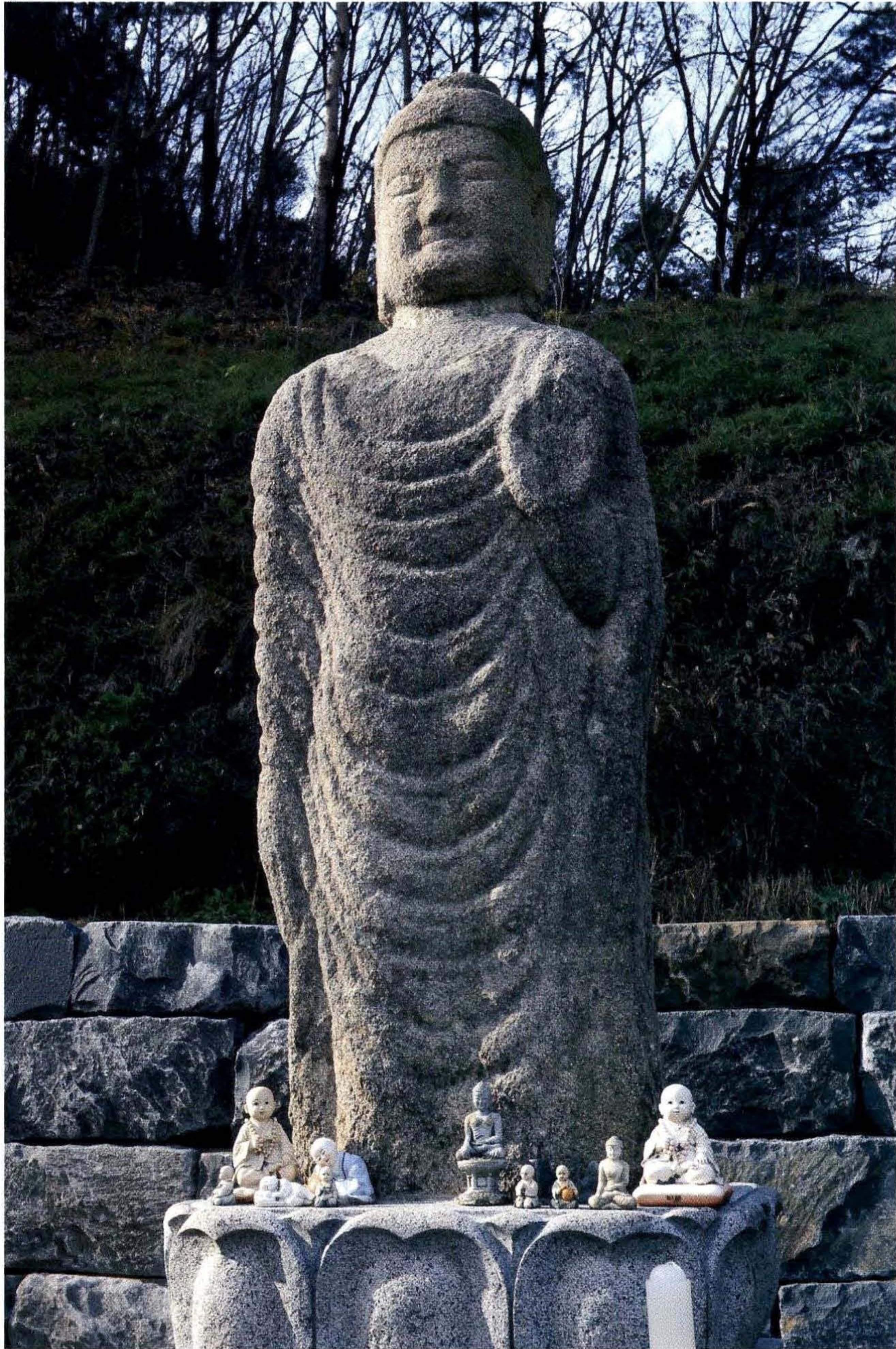
□ 고산사 아미타불 좌상(유형문화재 제188호)

결성면 만해로 127번길 35-99 고산사 안에 있다. 끈끈하고 차진 진흙으로 만든 소조 불상이다. 전체적으로 토속적인 느낌을 주지만,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점은 진흙으로 만든 불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머리는 부처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소라 모양의 나발이다. 머리 위에는 상투처럼 솟아있는 살인 육계 밑에 상투의 머리끈 장식 보석을 표현한 중앙 계주와 육계 위에 있는 보배구슬을 표현한 정상 계주가 모두 표현되었다. 목에는 세 줄의 삼도를 얇게 새겼다. 손은 오른손을 들어 밖을 향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앞을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이다. 반듯한 자세에 낮은 무릎, 손가락을 유난히 크게 표현한 점 등은 이 불상의 독특한 모습이다. 가름한 얼굴 형태와 안쪽 옷인 승각기를 묶은 매듭의 표현 등은 고려 후기 불상의 특징에서 볼 수 있는 한편, 어깨 위로 치켜 올려진 옷주름과 왼손을 다리 위에 올려놓은 모습 등은 조선 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임득의 초상(유형문화재 제203호)

공주시 충남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임득의(林得義, 1558~1612)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자방(子房)이고 본관은 평택이다. 1596년(선조29)에 일어난 이몽학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1604년(선조37) 청난공신(淸難功臣) 3등에 올랐고, 충청수우후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초상화는 청난공신으로 책봉된 것을 기념하여 왕명으로 그렸던 공신상이다. 얼굴은 약간 오른쪽으로 향한 채 두 손은 옷소매 안에서 마주잡고 있는 관복 차림의 전신 좌상이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얼굴 표현이나 양 어깨의 경사각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은 조선 중기에 유행한 초상화 기법으로 추정된다. 발 받침대 밑에 깔린 화문석 돛자리는 공신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 고산사 석조여래 입상(유형문화재 제221호)

결성면 만해로 127번길 35-99 고산사에 있다. 타원형의 둥근 얼굴에 긴 타원형의 눈과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인자한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 머리는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민머리에 그 위로 상투처럼 솟아있는 지혜의 살인 육계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길쭉한 몸에 겹옷인 대의는 양 어깨를 덮은 통견식으로 입었으며 옷주름은 무릎 아래까지 둥근 'U'자형이다. 양 다리 사이로 몸의 굴곡이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얇은 대의를 걸쳤음을 표현하였다. 손은 홍성 지역의 독특한 손 모습을 하였는데,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손은 가슴 위로 들어 밖으로 향하여 중생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① 초본본



② 재본본



③ 당용본



④ 심의복건 반신상



⑤ 전신좌상(20세기)



⑥ 전신좌상



⑦ 전신좌상

□ 한원진 초상 일괄(유형문화재 제2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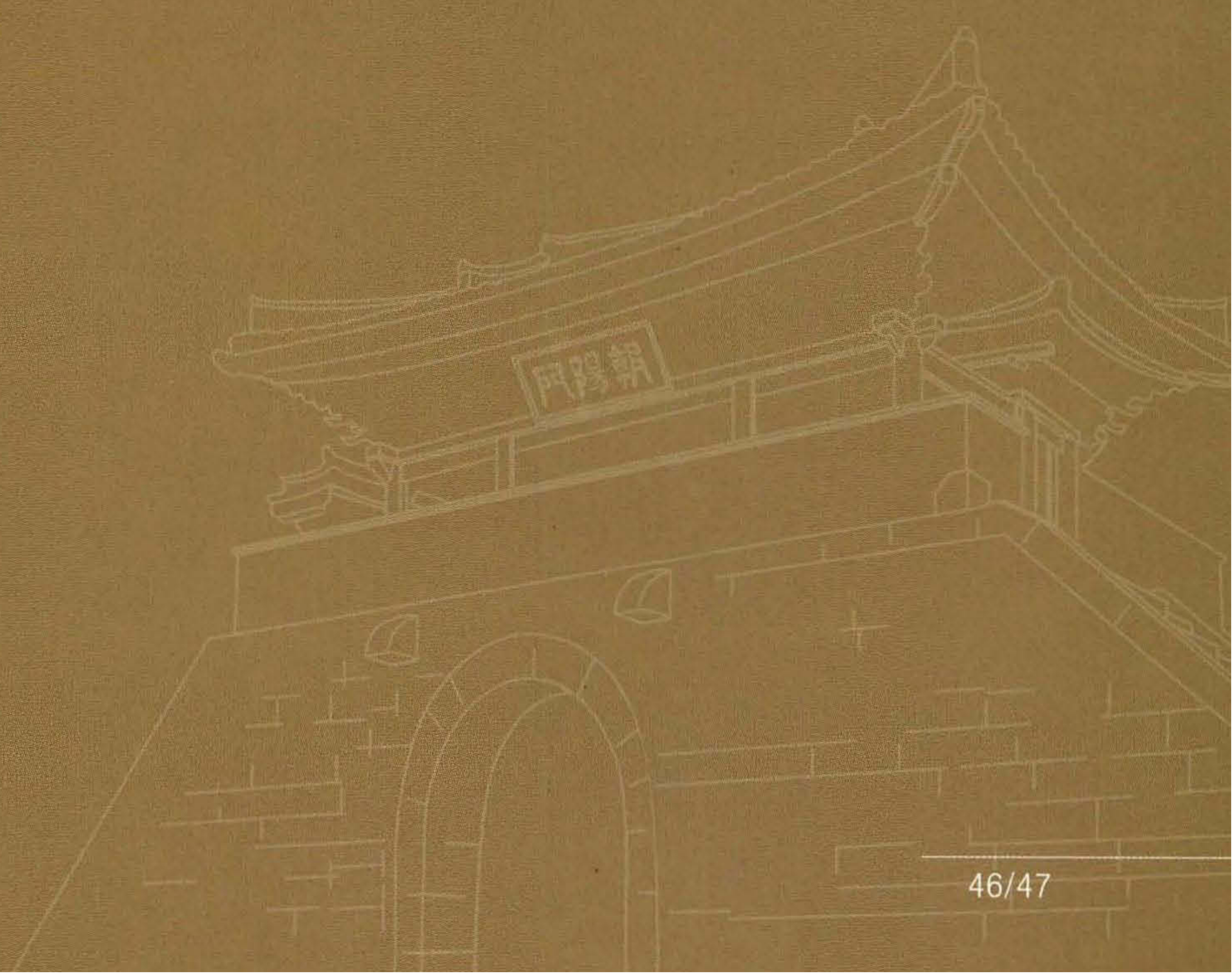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있다. 한원진 초상을 비롯한 남당 한원진 문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옷, 문서, 책 등이 포함된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본관은 청주,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이다. 우암 송시열이 시작한 『주자언론동이』를 완성시켰으며 외암 이간과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논쟁인 인물성동이론을 벌이면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호서지역의 '호론(湖論)'을 이끌었다.

초상화는 4점의 정본뿐 아니라 3점의 초본까지 보관되어 있어 전통 초상화의 제작 공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원진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되는 '황강영당본'과 비슷한 반신상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배 앞에서 두 손을 모은 모습이다. 얼굴이 작고 몸 부위가 비교적 크게 그려져 당당한 체구가 드러난다.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뜨리고 생각에 잠긴 듯 표현한 얼굴 표정과 공손한 자세는 사려 깊은 학자의 면모를 부각시킨다. 얼굴은 색을 칠하고 가는 선으로 눈·코·입을 표현하고 눈썹 사이와 눈 주위,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과 양쪽 뺨 등에 색칠을 할 때 한쪽은 진하게 칠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점점 옅고 흐리게 칠하는 선염(渲染)을 더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한 옷 주름은 머리에 쓴 복건(幅巾), 웃옷인 심의(深衣) 깃의 검은 색과 대조를 이루며 강직한 문인의 성품을 드러낸다.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에는 한원진을 제향하기 위해 1773(영조49)에 건립된 양곡사가 있고, 서부면 신리 마을 뒷산에는 한원진 묘소가 있다. 신리 마을 입구에는 김복한이 비문을 지은 '남당 한원진 선생 기적비'가 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 지승제조, 결성농요, 땡땡이장, 수룡동당제, 옹기장, 대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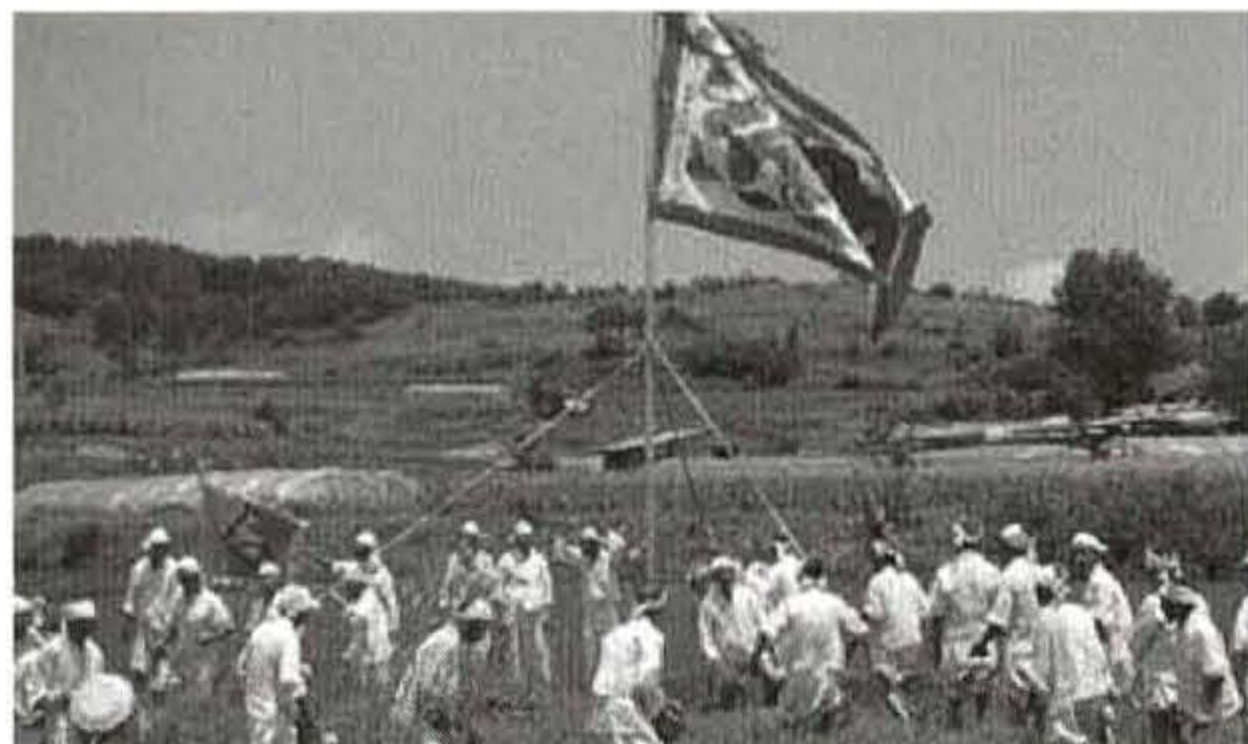


□ 지승제조(무형문화재 제2호)

지승(紙繩) 공예는 종이를 꼬아 엮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일명 '노ړ개'라고도 한다. 발생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종으로 된 그릇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만드는 방법은 한지를 잘라 새끼를 꼬듯이 물에 적셔서 꼰다. 꼰 종이 끈을 반으로 접어 한 올씩 엮어간다. 무늬나 형태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형태를 갖춘 종이 그릇에 접착제를 칠한다. 마지막으로 페인트의 일종인 캐슈로 윤을 내면 완성된다. 지승(종이끈)으로 바구니, 쟁반, 멜빵, 신발(미투리) 등을 만든다. 지승제조는 전통공예기술로서 기술을 전승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흥북읍에 살고 있는 기능보유자 최영준에 의해 그 맥이 유지되고 있다.



▲결성농요 시연(가래질소리)



▲결성농요 시연(두레 풍장)



▲결성농요 상설 공연장(내부모습)



▲결성농요 시연(실참놀이)



▲결성농요 시연(모심기)



▲결성농요 상설 공연장(외부모습)

□ 결성농요(무형문화재 제20호)

농요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 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토속 민요의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부르며 지방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결성농요는 결성면 금곡천 유역에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용신제, 모내기, 건쟁이, 뚝매기, 아시벌매기(논매기), 실참놀이, 만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내기 소리인 '어릴렐렐상사리'와 논매기소리인 '얼카덩어리' 또는 '두레소리' 등은 이 지방에서 자생한 소리이다. 결성농요는 순수 우리 가락이며, 근래에 들어와 예전의 농요와 두레(공동작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 댕댕이장(무형문화재 제31호)

댕댕이 덩굴은 한자로 '용린(龍鱗)', '상춘등(常春藤)', '목방기(木防己)' 등으로 불리며 지방에 따라 경남지방에서는 '장태미', '장드레미', 제주지방에서는 '정당', '정등', '정동' 등으로 불린다. 댕댕이 덩굴의 줄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탄력성이 매우 좋으며 축축한 상태에서는 잘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어 풀공예 재료 중 장점이 가장 많은 재료이다. 또 줄기의 직경이 2mm 미만 이어서 공예품을 만들면 그 짜임새가 섬세하고 고운 질감을 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은 댕댕이 덩굴로 삼태기, 수저집, 바구니, 채반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댕댕이 덩굴 공예도 점차 그 기능이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짚·풀공예 조사에서 제주도와 충남 홍성에서만 댕댕이 덩굴을 소재로 공예품을 만들고 있음을 찾아냈다. 특히 홍성군 광천읍 백길자의 댕댕이 덩굴 공예는 국내 유일한 존재이고, 나아가 싸리·보리짚 등의 짚·풀 공예도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당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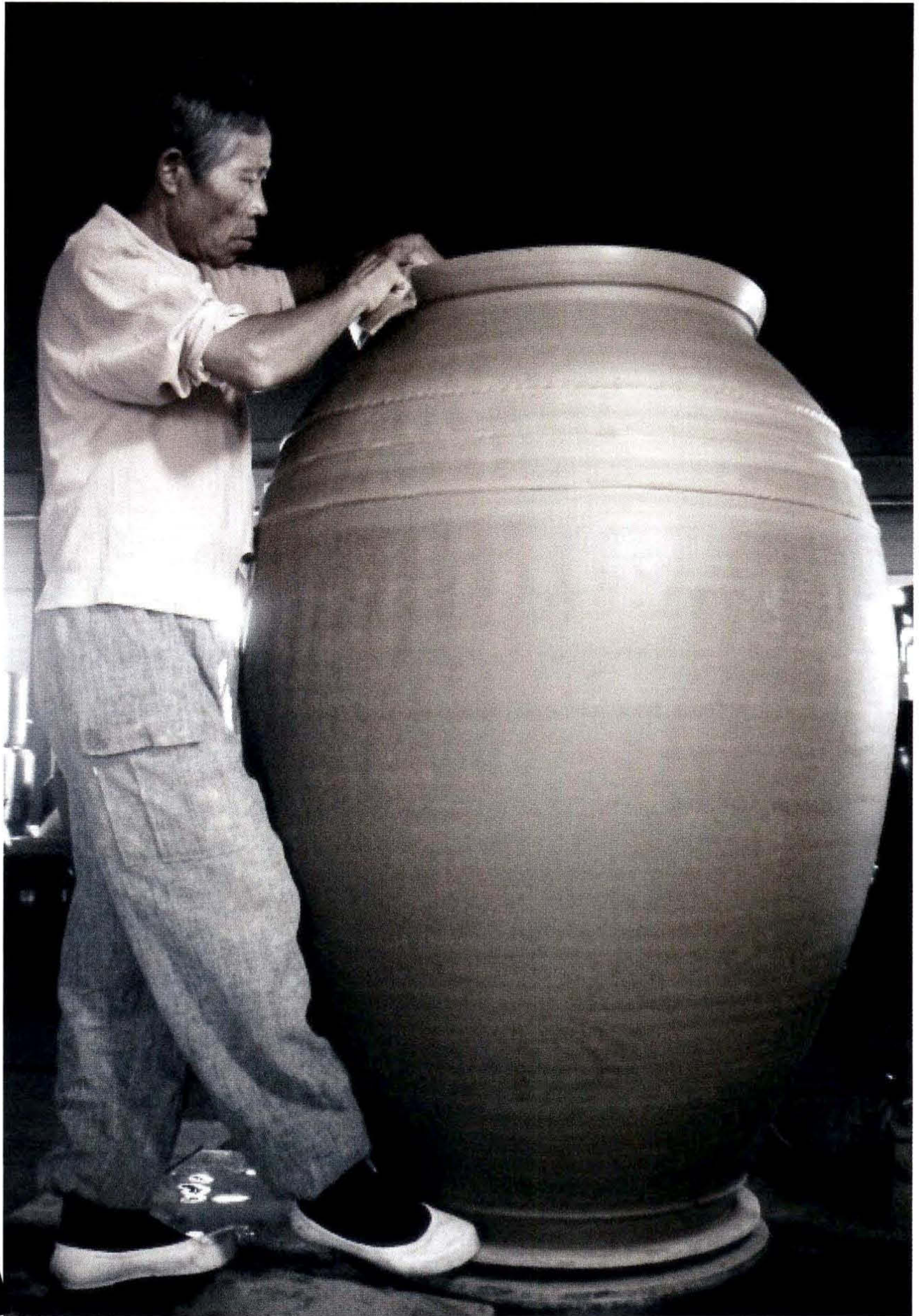


▲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



□ 수룡동 당제(무형문화재 제36호)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이다.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수룡동은 마을 당산에서 매년 정초에 서해의 용왕신에게 당제를 지낸다. 당의 신격은 서해의 용왕신인 당각시를 비롯하여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산신, 지신 등 5당을 모시고 있다. 당제에 앞서 깨끗한 사람 가운데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선출하는데 지금은 이장이 당주를 맡는다. 당주가 선출되면 당주 집 대문에 금줄을 달고 황토를 깔며 마을의 우물을 비롯한 모든 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당제의 비용을 모으는 '당추렴'을 하고 이 돈으로 당제에 쓸 소머리, 백설기, 팔시루, 삼색실과, 포, 술 등을 사오는데 5당의 몫을 따로 마련한다. 당제 전 날, 마을에서는 '물 달아오기'를 한다. 이는 물이 풍부한 천마산의 기운을 가져오는 행사이다. 보름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비는 무당의 축원과 함께 당산에서 당제를 시작한다. 당제가 끝나면 용왕제를 지내고, 이어서 선착장에 있는 각 배의 깃발에 소원을 비는 고사를 지낸다. 그러면 각 배의 주인은 깃발과 제물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배로 돌아가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가 끝난 뒤 저녁이 되면 마을에 들어오는 액운을 막기 위한 거리굿이 열린다. 거리굿이 끝나면서 모든 풍어제 의식도 끝난다. 홍성 수룡동 당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서부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살아있는 서해안 당제의 모습을 잘 계승하고 있는 풍어제로서 가치가 있다.



□ 옹기장(무형문화재 제38-1호)

갈산면 동성리에 사는 옹기장 방춘웅은 옹기점을 운영하던 증조부 방연하와 아버지 방순복의 뒤를 이어 옹기작업을 주 생업으로 해왔다. 옹기작업은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1954년부터 이영준(1901~1973) 옹의 가르침을 받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 옹기수품대장이 되었다. 작업 내용은 가마짓기, 충청도 정통 옹기 만들기(큰독, 작은독, 각종 오짓그릇 및 질그릇, 푸레독), 불떼기 등 이다. 현재 그는 정통 충청도 옹기작업과 더불어 옹기 체험장을 통하여 학생들이나 옹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옹기문화를 이해시키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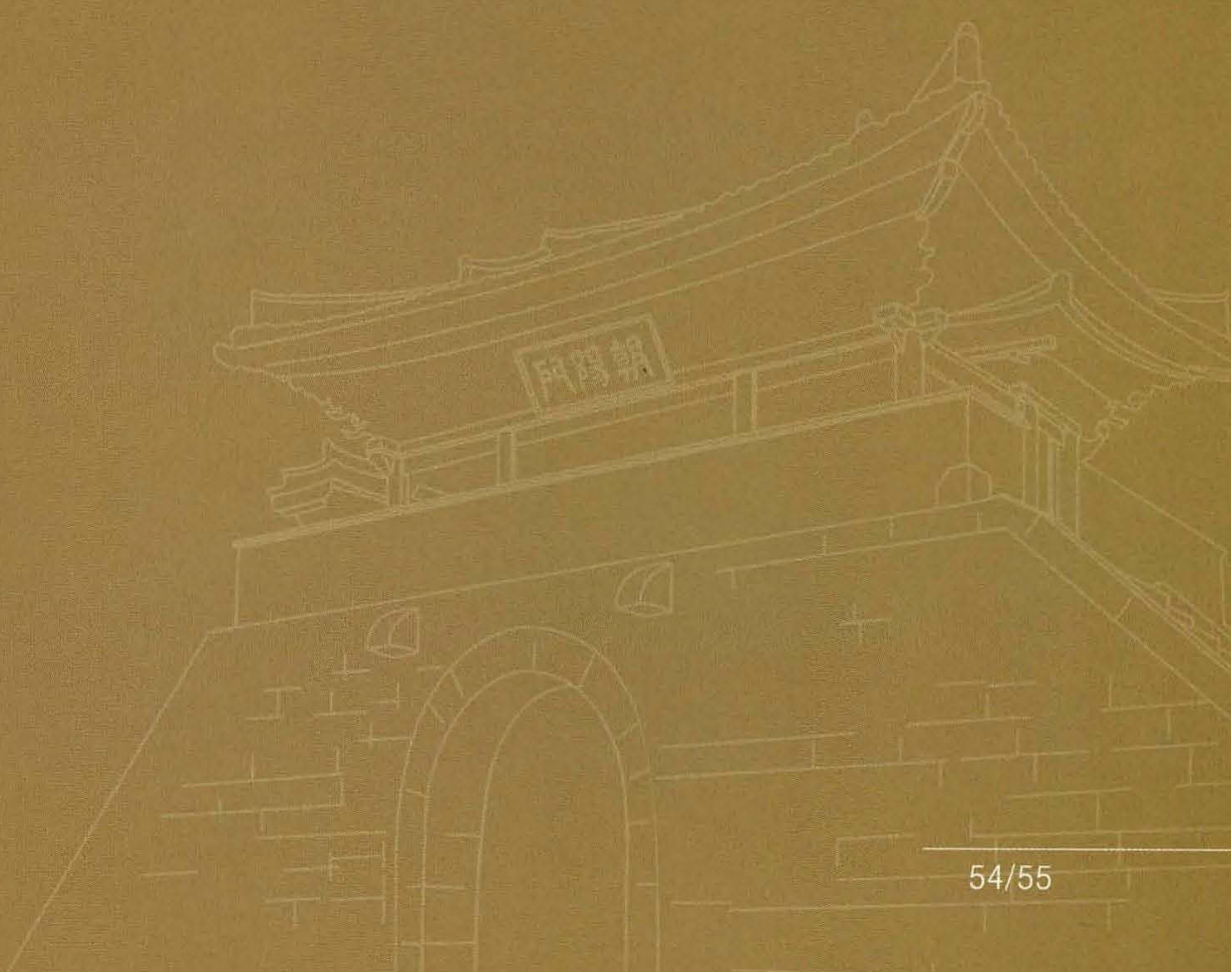


□ 대장장(무형문화재 제41-2호)

대장장 모무회는 홍성읍 대교리 전통시장 안에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장간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연장이나 전통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곳이고, 대장장은 전통 농기구 등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현재 대장간의 시설로는 풀무, 모루, 정, 메 등이 있으며, 대장장은 이를 활용하여 모양을 만드는 성형, 구멍을 뚫는 천공, 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열처리[담금질] 등을 통해 각종 연장[도구]을 생산하고 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다수 존재했던 대장장은 현재는 산업화에 밀려 전통적 제작 기법 및 전승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무회는 전통적인 대장장 제작 기능을 이어받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성형, 천공, 열처리 기술 등에 있어 전통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 기능의 전통성과 수월성이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 지정 기념물

- 성삼문선생 유허지, 이광륜 묘, 지석묘, 한용운 선생 생가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결성향교, 홍주향교, 신금성, 결성읍성, 오관리 느티나무





▲유허비



▲노은단



□ 성삼문 선생 유허지(기념물 제5호)

홍북읍 노은리에 있다. 유허지(遺墟址)는 성삼문 선생의 외가가 있던 곳으로 그가 태어난 집터이다. 성삼문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에 반대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세종(1418~1450) 때 집현전의 학자로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단종 폐위에 대해서도 굳은 절개를 지켜 죽임을 당했다. 1676년(숙종2)에 읍사 이량과 유생들이 선생의 옛 집 근처에 사당을 세우고, 1685년(숙종11)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 유응부(兪應孚)를 추가 배향하였다. 1692년(숙종 18)에 조정에서는 이 사우를 녹운서원(綠雲書院)이라 하고 현판을 내려주었다가 1712년(숙종38) 노은서원(魯恩書院)으로 바꿨다. '노은'은 민진후(閔鎭厚, 인현왕후 오빠)와 송시열(宋時烈)이 노산(魯山)의 '노'자와 은의(恩義)의 '은'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노은'이라 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1687년(숙종13) 노은서원 옆에 따로 사당을 지어 성승(成勝, 삼문의 아버지)의 위패를 모셨다가 1784년(정조8)에 성승이 별운검으로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점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가 풀린 후 같이 제사를 지냈다. 1864년(고종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노은서원이 없어지게 되자, 유생들은 사육신의 위패를 묻고 '노은단'이라고 하고 해마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냈다. 1954년 흥성 고적현창회에서는 제단을 보수하였다. 이전의 제단 자리는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으며, 유허비는 약 30m 거리의 마을 앞에 있다. 유허비의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김진상(金鎭商)이 썼으며, 전액은 유척기(兪拓基)가 썼다.



▲사당



□ 이광륜 묘(기념물 제17호)

장곡면 옥계리에 있다. 이광륜은 고려 문절공 이행(李行)의 6대손으로, 호는 중임(仲任)이며 1546년(명종 2) 청양 비봉면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인자하고 의리를 존중하며 효로서 부모를 모셨다. 33세가 되던 해 효행으로 추천을 받아 생원시에 응시하여 문소전참봉이 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00여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영규대사와 함께 청주성 탈환전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곧 이은 금산 전투에서는 왜적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이에 사헌부집의와 함께 충신을 기리는 비각인 정려를 받았다. 1840년(헌종6)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벼슬을 받았다.

도지정(기념물)



□ 지석묘(기념물 제28호)

홍성군 구항면과 은하면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 부른다. 큰 고인돌은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홍성군 구항면, 은하면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모두 4기이다. 그 중에서 구항면 태봉리에 있는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 중 1개가 빠지고 3개만 남았는데, 약간 무너졌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위에 올려놓은 덮개돌은 길이 3.8m, 너비 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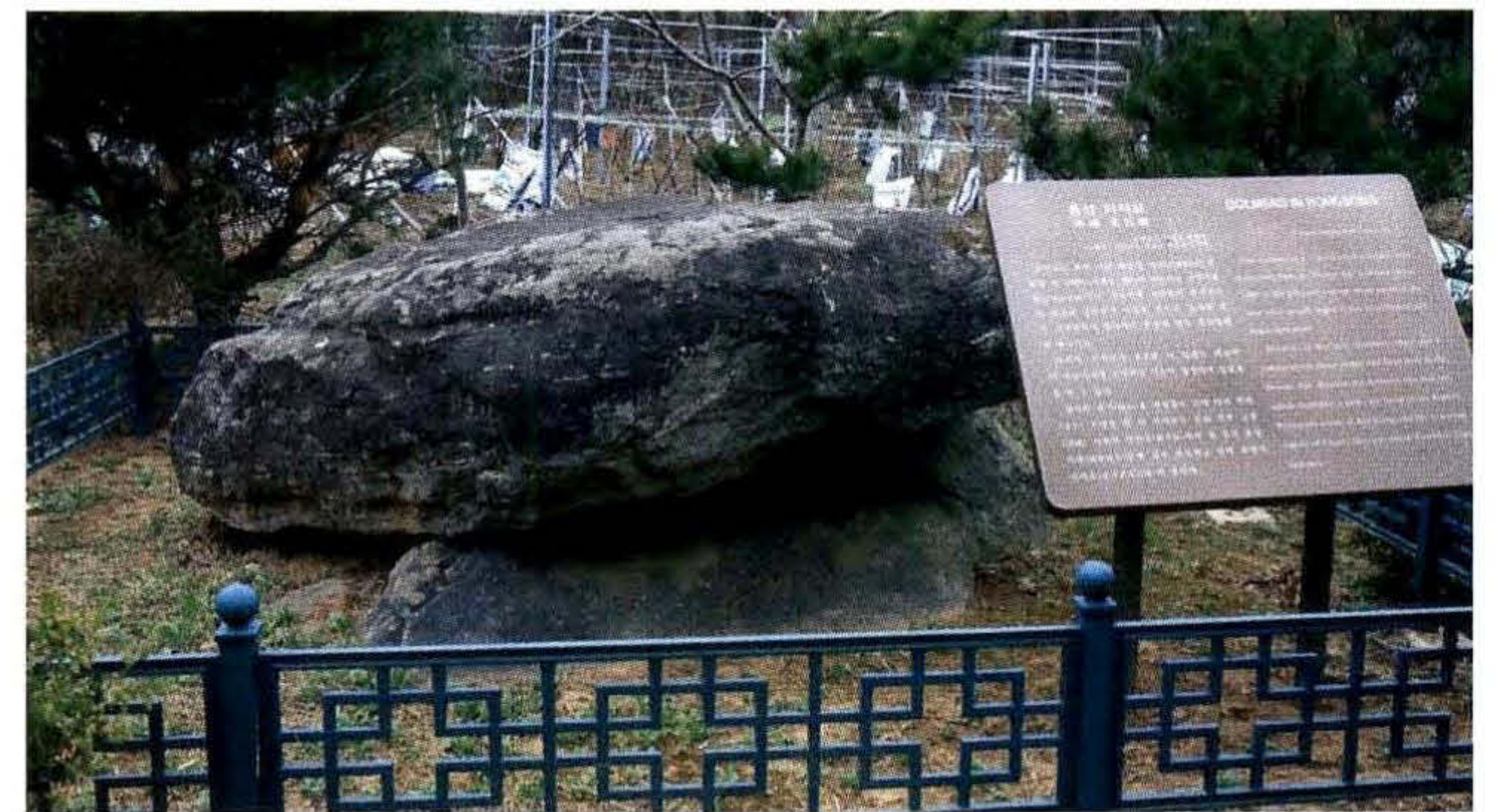
▲태봉리 지석묘



▲금국리 지석묘



▲학산리 지석묘



▲학산리 지석묘(교회 옆)



▲민족시비공원



▲만해문학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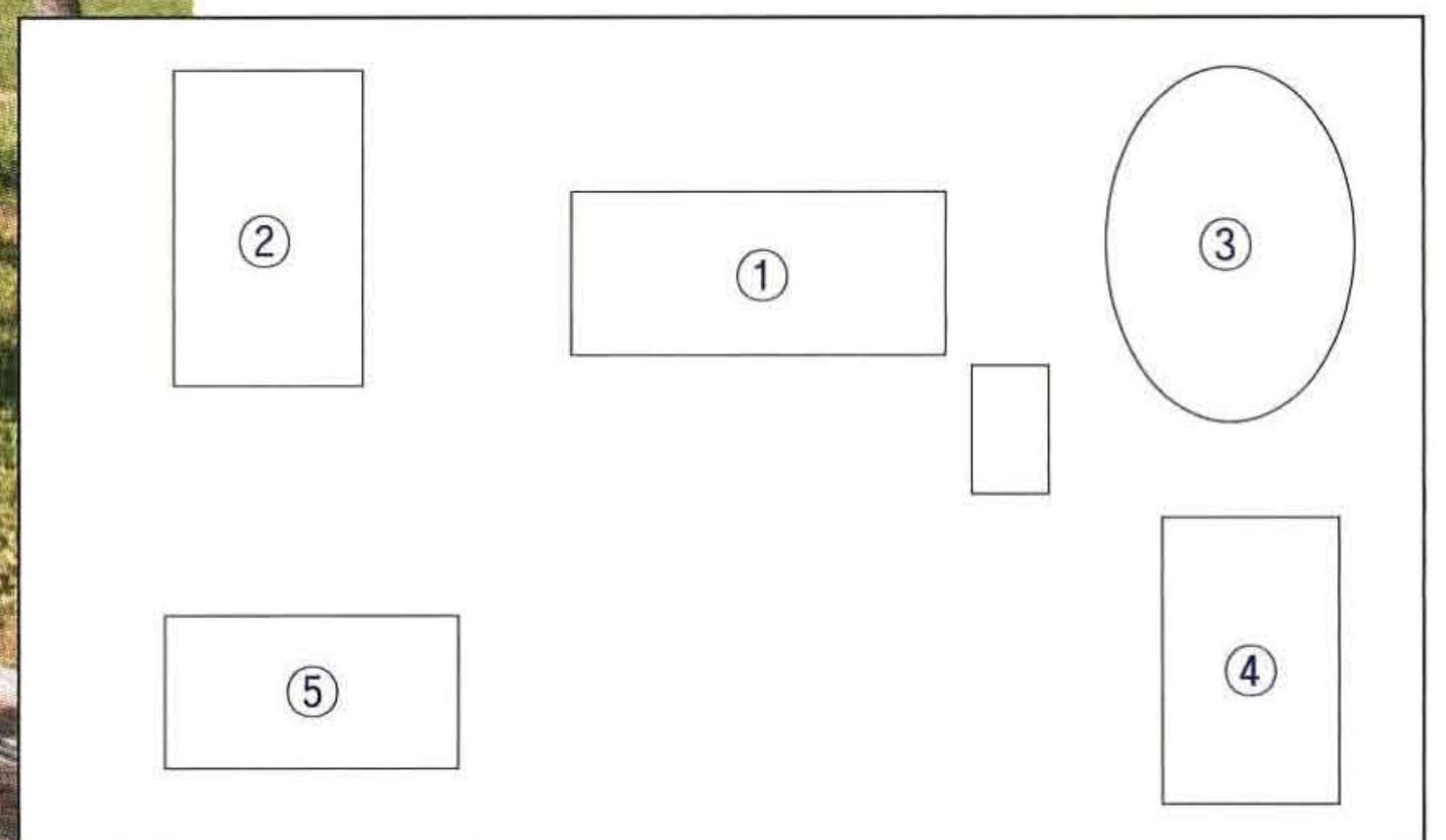
▲만해사(사당)



□한용운 선생 생가지(기념물 제75호)

결성면 만해로 318번길 83에 있으며 한용운(1879~1944)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한용운은 본관은 청주(淸州), 본명은 정옥(貞玉), 아명은 유천(裕天),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萬海, 叡海)이다.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신간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고, 『님의 침묵』, 『불교대전』 등을 남겼다. 1962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태어난 집은 낮은 야산을 등지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1992년에 복원하였다. 생가는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의 초가인데 양 옆으로 1칸을 달아내어 광과 헛간으로 사용하였다. 울타리는 싸리나무로 둘러싸고 있으며 바깥에 흙벽돌로 화장실을 만들었다.

▼생가지 배치도



- ① 생가
- ② 만해사(사당)
- ③ 민족시비공원
- ④ 만해문학체험관
- ⑤ 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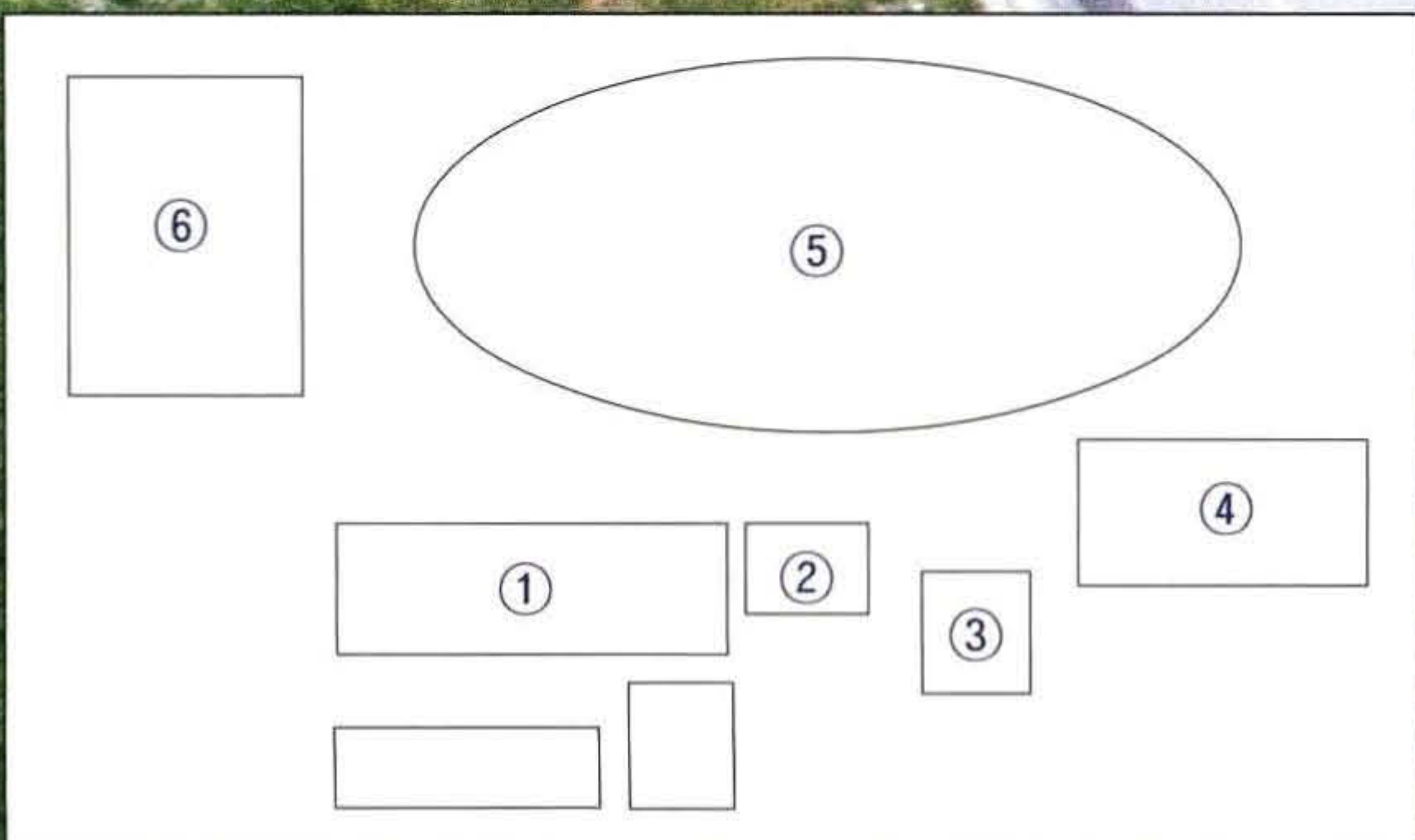
▲백야사(사당)



▲백야 기념관



▼생가지 배치도



- ① 생가
- ② 마굿간
- ③ 관리사
- ④ 백야기념관
- ⑤ 백야공원
- ⑥ 백야사(사당)



▲생가



▲백야공원

도지정(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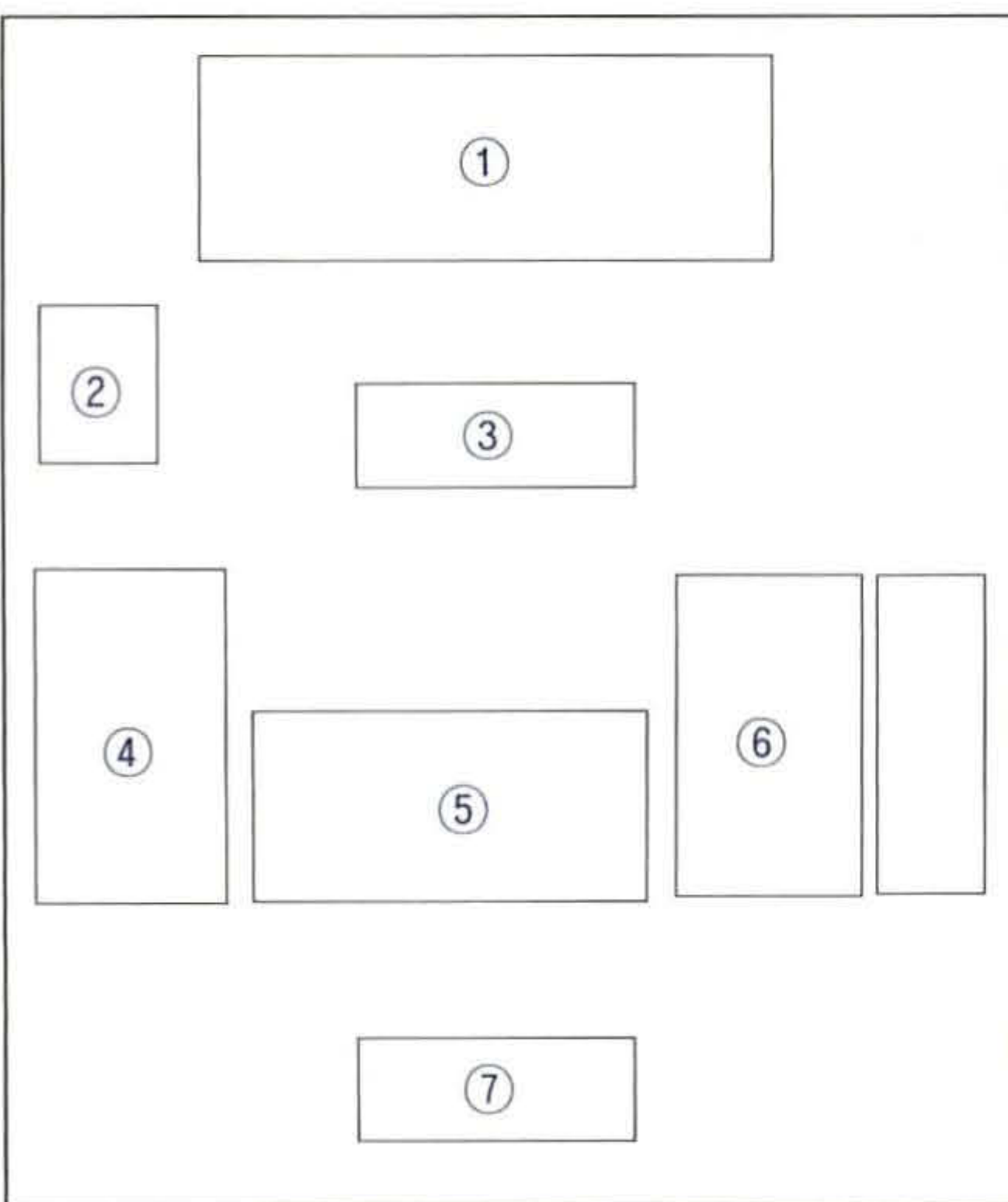
□ 김좌진 장군 생가지(기념물 제76호)
 갈산면 백야로 546번길 28(행산리 16-10)에 있다. 대한제국 후기의 독립운동가인 김좌진(1889~1930)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명여(明汝), 호는 백야(白冶), 아버지는 김형규(金衡奎)이다. 1905년 노비를 해방하고 서울로 올라와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07년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명학교(湖明學校)를 세우고, 가산을 정리해 학교 운영에 보탬다. 1916년 대한광복회에 가담해 항일투쟁을 하다가 1918년 일본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건너갔다. 1919년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1920년 10월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였는데 이것이 청산리전투이다. 1929년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주석에 취임하고, 만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교육과 민생에 주력하다가 1930년 1월 24일 공산당원 박상실에게 암살당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생가는 1992년 터만 남아 있던 곳에 안채, 문간채, 사랑채 등을 복원하였다. 안채는 앞면 8칸, 옆면 3칸의 기와집으로 서쪽을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2칸 부엌이 있고, 아랫방과 윗방이 각 한 칸씩 있으며, 통칸의 대청마루가 있다. 방 앞으로 텃마루가 있는데 맨 끝 방 주위에는 텃마루를 한 칸 높여 누각처럼 만들었다.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으며 밖에는 화장실과 마구간을 3칸으로 만들었다.

□ 결성향교(기념물 제134호)

결성면 흥남서로 707번길 21-8에 있다. 향교는 공자 등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결성향교는 1010년(현종1)에 세웠다고 전하지만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1623년(인조1)과 1674년(현종15), 1808년(순조8)에 수리하였고 1923년에 크게 보수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건물 배치는 외삼문을 거치면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는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 크기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외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제기고, 홍살문, 내삼문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건물 배치도



- | | |
|-------|-------|
| ① 대성전 | ⑤ 명륜당 |
| ② 제기고 | ⑥ 동재 |
| ③ 내삼문 | ⑦ 외삼문 |
| ④ 서재 | |



▲2008년 2월 모습



▲홍살문



도지정(기념물)



▲명륜당



▲대성전과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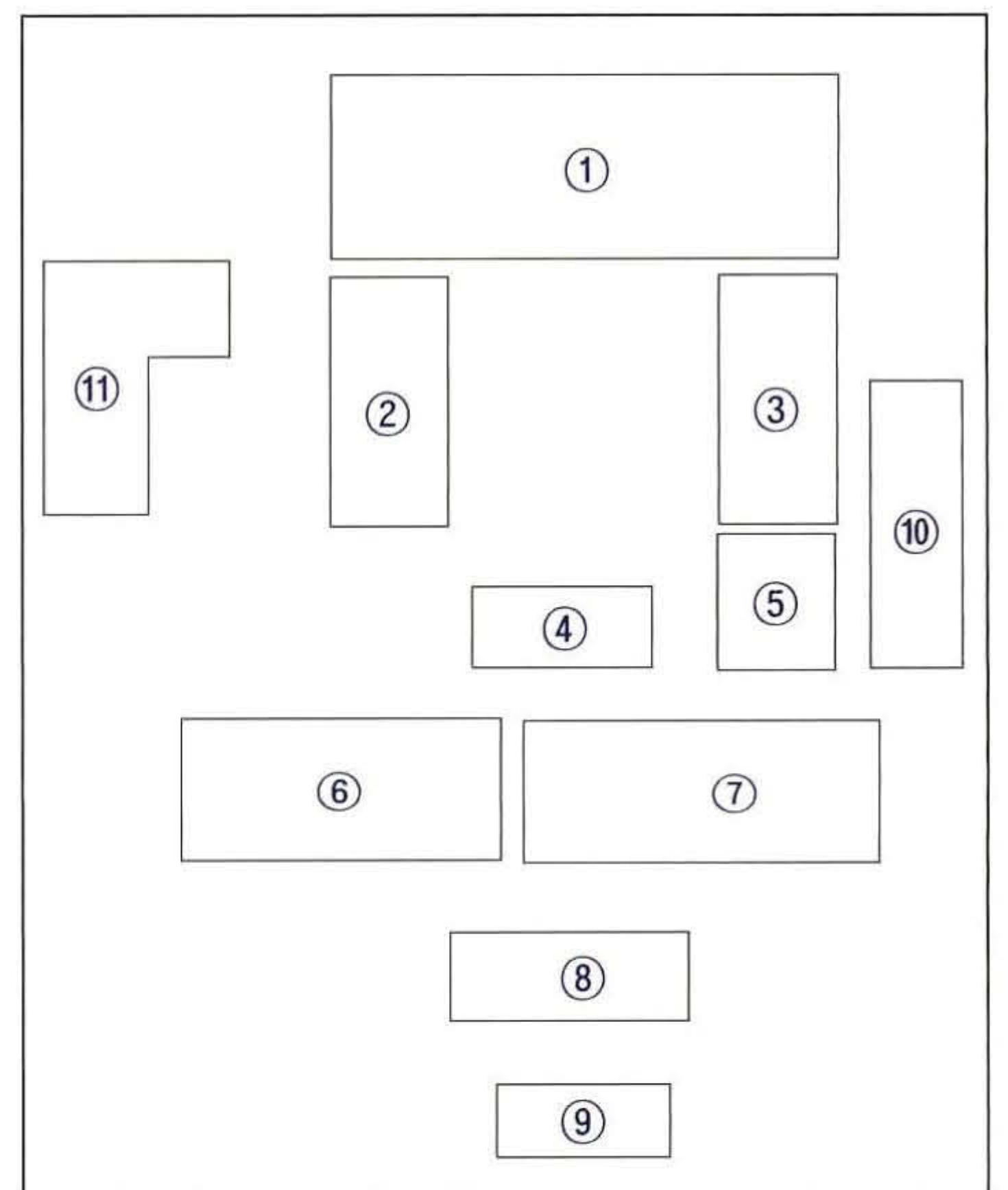


□ 홍주향교(기념물 제135호)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93에 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홍주향교는 고려 말에 세웠다고 전하지만 처음 지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408년(태종8)과 1418년(태종18)에 수리하였고 1924년에 크게 보수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건물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뒤쪽에 제사지내는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 크기이며,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 이외에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인 명륜당을 비롯하여 동무와 서무, 전사청, 제기고, 축문을 태우는 망료대, 불을 밝히는 청료대, 손을 씻는 관수대 등이 남아 있다.

도지정(기념물)

▼건물 배치도



- | | | |
|-------|-------|-------|
| ① 대성전 | ⑤ 제기고 | ⑨ 홍살문 |
| ② 서무 | ⑥ 명륜당 | ⑩ 관리사 |
| ③ 동무 | ⑦ 동재 | ⑪ 예절관 |
| ④ 내삼문 | ⑧ 외삼문 | |



▲예절관



□ 결성읍성(기념물 제165호)

결성면 흥남서로 738번길에 있다. 결성읍성은 1399년(정종1) 또는 1400년에 결성현의 통치 장소가 신금성에서 산성으로 옮겨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난 결성읍성과 관련된 기록은 1451년(문종1) 10월 29일에 "충청도 결성현에 성을 쌓았다."(『문종실록』)라는 것이 처음이다. 그 후 1454년(단종2)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는 4백 53보이며, 안에 우물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현재 크기는 성 주위가 약 1,007m이며, 성벽 높이는 안쪽이 약 2~3m, 바깥쪽이 약 3~6m이고, 성벽 아래 부분의 너비는 약 4.5m이다. 성을 고쳐 쌓으면서 각 구간마다 도내의 각 읍(邑)이 나누어 쌓은 것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아산 지역의 기 각역축(記刻役築)' 기록이 북쪽 성벽에 남아 있다. 읍성 안에는 17개의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헌, 형방청, 책실이 남아 있다.



(※노란점선:성곽의 대략적인 위치 표시선)



①석당산 동쪽 정상 아래쪽 성곽 모습



②석당산 정상부근 성곽 모습



③석당산 우측 아래쪽(결성초 위쪽) 성곽 모습



(※노란점선:성곽의 위치 표시선)



◀신금성 안내 표석

□ 홍성신금성(기념물 제149호)

결성면 만해로 14번길에 있다. 신금성은 해발 40~60m의 평지에 가까운 낮은 구릉에 쌓은 성으로, 안쪽의 내성과 바깥쪽의 외성으로 구분되는 2중성이다. 전체 성벽의 길이는 645m, 높이는 2~3m이다. 성벽은 북·서·남쪽이 가장 잘 남아있는데, 북쪽과 남쪽에는 문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안에서는 토기류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평탄한 구릉에 쌓여져 평지성에 가까운 이 성은 방어용보다는 지역 집단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지의 일종으로 읍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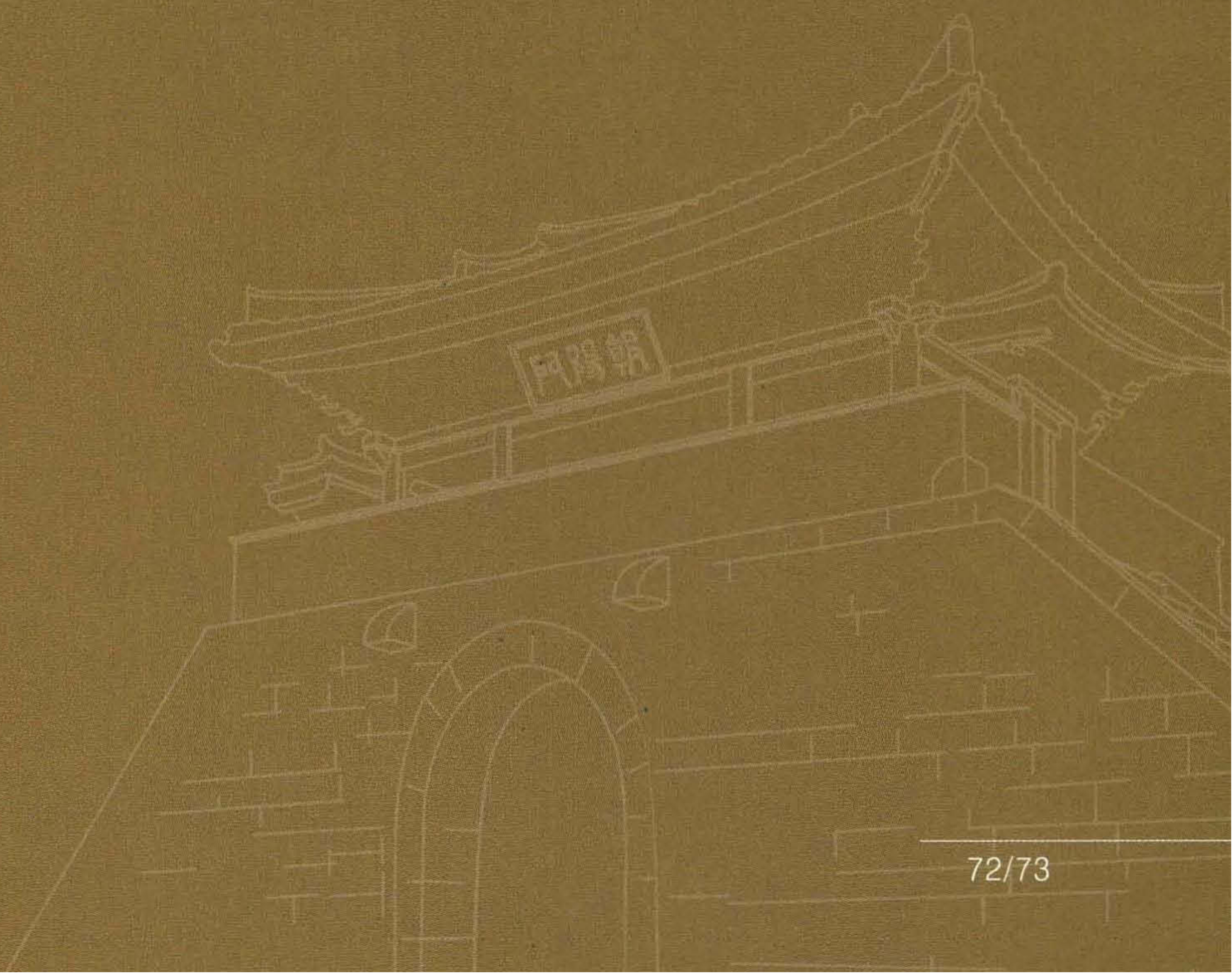


□ 오관리 느티나무(기념물 제171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읍성 안 홍주아문과 안회당 사이에 있다. 이 느티나무는 고을에 위험한 기운이 생길 것 같으면 밤을 새워 울었으며 그때마다 서둘러 예방을 하였다고 한다. 역대 목민관들이 홍주에 부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려놓고 백성들이 탈이나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둘 중에 큰 나무는 전체 높이가 17.0m이고, 가슴 높이의 둘레는 6.6m(직경 2.1m)이다.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을 가리키는 수관(樹冠) 폭은 동쪽 9.8m, 서쪽 8.3m, 남쪽 8.4m, 북쪽 11.8m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높이가 11.5m이고, 가슴 높이의 둘레는 5.22m(직경 1.66m)이다.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을 가리키는 수관(樹冠) 폭은 동쪽 4.7m, 서쪽 9.5m, 남쪽 7.1m, 북쪽 11.6m이다.

도 지정 민속자료

■ 민속자료 : 용대기, 김우열 가옥, 전용일 가옥, 전세진유품







▲주교마을 용대기(3.7m×1.9m)



▲주교 두레풍물마을 및 마을 표석



▲구수동마을 용대기(1.9m×2.9m)



▲구수동 두레풍물마을 및 마을 표석

□ 용대기(민속문화재 제4호)

용대기(龍大旗)는 결성면 형산리에 속한 원형산·구수동·주교에 각각 용대기, 즉 농기가 있었으나 가장 오래된 마을의 농기는 한국전쟁때 분실되어 현재 구수동과 주교에만 남아 있다. 주교마을 용대기는 깃폭에 ‘光緒十七年壬辰七月日’(광서십칠년임진칠월일)’라고 써어 있어 1891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구수동마을 용대기는 ‘갑신(甲申)’이라고만 써어 있는데 깃폭의 낡은 정도로 보아 182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래된 용대기가 잘 보존되어온 것처럼 형산리에는 풍장과 농기가 중심이 된 행사도 많아 정월대보름 당산제, 논맬 때 두레풍장, 백중무렵의 호미걸이, 풍장 등의 마을 행사 때에는 의례 농기가 앞세워지고 기에 잔을 올리는 절차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2월 초하루는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여 마을의 큰 마당에 용대기를 세워 놓고 술을 잔에 따라 깃대에 붓고 풍물을 치며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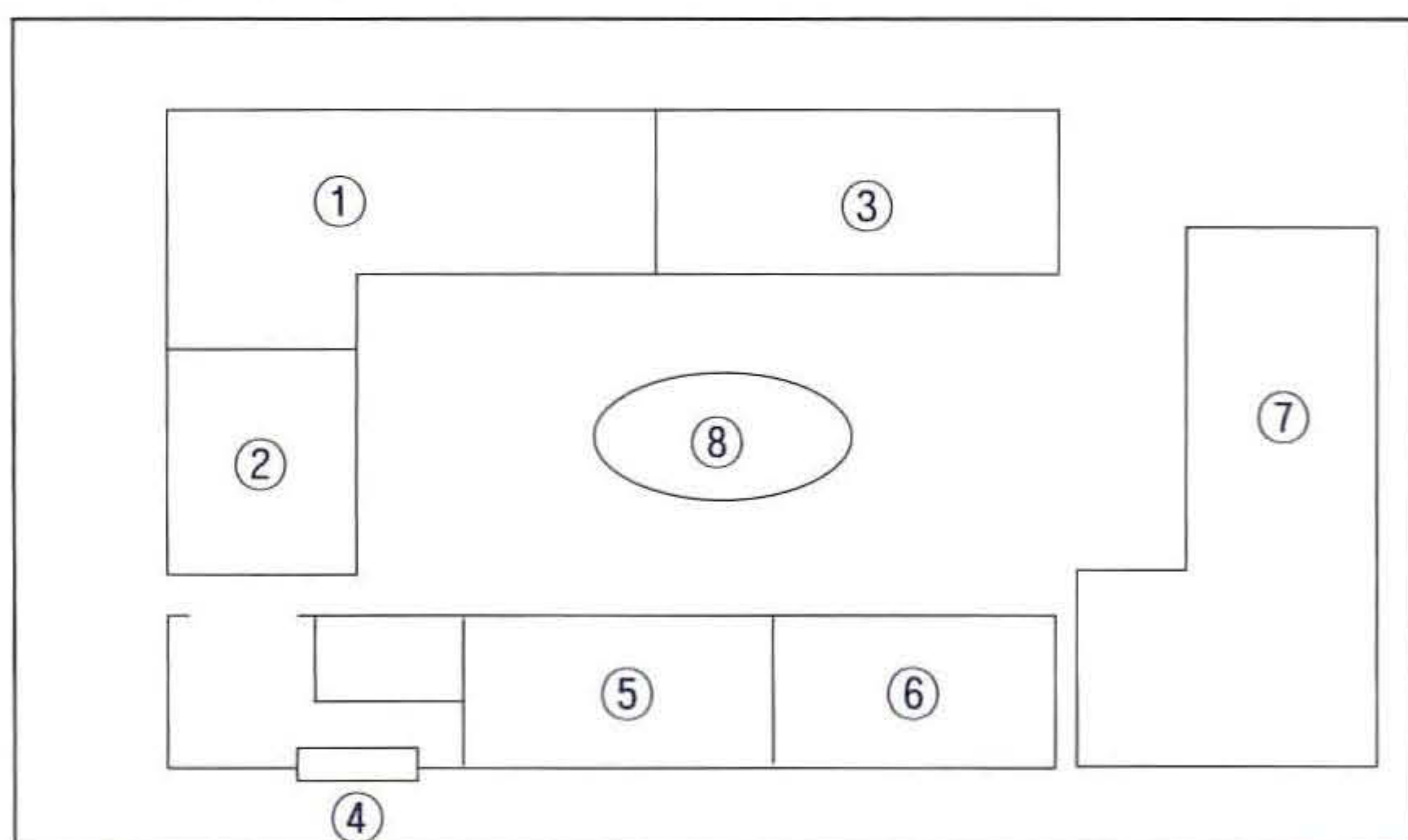
이처럼 마을에서 농기가 오래 보존된 데에는 마을공동체 놀이가 잦았던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형산리는 이 용대기의 의의를 살려 1981년 용대기놀이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여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리고 1982년 민속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해 용대기 보존회가 결성되었다.



□ 김우열가옥(민속문화재 제10호)

갈산면 갈산로 71에 있다. 안채, 사랑채, 헛간채를 가지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가옥으로, 전체적으로 트인 '口'자형 배치를 보인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가운데의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엌과 안방, 오른쪽에 건넌방이 배치된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평면 구성이다. 안채의 남쪽에 'ㅡ'자형으로 자리 잡은 사랑채는 왼쪽에 대문과 문간방을 두고 오른쪽에 대청과 사랑방을 두어 행랑채를 겸하고 있다.

▼가옥 배치도



- ① 안방
- ② 부엌
- ③ 건넌방
- ④ 대문
- ⑤ ⑥ 사랑채방
- ⑦ 행랑채
- ⑧ 정원



▲보수 전 옛 모습



□ 전용일가옥(민속문화재 제11호)

갈산면 상촌로 9번길에 있다. 처음 세웠을 때 99칸 규모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을 갖춘 큰 집이었으나 현재는 28칸 정도의 안채만 남아 있다. 여러 가지 건축 기법으로 보아 19세기 중엽에 지은 건물로 추정한다. 대청과 온돌방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들이 이어져 있고 앞면에 중문채가 있으며, 안채 왼쪽에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 앞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주변 건물에는 팔각돌 기둥을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돌기둥만 갈산중학교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튼 '口'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특색과 조선 후기의 세련된 솜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집이다.



▲보수 전 옛 모습

▼가옥 배치도



- ① 안방
- ② 건넌방
- ③ 대청
- ④ 사랑방
- ⑤ 부엌
- ⑥⑪ 헛간
- ⑦⑧ 광채
- ⑨ 부엌
- ⑩ 찬방
- ⑫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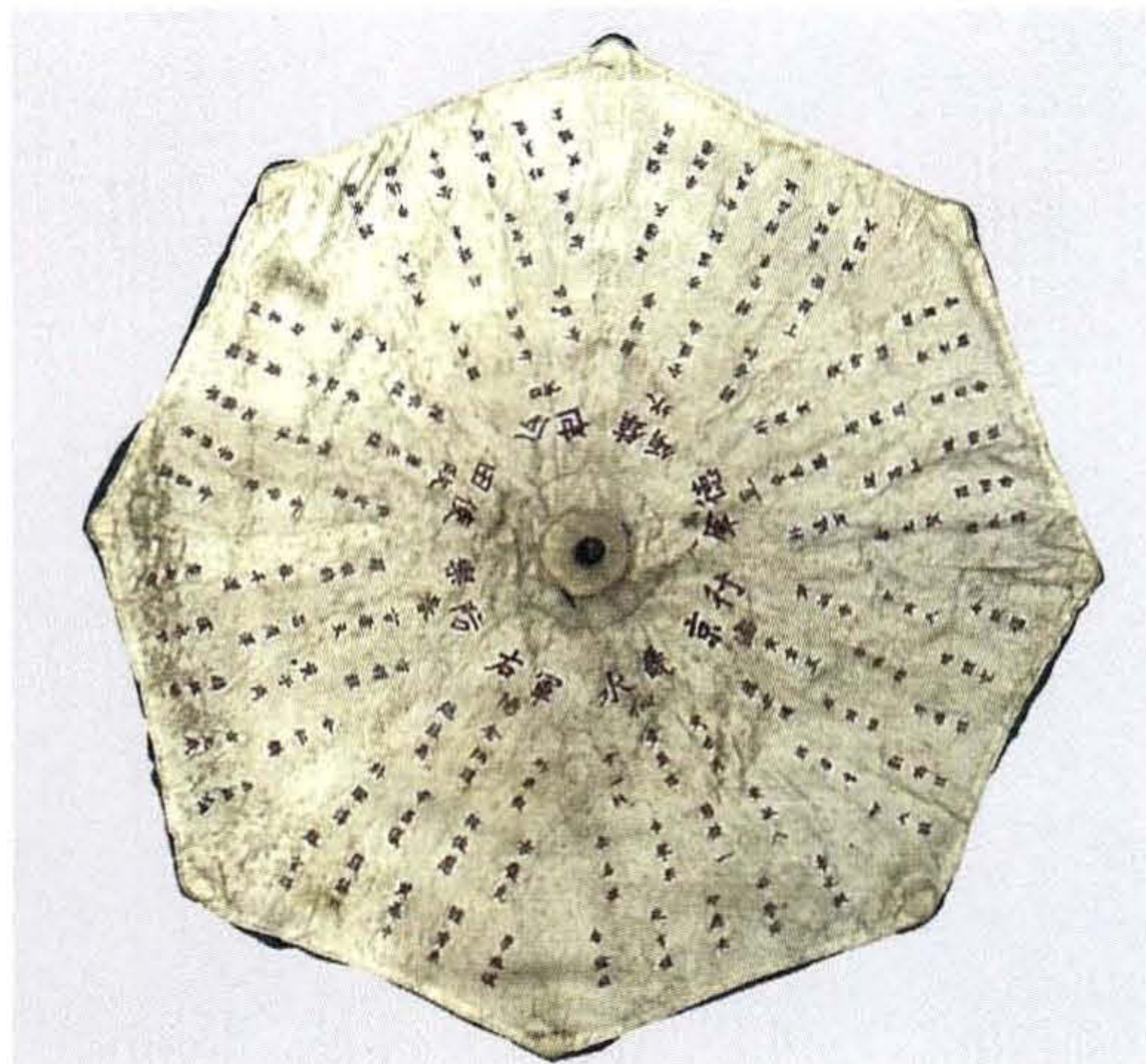
▲용머리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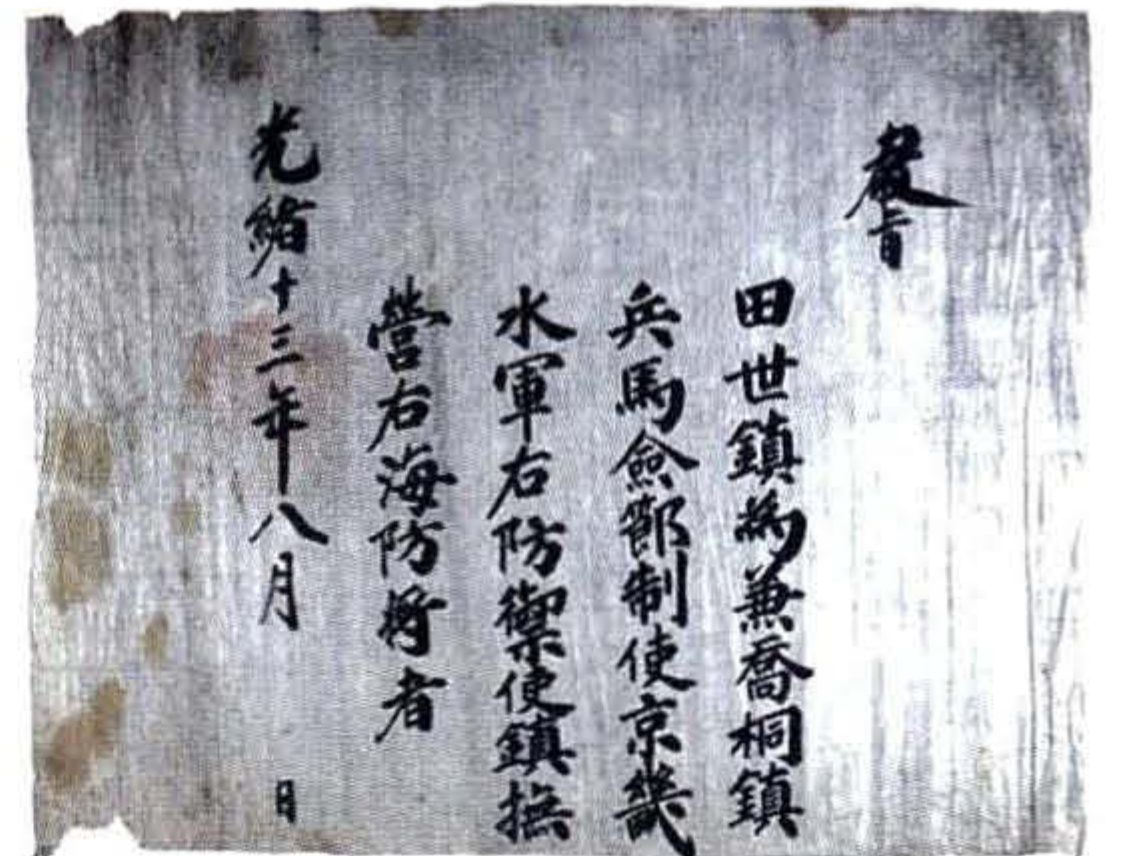
▲사명기(司命旗)



▲사명기 보관함



▲송덕산



▲전세진 교지(1887년/5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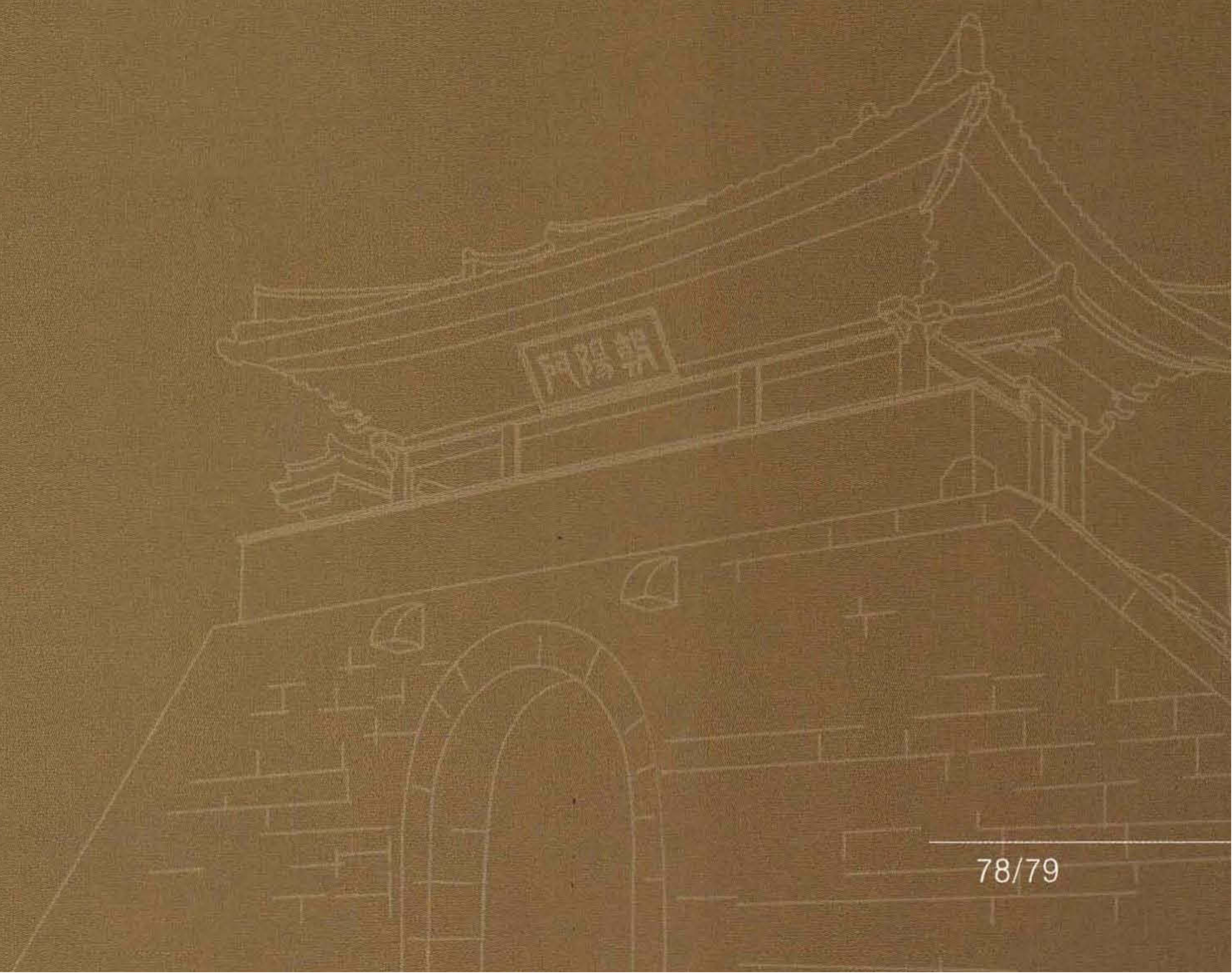
▲전세진 교지(1887년/65*58)

□ 전세진 유품(민속자료 제33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있다. 전세진 유품은 총 19점으로 햇빛가리개인 송덕산(頌德傘), 사명기(司命旗), 군대에서 깃발을 걸때 걸이대로 사용했던 용머리 가자(架子), 함계, 홍패 등 고문서 15점 등이 있다. 송덕산(頌德傘)은 "예전에 고을 백성들이 비단을 양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장자리에 여러 비단 조각을 늘어뜨려 지역 세력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인의 이름을 수놓아 우산 형태로 만들어 수를 놓았다고 하여 수산(繡傘)이라고 하거나, 수를 놓은 고을 사람들의 숫자를 따서 '천인산(千人傘)' 혹은 '만인산(萬人傘)'이라고 부르거나, 산(傘)을 받는 사람의 공덕을 우러른다고 하여 송덕산이라고도 불렀다. 전세진 관련 송덕산은 전세진이 교동부사 겸 진병마침절제사로 강화부에 봉직했던 1887년부터 1889년까지 2년여 간의 관직생활을 마칠 무렵에 지역민 100여 명이 뜻을 모아 덕을 기리는 뜻으로 햇빛가리개에 이름을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사명기는 경기수군 방어사의 글씨가 선명하고, 번(幡)의 형태를 띤 사명기를 거치했던 장식인 용머리 가자(架子)가 남아 있으며 이들 유물을 보관한 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도 지정 문화재자료

- 광경사지 3층석탑, 대교리 석불 입상, 광경사지 석불 좌상, 용봉사지 석조 대원군 척화비, 성삼문 선생 유허비, 홍가신 청난비, 홍주성 수성비, 김좌진 장군 비, 용봉사 부도, 김복한 묘, 결성동헌, 북한 효자 비, 임득의 장군 묘, 연산서씨 석보, 장곡산성, 구절암 마애불, 정충사, 고산사 3층석탑





□ 광경사지 3층석탑(문화재자료 제159호)

홍성읍 도청대로 29-21 홍성여자중학교 교정에 있다. 광경사의 옛 터로 알려진 곳에 '오관리 당간지주(보물 제538호)'와 함께 남아 있었던 탑이다. 현재 남아있는 모습으로 볼 때 탑의 받침부분에 해당하는 1층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 몸체를 올린 모습이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마다 기둥을 본 떠 새겼다. 탑의 몸체인 탑신의 각 층은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쌓아 올렸는데, 1층 몸돌이 큰 것에 비해 2·3층 몸돌의 높이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4단씩이며, 네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고 고려시대 작품으로 짐작된다.



□ 대교리 석불 입상(문화재자료 제160호)

홍성읍 의사로 63번길에 있는 불상이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민머리이고, 얼굴은 눈·코·입을 얇게 돌을새김 하였다. 주먹코와 두툼한 입술, 긴 눈 등이 매우 익살스러운 표정을 만들고 있다. 신체의 윤곽은 선으로 표현했으며, 앞면에만 조각을 하였다. 양 어깨를 감싼 옷을 걸치고 있으며, 가슴에서 발까지 U자형의 옷주름을 새겼다. 오른손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원인으로 다리 밑에 붙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고, 왼손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으로 가슴에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고 있다. 대체로 조각 수법이 거칠고 비례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듯하다.



□ 광경사지 석불좌상(문화재자료 제161호)

홍성읍 내법리 용주사 안에 있는 석불 좌상이다. 원래는 홍성읍 대교리에 있었던 것을 1975년에 이곳으로 옮겨 왔다. 화강암으로 만든 불상은 머리는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민머리에 그 위로 상투처럼 솟아있는 지혜의 살인 육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육계는 얼굴의 크기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타원형의 얼굴에서는 긴 눈과 작은 입을 표현했지만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는 남아있다. 목에는 3개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손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다리에 놓고 오른손은 엮어 무릎에 놓으며 아래를 가리키는데 석가모니가 부처의 경지에 오른 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항마촉지인이다. 옷주름은 평행의 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의 수법과 비슷하다. 불상이 앉아있는 받침대인 대좌(臺座)에는 연꽃잎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실미가 흐르는 얼굴 표정, 간략한 연꽃무늬 대좌 등의 수법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에 만든 작품으로 추정된다.



▲마애(碼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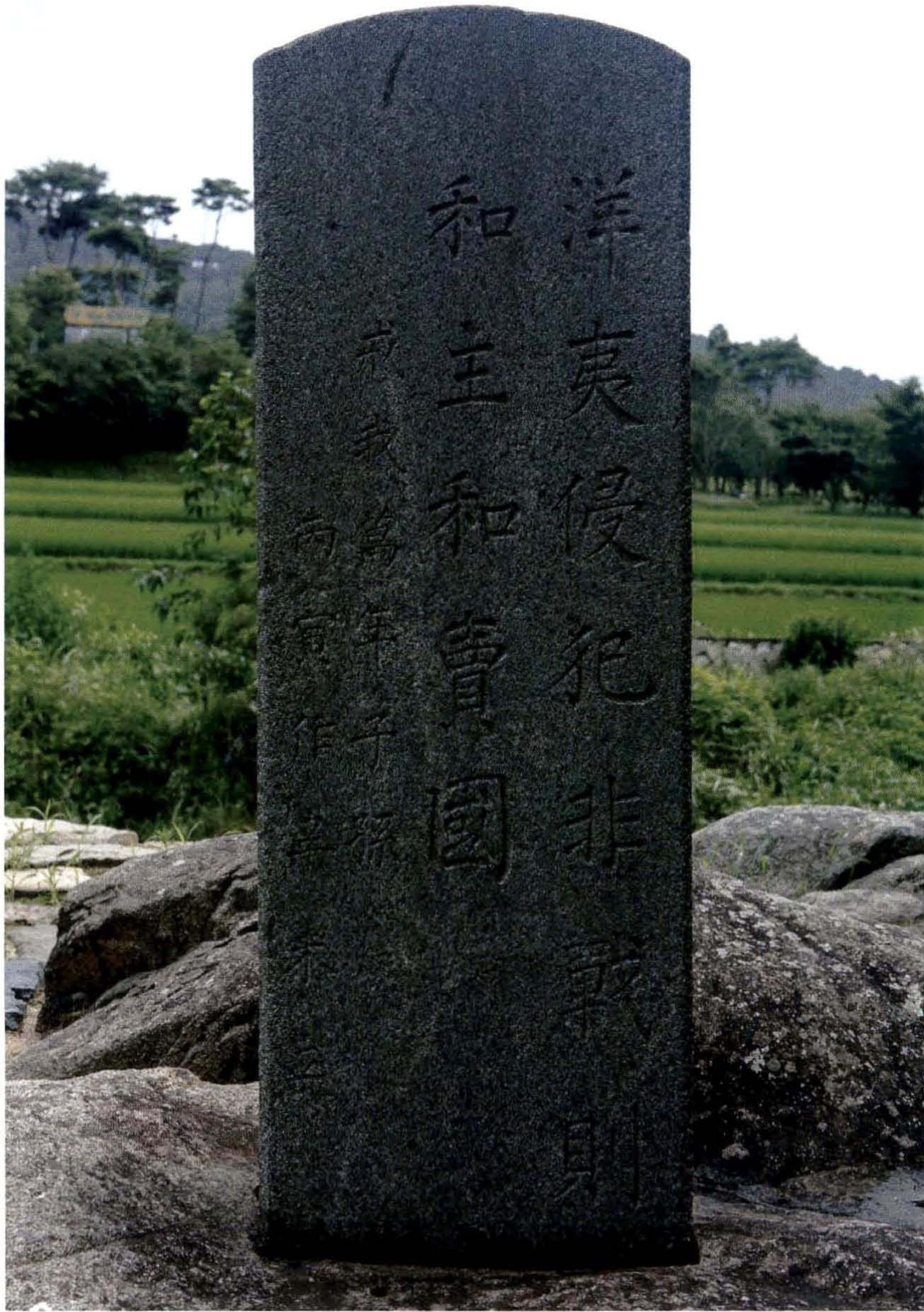
▲석구(石臼)



▲석조(石槽)

□ 용봉사지 석조(문화재자료 제162호)

홍북읍 용봉산 1길 109 용봉사 입구에 있다. 용봉사의 옛 터에 남아 있었던 돌로 만든 물건으로 석조(石槽), 마애(碼磴), 석구(石臼)이며 자연석을 깎아 만들었다. 석조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던 큰 통으로, 안이 파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석구는 돌의 속을 파내어 그 홈에 곡식을 넣고 찼던 돌절구이다. 마애는 곡식을 가는데 쓰이는 맷돌로 그 크기가 거대하여 옛 용봉사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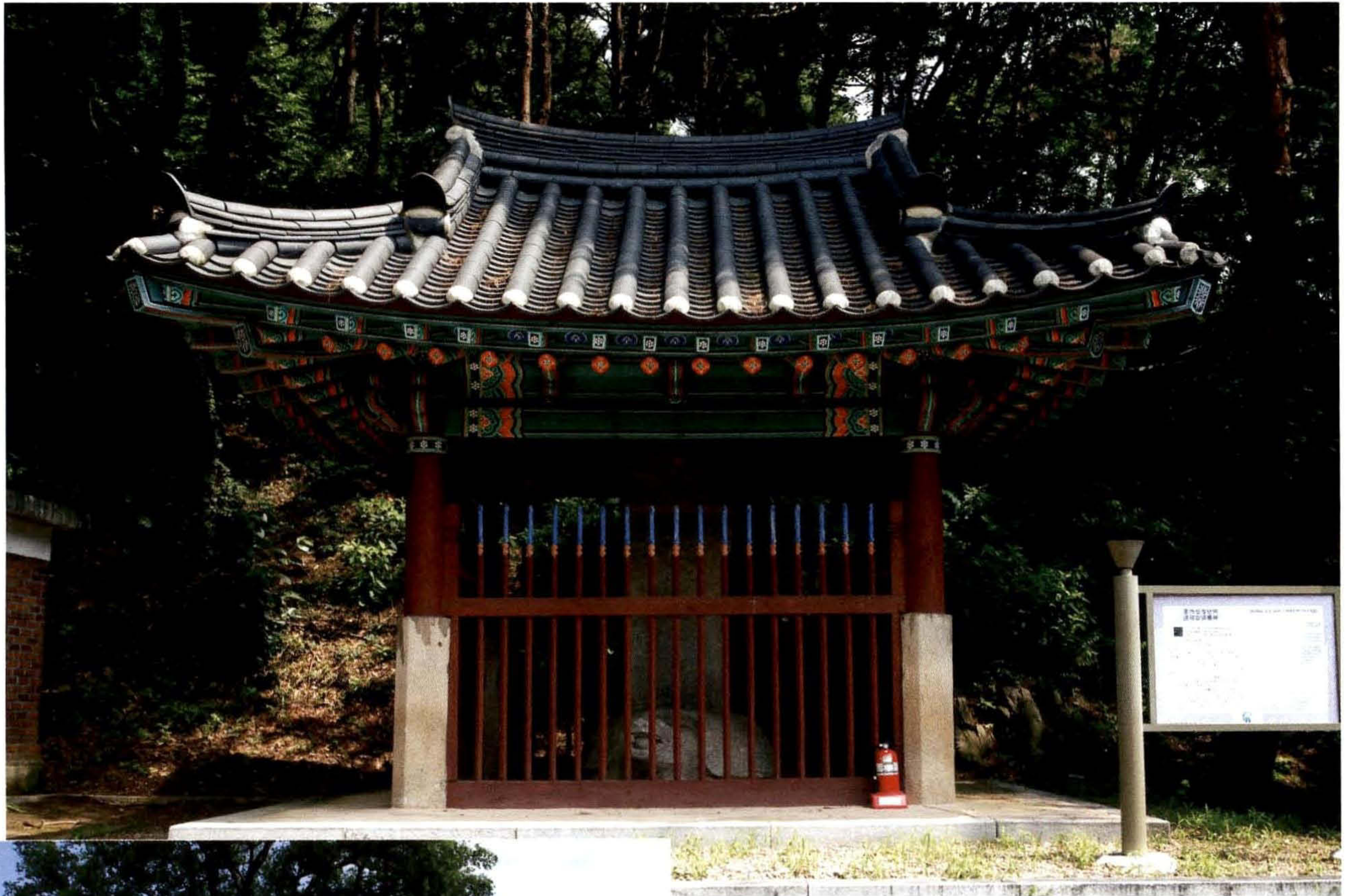
□ 대원군척화비(문화재자료 제163호)

구항면 오봉리 산 141에 있다. 척화비(斥和碑)는 외국과의 통상을 반대하던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치른 후에 전국에 세운 비석이다.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백성에게 심어주고자 서울 및 전국의 주요 도로변에 세웠다. 흥성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비는 넓적한 자연암석 위에 비의 몸체를 꽂아놓은 모습이다. 비문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을 할 수 밖에 없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라는 강한 어투의 경고 문구를 적어 놓았다. 1871년(고종8)에 전국에 일제히 세운 것으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면서 일제에 의해 대부분 철거되거나 훼손되었다. 이 비는 충남 지방에 남아 있는 3개의 척화비 중 하나이다.



□ 성삼문 선생 유허비(문화재자료 제1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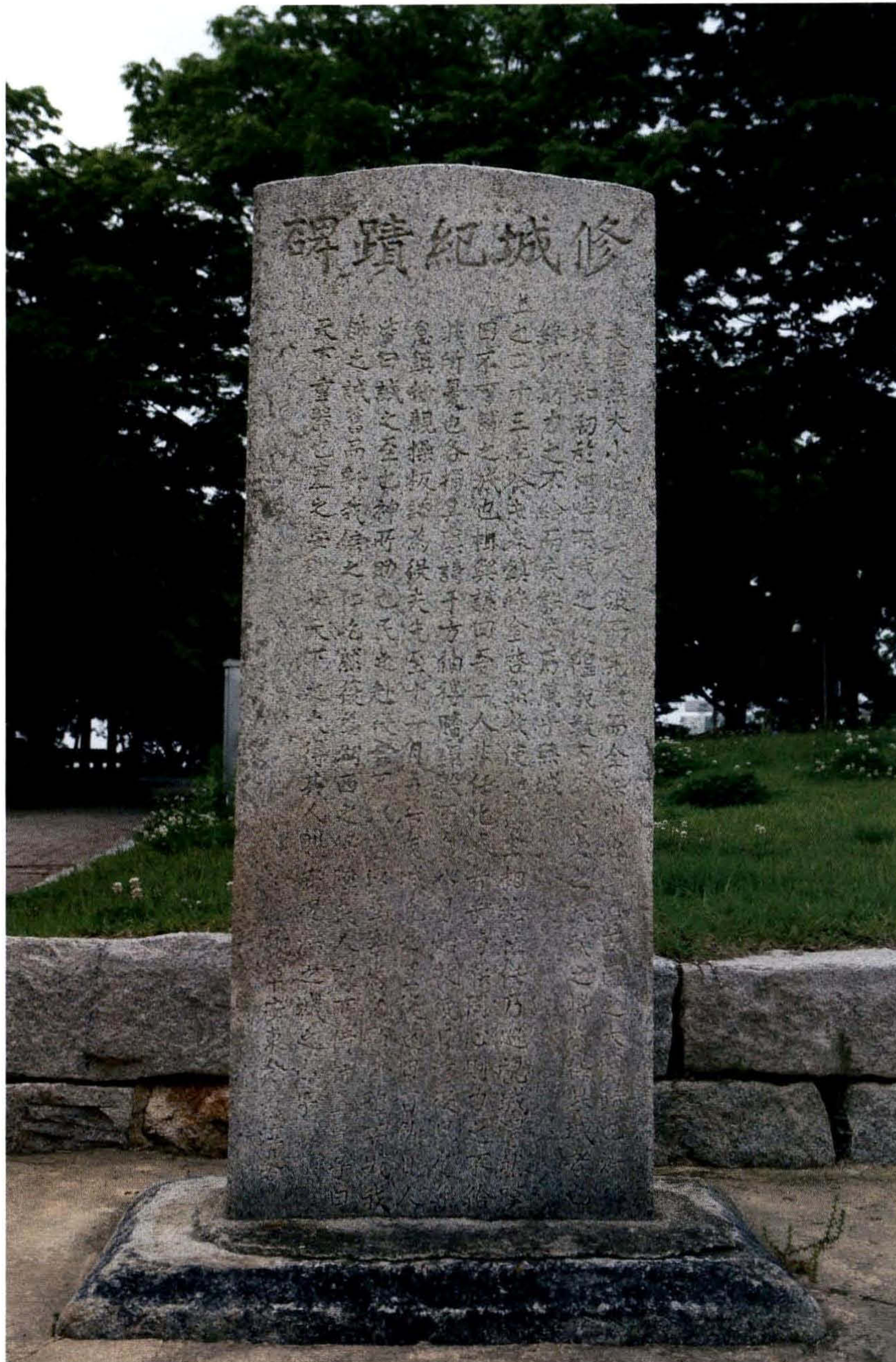
유허비는 옛 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후세에 전하고 이를 계기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 두는 비석이다. 이 비는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면서 사육신의 한사람인 성삼문(1418~1456) 선생의 공적을 적고 있다. 선생은 1438년(세종20)에 식년 문과에 정과로 급제했으며, 1447년(세종29)에 문과 중시에 장원으로 다시 급제하였다. 집현전학사로 뽑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직집현전(直集賢殿)으로 승진하였다. 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할 때까지 크게 공헌하였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자 박팽년, 유응부, 하위지, 이개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절의를 지닌 대표적인 선비로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많은 이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다. 1668년(현종9) 선생이 태어난 이곳에 비를 세웠으며, 현재는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송시열이 지은 글에, 김진상의 글씨로 하여 비문을 새겼다.



◀이전 전(대교리 55-6)의 모습(2007년 12월 이전)

□ 홍가신 청난비(문화재자료 제165호)

홍성읍 홍덕서로 185-21에 있다. 홍가신(1541~1615)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후, 그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자 세워놓은 비이다. 이몽학의 난은 1596년(선조29) 임진왜란 중에 계속되는 흉년으로 민심이 동요된 틈을 타서 왕의 종친이면서도 서자인 이몽학이 주동이 되어 충청도에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몽학은 1596년 7월 6일 600여 명의 무리와 함께 홍산현을 습격한 후 임천군~정산현~청양현을 거쳐 9일에는 대홍군을 함락한 후 홍주목으로 쳐들어 왔다. 당시 홍가신은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박명현·임득의 등과 함께 이를 토벌하고 난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웠다. 이에 1604년 1등의 홍가신에게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 殲議淸難功臣)을, 2등의 박명현·최호(崔湖)에게 분충출기적의청난공신(奮忠出氣殲義淸難功臣)을, 3등의 신경행·임득의에게 분충출기청난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을 내렸다. 비는 1641년(인조19) 홍성읍 대교리 55-6에 세웠는데, 2007년 12월 홍성~예산 사이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은 홍성읍 홍덕서로 185-21 산혜암 입구로 옮겼다.



□ 홍주성 수성비(문화재자료 제166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읍성 안 홍주성 역사공원에 있다. 홍주성 수성비(修城碑)는 본래 이름이 '수성기적비(修城紀蹟碑)'이다. 1823년(순조23) 계미년 봄에 진장 김계묵과 목사 이헌규가 홍주읍성을 다시 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비의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창고를 열고 관찰사에게 청하여 수백금을 얻은 후,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이르러 공사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목사는 날마다 역사를 감독하기를 이르나 밤이나 낮이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장은 친히 판과 삼을 잡고서 역부의 앞에 나아갔다. 공사 기간이 100여일 이지만 백성들이 모두 괴롭다 여기지 않고 즐겁게 생각하였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홍주읍성의 보수 과정에 힘을 기울였음을 적고 있다.



□ 김좌진 장군 비(문화재자료 제167호)

갈산면 행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 공원에 있다.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김좌진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본래 이 비는 1949년 대한청년단 홍성군단의 성금으로 홍성읍 오관리 홍주읍성 안에 세웠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김좌진(1889~1930) 장군은 1905년 노비를 해방하고 서울로 올라와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07년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명학교(湖明學校)를 세우고, 가산을 정리해 학교 운영에 보탬다. 1916년 대한광복회에 가담해 항일투쟁을 하다가 1918년 일본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건너갔다. 1919년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겼다. 이것이 청산리전투이다. 1929년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주석에 취임하고, 만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교육과 민생에 주력하다가 1930년 1월 24일 공산당원 박상실에게 암살당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 용봉사 부도(문화재자료 제168호)

홍북읍 용봉산 1길 109 용봉사 입구에 있다. 옛 용봉사 터에 있었던 사리탑을 1910년경에 이곳으로 옮겨 세웠는데 아직까지 사리의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용봉사 부도는 바닥돌이 없어진 채, 받침대인 기단(基壇)과 사리를 모신 탑신(塔身)만이 남아 있다. 기단은 심하게 닳아 조각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둥근 공을 살짝 누른 듯한 모양인 탑신의 몸돌은 특별한 꾸밈을 하지 않았다. 지붕돌은 6모지붕으로 꼭대기에 있었을 머리 장식은 모두 남아 있지 않다.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으며, 제작된 시기도 알기 어렵다.



▲ 추양사(사당)



▲ 초상화



□ 김복한 묘(문화재자료 제169호)

서부면 상호길 213번길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김복한(1860~1924)은 본관이 안동(安東), 자는 원오(元五), 호는 지산(志山)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지내면서 1894년 승정원 승지에 올랐다. 그러나 그 해 6월 갑오개혁으로 일본의 간섭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듬해 8월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이설·이근주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홍주목사 이승우의 배반으로 체포되었다. 고종의 특사로 석방된 후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가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역신들을 참수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감옥에 갇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영남의 광종석과 함께 호서 유림을 대표해 전국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였다. 뒤에 발각되어 일본경찰에 모두 체포되었다. 이후 김복한은 이들 중 가장 중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중병으로 9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공주감옥에서 풀려난 1921년 홍성 서부면 이호리에 인지재(仁智齋, 사당)를 세워 후진 양성에 힘썼다. 김복한은 “왜적이 망하거든 나의 영혼 앞에 왜가 망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1924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결성아문



▲망일헌(동헌)과 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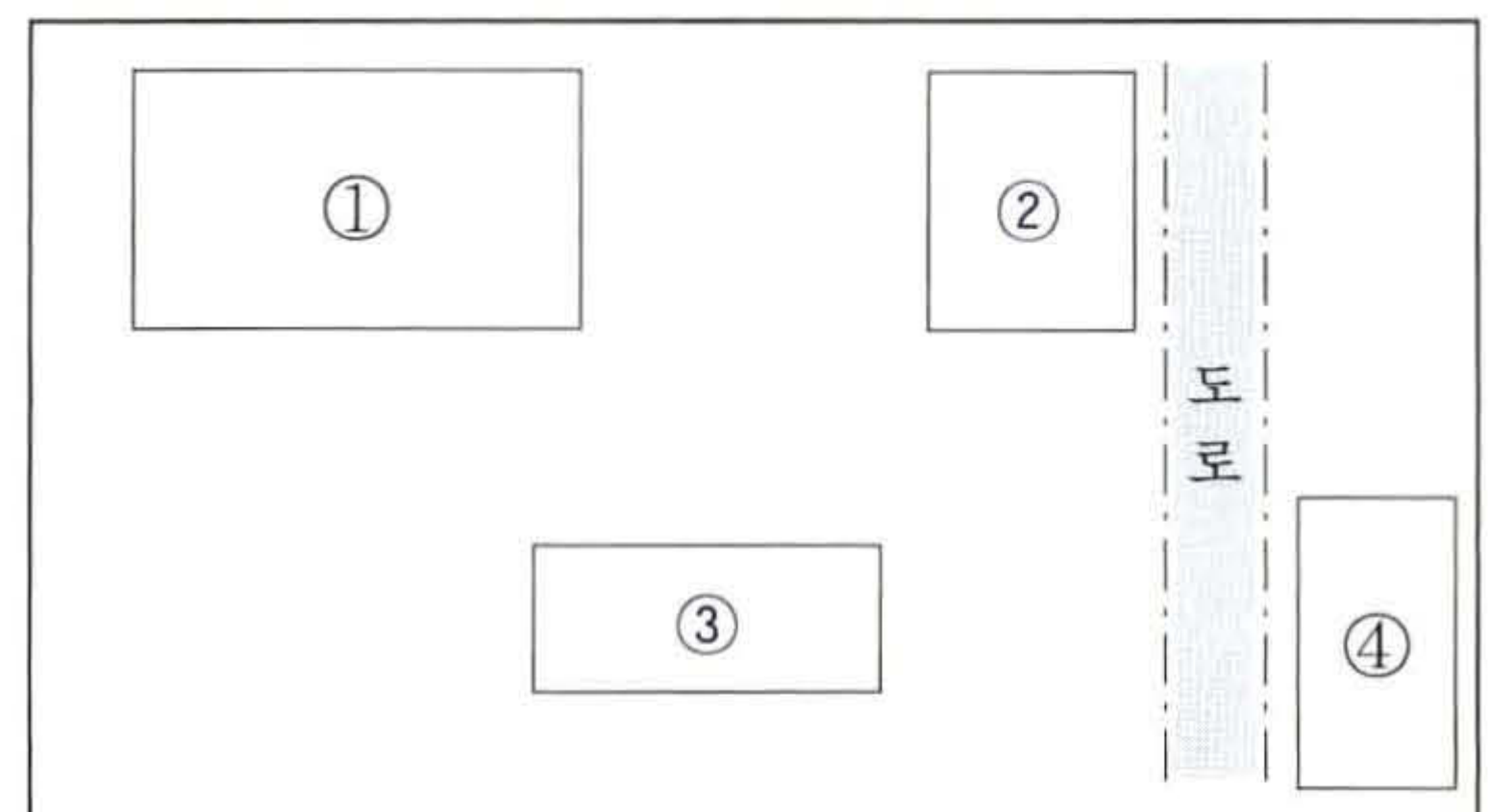
□ 결성동헌(문화재자료 제306호)

결성면 흥남서로 738번길에 있다. 조선시대 결성현의 관리들이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다. 현재 결성동헌에 남아있는 것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동헌, 치안업무를 처리하던 형장청, 책과 문서를 보관하면서 관리의 자제가 지내던 책실이 있다. 결성현의 통치 장소는 동헌은 고려 말까지 결성면 금곡리 신금성에 있다가 1399년(정종1) 또는 1400년에 석당산성(石堂山城)으로 옮겼다. 1451년(문종1)에 결성읍성을 완성한 후 1665년(현종6) 현재의 위치인 읍내리에 다시 지었고, 이후 여러 차례 고쳐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헌은 앞면 5칸, 옆면 3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형장청은 'ㄱ'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책실은 앞면 2칸, 옆면 1칸 반 크기로, 지붕은 앞에서 볼 때 사다리꼴인 우진각 지붕이다.

▼건물 배치도



▲형장청



①망일헌 ②책실 ③아문 ④형장청



▲북한의 효심이 서려있는 효자샘(모쟁이 샘)



□ 북한 효자 비(문화재자료 제339호)

금마면 신곡1길 63-15에 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북한의 효행을 기리는 비(碑)이다. 북한은 본관이 면천이며, 자는 의숙이고, 호는 구암이다.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19세손이며 고려 말 충신 복위룡의 아들이다. 1350년(고려 충정왕2) 홍주 여수동에서 태어나 77세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유교 경전 연구에 밝았는데 세종 때 호조 좌랑과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왕이 북한의 효성을 알고 가마를 내려 부모를 한양으로 모시게 되었던 일도 있었지만, 부친이 죽자 예의를 갖추어 편안하게 장례를 치렀고, 그 후 3년간 무덤을 지키는 시묘살이를 하였다. 1453년(단종1)에 그의 효행을 담은 효자첩이 중국 대륙에까지 퍼져 효자로 칭찬을 받았고, 1458년(세조4)에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긴 그의 효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정려를 내렸다. 정려 안에는 효자비와 효행 내용을 적은 현판이 있다.



▲임득의장군 묘비



▲임득의장군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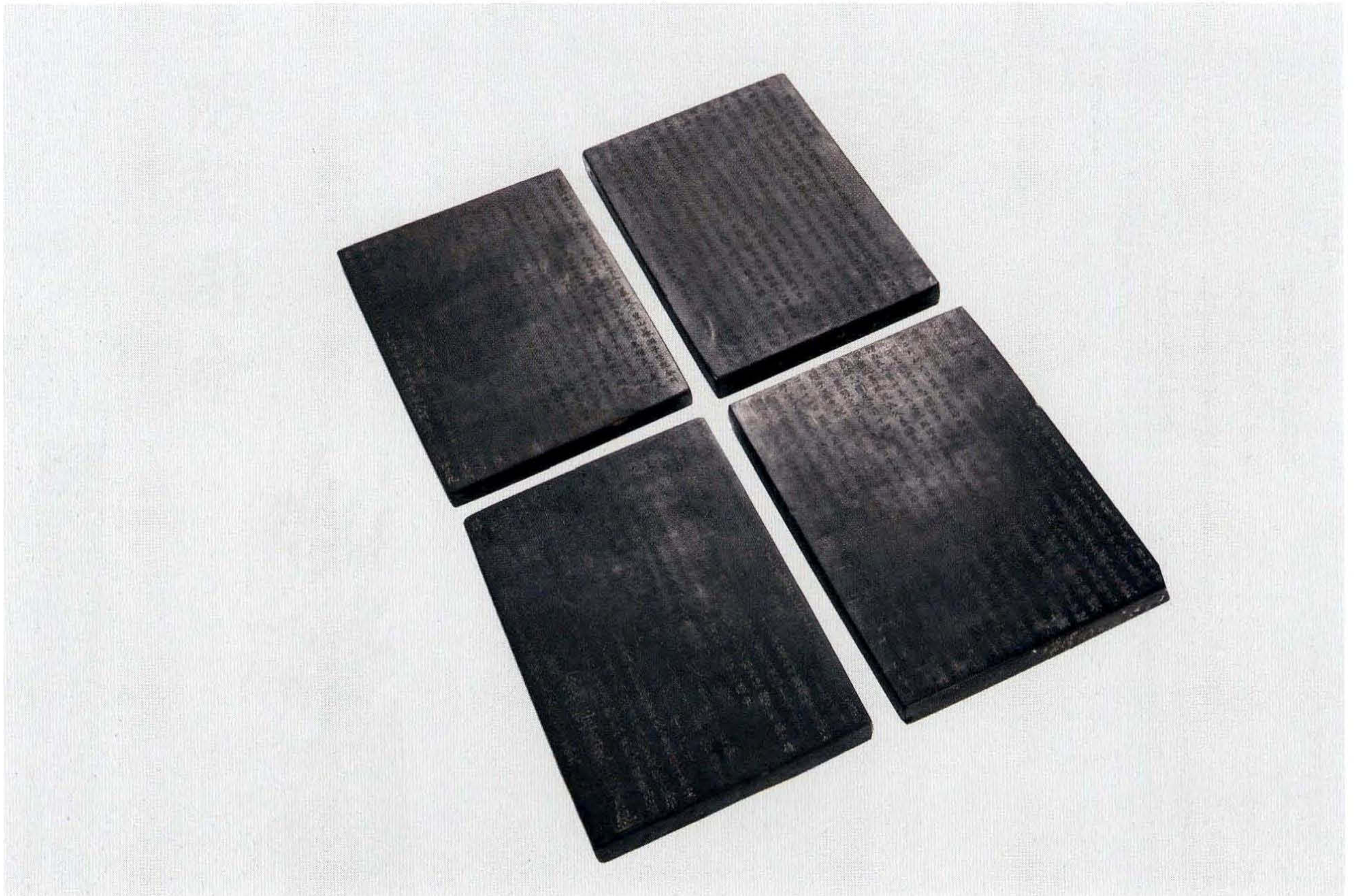


□ 임득의 장군 묘(문화재자료 제340호)

서부면 홍남서로 396번길에 있다. 조선 중기의 무신인 임득의는 본관이 평택이고, 자는 자방(子房)이며, 부사 임식의 아들이다. 1596년(선조29) 이몽학이 충청도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임천~정산~청양~대흥 등을 함락하고 홍주읍성을 침략해오자 홍주목사 홍가신을 도와 난을 평정했다. 이 공로로 1604년(선조37) 청난공신 3등에 오르고 평성군이 되었다. 그 뒤 충청수우후를 거쳐 1609년(광해군1)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묘 주변에는 1917년에 그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지산 김복한이 지었다.



▲연산서씨 석보 묘문(구항면 지정리 덕은동 마을)



□연산서씨 석보(문화재자료 제354호)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역사관에 있다. 승정 기원후 4 계축, 즉 1853년(철종 4) 7월에 만든 홍성의 연산 서씨 족보이다. 특이한 것은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닌 검은 빛이 나는 직사각형의 돌 4매 8면에 새긴 '석보(石譜)'라는 것이다. 본래 구항면 지정리 산112 번지 덕은동 마을 입구에 있는 암벽을 깎아 만든 가로 40cm, 세로 30cm의 석굴에 보관되어 오던 것인데, 1996년 12월에 후손들이 세상에 알렸다. 석보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6cm, 두께 3cm 정도이다.



①성곽 진입로 동쪽방향



②성곽 진입로 서쪽 방향



(※노란색선:성곽 위치, 흰색선:성곽 진입로)

□ 장곡산성(문화재자료 제360호)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해발 255.5m의 산에 쌓은 성으로, 성 둘레는 약 1,352m이다. 산성리 주변은 지세가 험하고 계곡이 좁아 군사상 요충지로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옛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 되는 예산 대흥 임존성(사적 제90호)과는 12.6km, 당진 혜성과는 37km, 청양 정산의 두룡윤성과는 23km, 공주와는 34.5km, 부여와는 27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다. 장곡산성 주위에는 학성산성, 태봉산이 띠를 이루듯 이어져 있어, 지리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산성은 동굴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산성 안에서 건물터의 주춧돌·기와 조각·토기류가 발견되었다. 이 지역 주변에서도 '사시'·'사시량'·'사라'라 새긴 기와 조각과 문초석, 돌덧널무덤(석곽묘)에서 발견된 청동제 방울, 백제 토기류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장곡산성은 백제 사시량현의 정치, 행정적 중심역할을 하던 곳으로 추정되며,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백제 부흥군의 거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구절암 대웅전

□ 구절암 마애불(문화재자료 제361호)

구항면 거북로 218번길 163에 있다. 자연 암벽에 크게 새긴 이 마애불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약간 기울어진 상태이다. 머리에는 구슬로 장식된 관(冠)을 쓰고 있으며 눈썹 사이에는 긴 털로 과거 및 미래를 비쳐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백호(白毫)가 뚜렷이 새겨졌다. 손은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가슴에 모으고 있는데, 바위면이 부서져 왼손의 모습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오른손은 손을 곧게 편 자세에서 손등을 밖으로 보인 다음 약지와 중지를 약간 구부린 듯 표현하였으며, 왼손은 엄지만 보일뿐 나머지는 손가락은 오른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애불들이 서 있는 모습인데 비해 이 마애불은 받침대인 연꽃 모양의 대좌(臺座) 위에 앉아 있어 특이하다.



임득의장군 초상화▶



□ 정충사(문화재자료 제401호)

서부면 판교1길 40-1에 있다. 정충사(靖忠祠)는 임진왜란 중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물리친 청난공신 임득의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사당 안에는 임득의 장군을 그린 영정과 영혼을 모시는 나무패인 신위 등이 있다. 정충사는 원래 경기도 포천에 있던 임득의의 묘를 1632년(인조10)에 서부면 판교리로 옮기면서 건립되었다. 그 후 계속 고쳐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당의 주변에 임득의 장군의 무덤과 신도비 등이 있다.



□ 고산사 3층석탑(문화재자료 제419호)

결성면 만해로 127번길 35-99에 있다. 대광보전 앞 왼쪽에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다. 탑의 받침대인 기단의 아래 부분의 돌에는 4면에 코끼리의 눈처럼 생겼다는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연꽃의 전체적인 바깥 모습과 비슷하다. 모든 탑의 몸돌과 지붕돌의 재료는 각 1매씩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단과 1층의 탑 돌 몸체의 모서리에는 각각 기둥이 새겨져 있다. 지붕돌의 아래 부분 받침은 3단이다. 탑의 꼭대기 부분은 받침돌인 노반(露盤)만 남았는데 이 탑의 총 높이는 218cm이다.

군 향토유적

■ 양곡사, 창주사





□ 양곡사(향토유적 1호)

서부면 홍남서로 131-31에 있다. 양곡사는 1682년(숙종8) 출생하여 1751년(영조27)에 생을 마친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사당이다. 한원진은 본관이 청주,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이다. 우암 송시열이 시작한 『주자언론동이고』를 완성시켰으며 외암 이간과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논쟁인 '인물성동이론'을 벌이면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호서지역의 논의인 '호론(湖論)'을 이끌었다. 양곡사는 면천복씨 어사 재유록(於斯齋遺錄)에 의하면, 1772년 8월19일 이유락, 김두순 등 유생들이 남당의 21주기에 모금을 시작하여 1773년경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87년 다시 지었다.



□ 창주사(향토유적 2호)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16에 있다. 창주사는 1804년(순조4) 주성근이 집에 주자의 화상을 모시고 매 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제사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857년(철종8) 주자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낸 후, 1889년(고종26) 주씨 문중이 고쳐 짓고, 1900년에는 충청도 서북부의 유학자들이 뜻을 모아 고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창주사에는 1924년 유학 정신의 실천 장소인 도광재(道光齋)를 짓고, 나아가 1920년 지산 김복한의 뜻을 잇고자 만든 '인도공의소(人道公議所)'와 1927년에 세운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유학 교육은 물론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리 유적

■ 최영 장군 사당, 홍주 청난사, 홍주 병오 의병 주둔 유적비, 김좌진 장군 동상, 한용운 선생 동상, 쌍계(雙溪) 최치원 글씨, 목빙고, 홍가신 사당, 금마총(말무덤), 석택리 환호 유적





□ 최영 장군 사당(기봉사)

홍북읍 최영장군길 57에 있다. 고려 말의 무신인 최영 장군 사당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최영의 사당이 홍주목의 동쪽으로 23리에 있는 삼봉산의 가운데 봉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최영의 사당이 있는 곳은 닭재산이라 부른다. 이곳에 사당이 있게 된 계기는 최영 장군의 신적 영험함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홍주에서 출생한 최영(1316~1388)은 창원(昌原, 강원도 철원) 사람으로 시호는 무민(武愍)이다. 최영은 밖으로는 중국의 원·명 교체기 상황에서 원나라에 구원군으로 파견되어 이름을 떨치다가 하면,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쳤고, 입술에 화살을 맞는 순간에도 왜구를 몰아냈던 홍산대첩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 후 권력을 잡은 이성계에 의해 고봉(高峰, 경기도 고양)과 충주로 귀양 갔다가 돌아와 순군에 갇혀 죽었는데, 1388년(창왕1) 12월, 그의 나이 73세였다.



□ 홍주청난사

홍성읍 홍덕서로 185-21 백월산 산혜암 입구에 있다.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이몽학의 난을 물리친 5명의 청난공신을 기리기 위해 1989년에 세운 사당이다. 청난사에 봉안된 위패는 1등 공신 홍가신, 2등 공신 박명헌, 최호, 3등 공신 신경행, 임득의 등 5명이다. 삼문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1칸이다.



□ 홍주 병오 의병 주둔 유지비

구항면 황곡리 산 83-2번지에 있다. 1906년에 일어났던 홍주의병이 홍주읍성 공격을 앞두고 집결하여 주둔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1986년 11월 14일에 세웠다. 당시 홍주의병은 홍산에서 일어나 서천~남포~보령~광천~결성을 거쳐 홍주로 들어왔는데 한 갈래는 광천에서 구항 마온리와 신당골을 거쳐 하우고개에 도달했고, 다른 갈래는 결성을 돌아 현재의 홍성~서산 도로로 나와 이곳에서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주의병은 5월 19일 삼신당리 전투에서 이기고, 다음 날 아침에는 드디어 홍주읍성을 점령하였다.



▲제막식 모습(1983년)



▲건립문

□ 김좌진 장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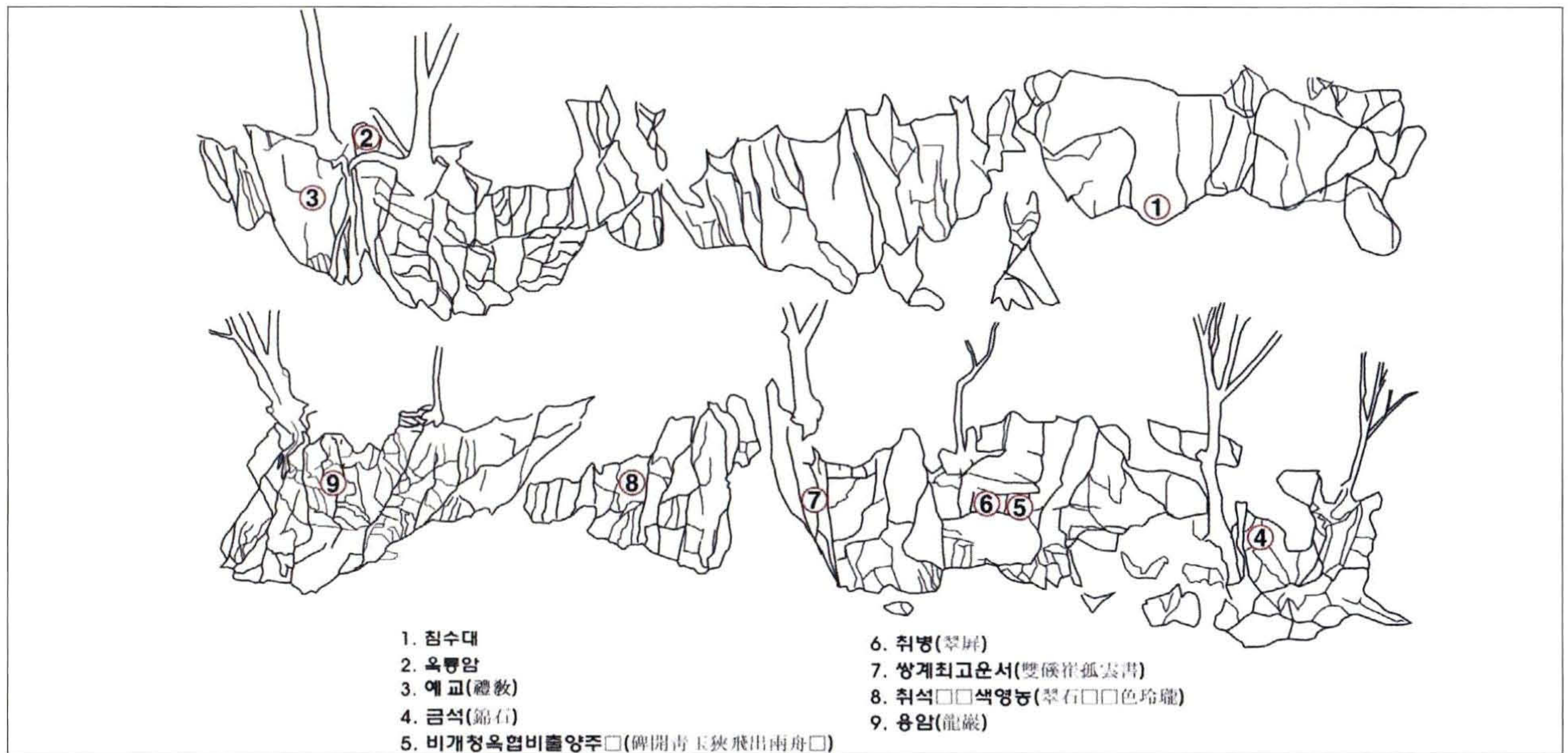
홍성읍 고암리 530-17번지에 있다. 1979년 5월 8일에 만들어진 홍성군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 운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 1983년 5월 31일 현재의 위치에 세운 동상이다. 백야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시킬 당시 독립군 대장의 늠름한 기상을 표현하였다.



▲건립문

□ 한용운 선생 동상

홍성읍 남장리 산43-1번지에 있다. 1983년 9월 8일 만해 한용운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노력하여 1985년 12월 2일 광복 40주년을 맞아 세운 동상이다. 동상의 모습은 만해 선생의 40대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화여대 강태성 교수가 만들고, 글은 최창규가 지었으며, 글씨는 정한섭이 썼다.



▲최치원선생 금석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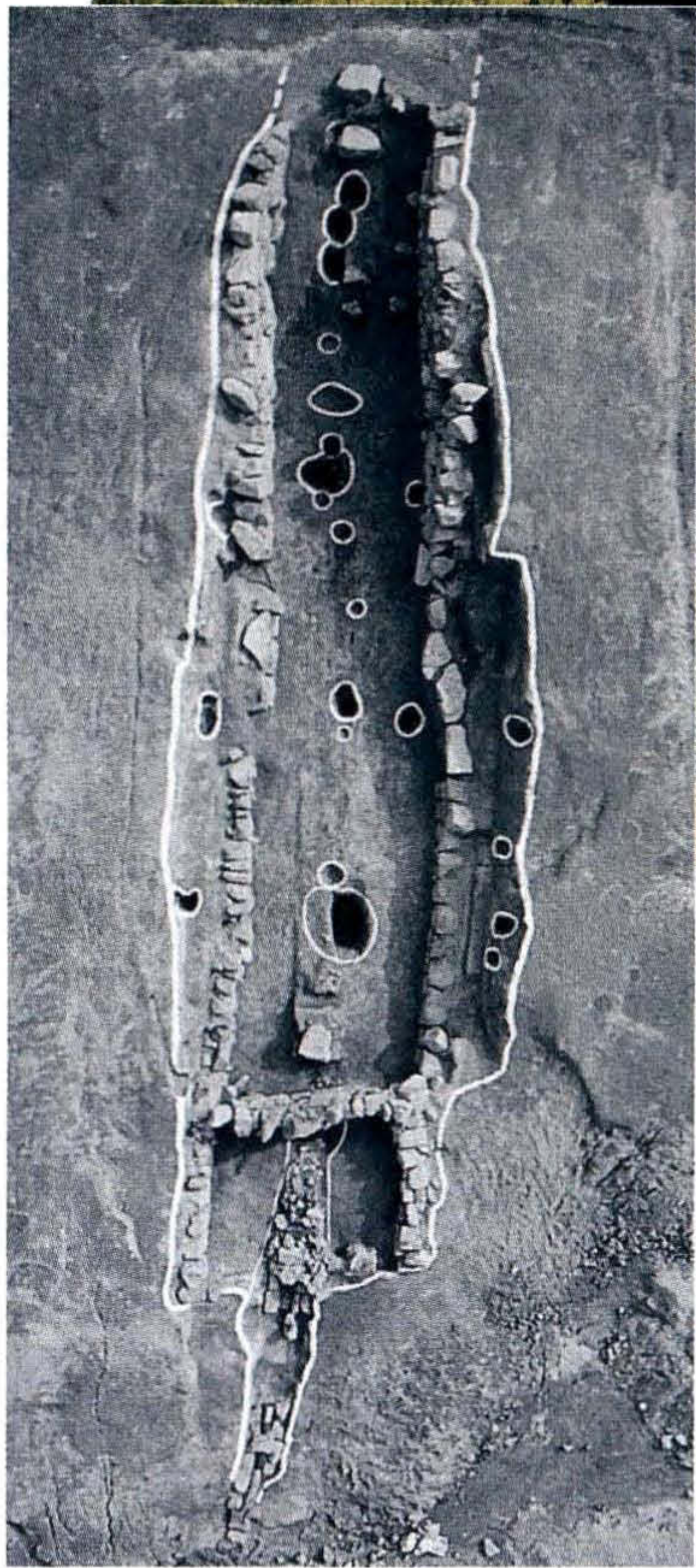
▲쌍계(노란색 ○안)

□ 마애 금석문 쌍계

장곡면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정도 떨어진 월계리 2구 용못마을에 있다. 월계천(月溪川)에 형성된 계곡의 바위면에 최치원 선생이 새겼다는 여러 글귀가 전해진다. 계곡 여러 곳의 새겨진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면, '崔孤雲書'(최고운서, 글자 크기 8cm), '雙溪'(쌍계, 글자 크기 85cm), '禮敎'(예교, 초서체, 글자 크기 85cm), '龍隱別墅'(용은별서, 글자 크기 가로 23cm, 세로 26cm) 등이 있다.



이전 후 현재의 모습▶



▲발굴당시 모습

□ 목빙고

홍성읍 월계천길 171-18에 있다. 목빙고는 홍주목의 부속시설로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당시 목빙고는 땅속의 풍화된 바위면을 남북방향으로 길게 경사면을 따라 직사각형으로 파고 얼음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크기는 가로 5.5m, 세로 23.86m, 깊이 1.5m이다. 발굴된 유적을 목빙고로 본 것은 천장돌로 사용된 것이 없었고, 벽이 돌로 만든 천장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하지 못했으며, 벽 아래에 6개의 기둥 구멍이 3m 간격으로 뚫려 있던 것 등 때문이었다. 목빙고의 본래 위치는 세광엔리치타워 102동 자리에 있었는데, 2006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화재 전 목상

◀화재 전 사당모습



현재의 목상▲

□ 홍가신 사당

홍성읍 월산리 산71-8 백월산에 있다. 백월산(일월산, 월산)의 두 봉우리 사이에 세워진 홍가신 사당은 본래 현재 위치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1975년 옛 초가 집을 대신해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돌로 쌓은 벽에 기와지붕을 이었다. 사당 이름은 '홍주정난사(洪州靖難祠)', '홍주청난사(洪州淸難祠)', '홍후만전묘(洪侯晩全廟)' 등으로 불린다. 사당 안에는 가운데에 '백월산신지위(白月山神之位)'라는 나무패가 있고, 오른쪽에 일등 공신 홍가신, 이등 공신 최호와 박명현, 삼등 공신 임득의와 신경행 등 청난공신의 나무패가 있다. 한편 왼쪽에는 홍가신의 가족으로 보이는 나무로 만든 조각상 5점이 있는데, 남자상이 2개, 여자상이 3개이다. 현판은 남경 박창진이 2017년 제작하였다.



▲옛모습



▲홍가신청난비 이전 전의 모습



□ 금마총(말무덤)

홍성읍 대교리 55-1에 위치하고 있다. 최영 장군이 좋아했던 말이 묻혀있는 곳으로 전해온다. 전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철마산에서 무술을 닦던 소년 최영이 자신의 말에게 화살과 말 중에서 누가 빠른지 내기를 청하였다. 이 시합에서 이기면 상을 내릴 것이고 지면 목을 베겠다고 했다. 말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최영은 철마산에서 은행정 쪽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동시에 말도 힘차게 달렸다. 은행정에 도착해보니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화살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최영은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었다. 그 순간 화살이 지나갔다. 최영은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을 그 자리에 묻어주었다. 그 후 최영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며 고려의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발굴당시 모습



▲출토유물-철기류



▲출토유물-토기류



□ 석택리 환호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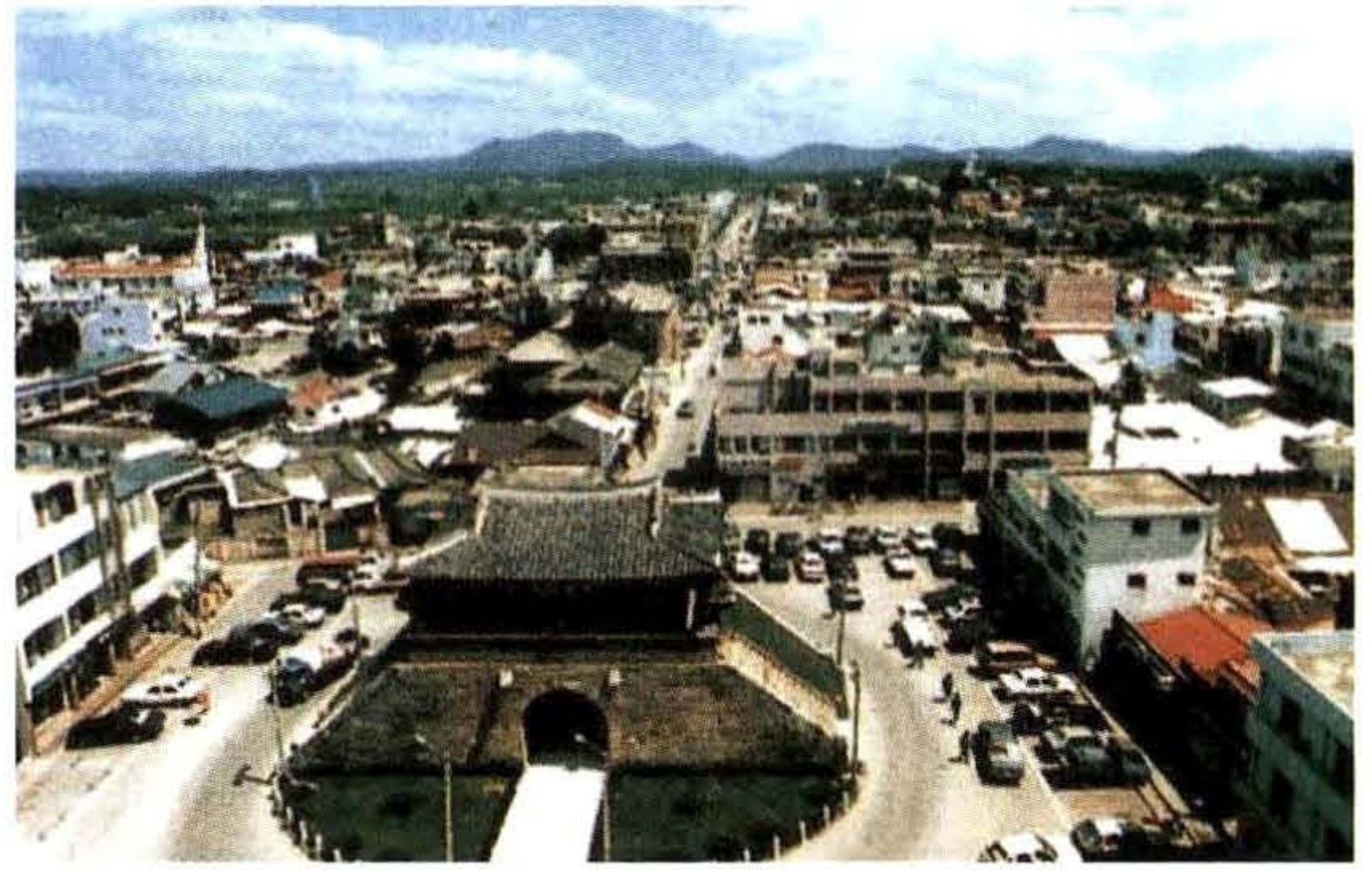
홍북읍 석택리 478-18에 있다. 홍북초등학교를 지나 삼교로 이어지는 석택리 망국재의 구릉 주변이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로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면서 알려진 유적이다. 한얼 문화유산연구원이 201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 집자리, 원삼국시대 집자리,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 긴 도랑인 환호, 시체를 묻는 구덩이 둘레에 도랑을 판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 돌로 시체를 넣는 방을 만든 백제시대 석곽묘 등이 발견되었다. 원삼국시대의 다양한 유물과 흔적은 마한이 있었던 시기의 홍성지역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름다운 우리고장
홍성

읍면 풍경 및 충남도청 신도시의 변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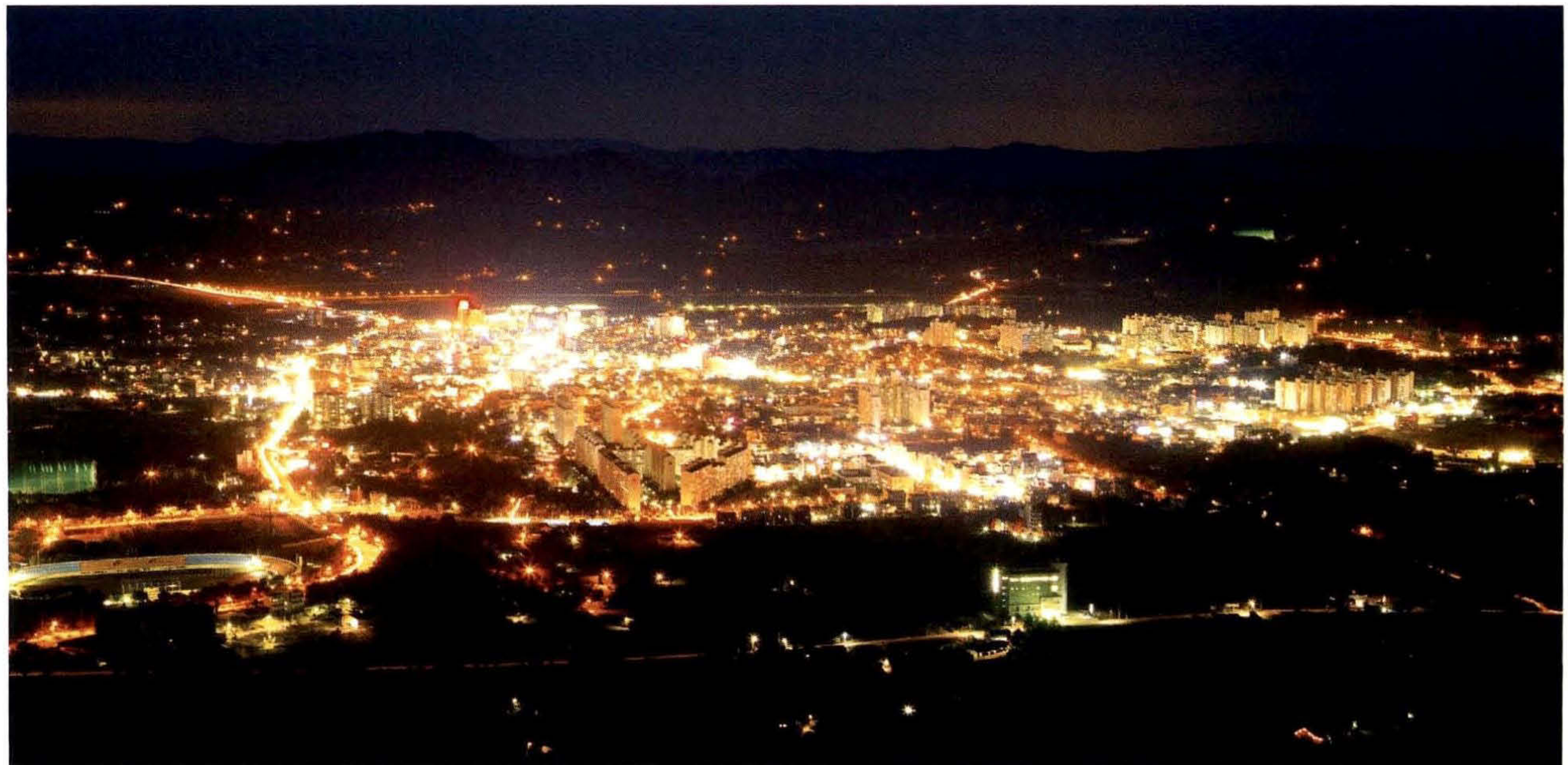
□ 1945년 홍성읍(조양문~월산방향)



□ 1980년대 홍성읍(조양문 동쪽 방향)



□ 2016년 백월산에서 바라 본 홍성읍 일출



□ 2017년 백월산에서 바라 본 홍성읍 야경





□ 1990년대 홍성읍



□ 2000년대 홍성읍



□ 2017년 홍성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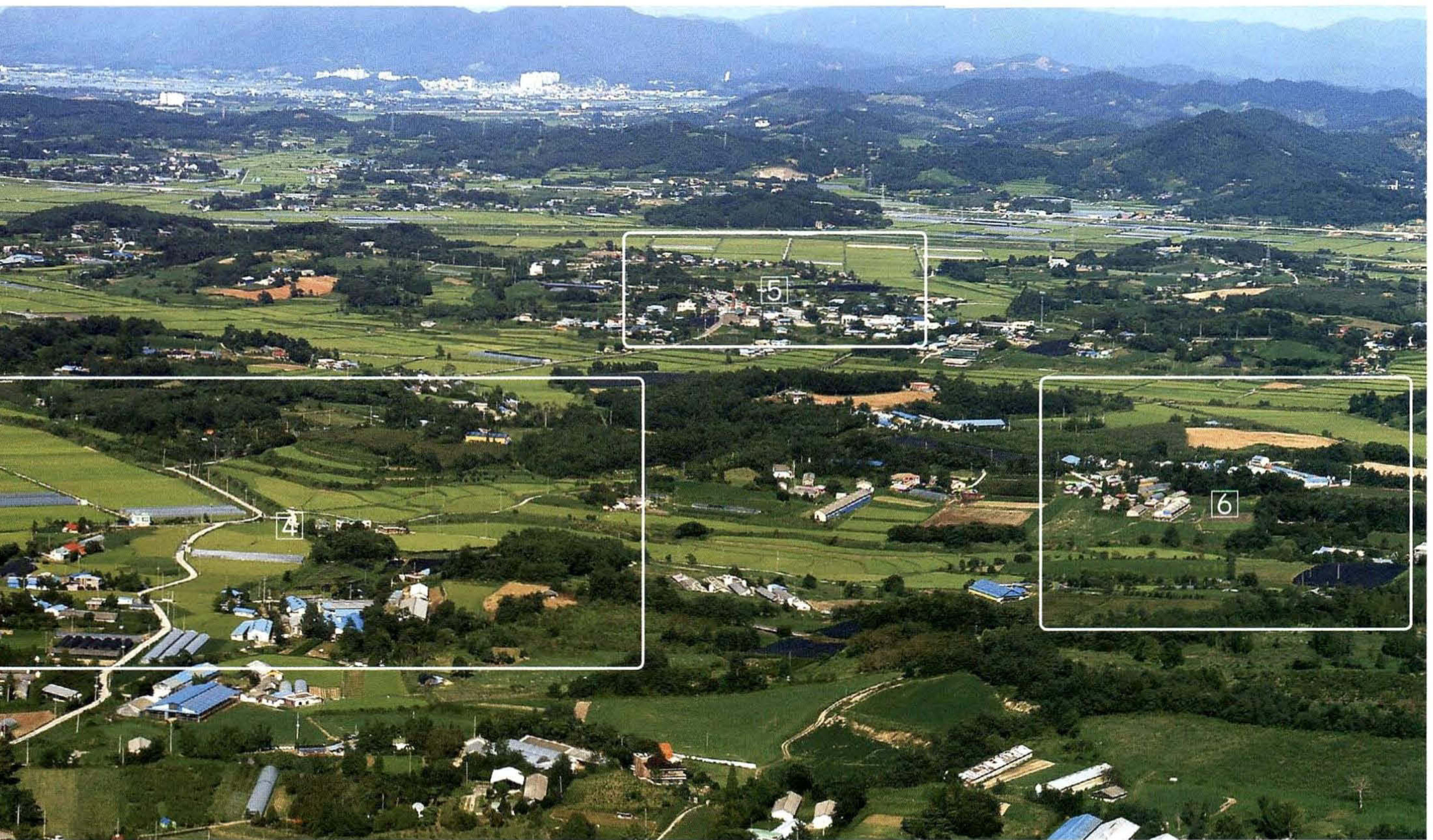
□ 2017년 홍성읍



□ 충남도청 소재지 조성 전의 모습(홍북읍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삽교읍 목리 일원)
 1 충남도청,교육청,경찰청 소재지역 2 중심상가지역 3 주택지역 4 아파트지역 5 홍북읍사무소주변 6산업단지지역 7 삽교읍 목리지역



□ 2013년 1월 개청한 충남도청



□ 2017년 8월 충남도청 이전 후



□ 광천읍 소재지 일원



□ 구항면 소재지 일원



□ 홍북읍 소재지 일원



□ 갈산면 소재지 일원



□ 서부면 소재지 일원



□ 결성면 소재지 일원



□ 은하면 소재지 일원



□ 장곡면 소재지 일원



□ 흥동면 소재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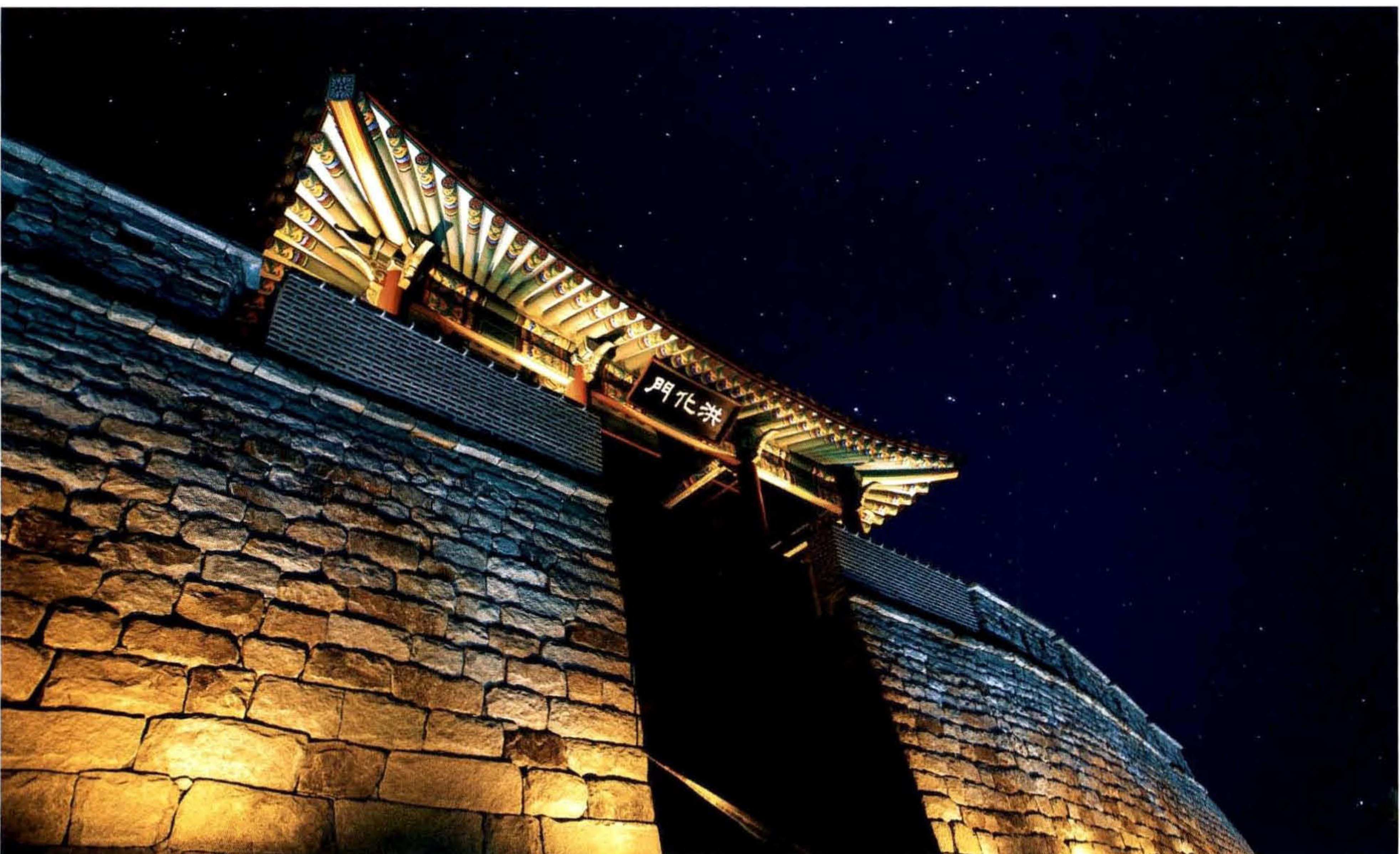


□ 금마면 소재지 일원

우리고장의 명소



□ 홍주성역사관



□ 홍화문 야경 (홍주읍성 남문루)



□ 충령사



□ 고암 이응노생가 기념관



□ 석당산 결성음성 돌레길



□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웰빙체험관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풍경



□ 삼교천과 금마 화양 들



□ 결성 원성호마을



□ 서부 A지구 간척지 간월호



□ 홍성의 관문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 홍양저수지



□ 천태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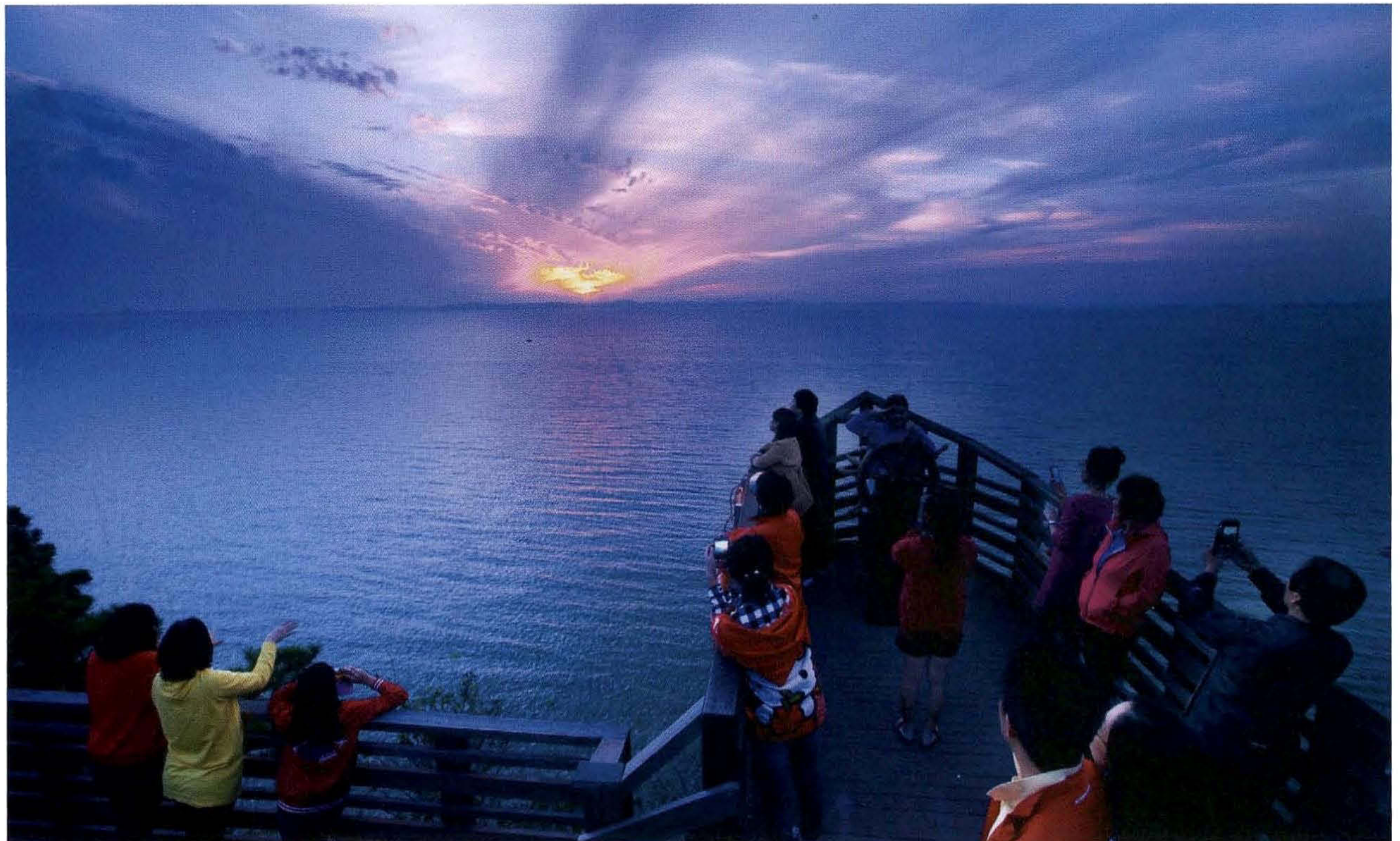
□ 홍동저수지와 오서산



□ 석당산에서 바라본 천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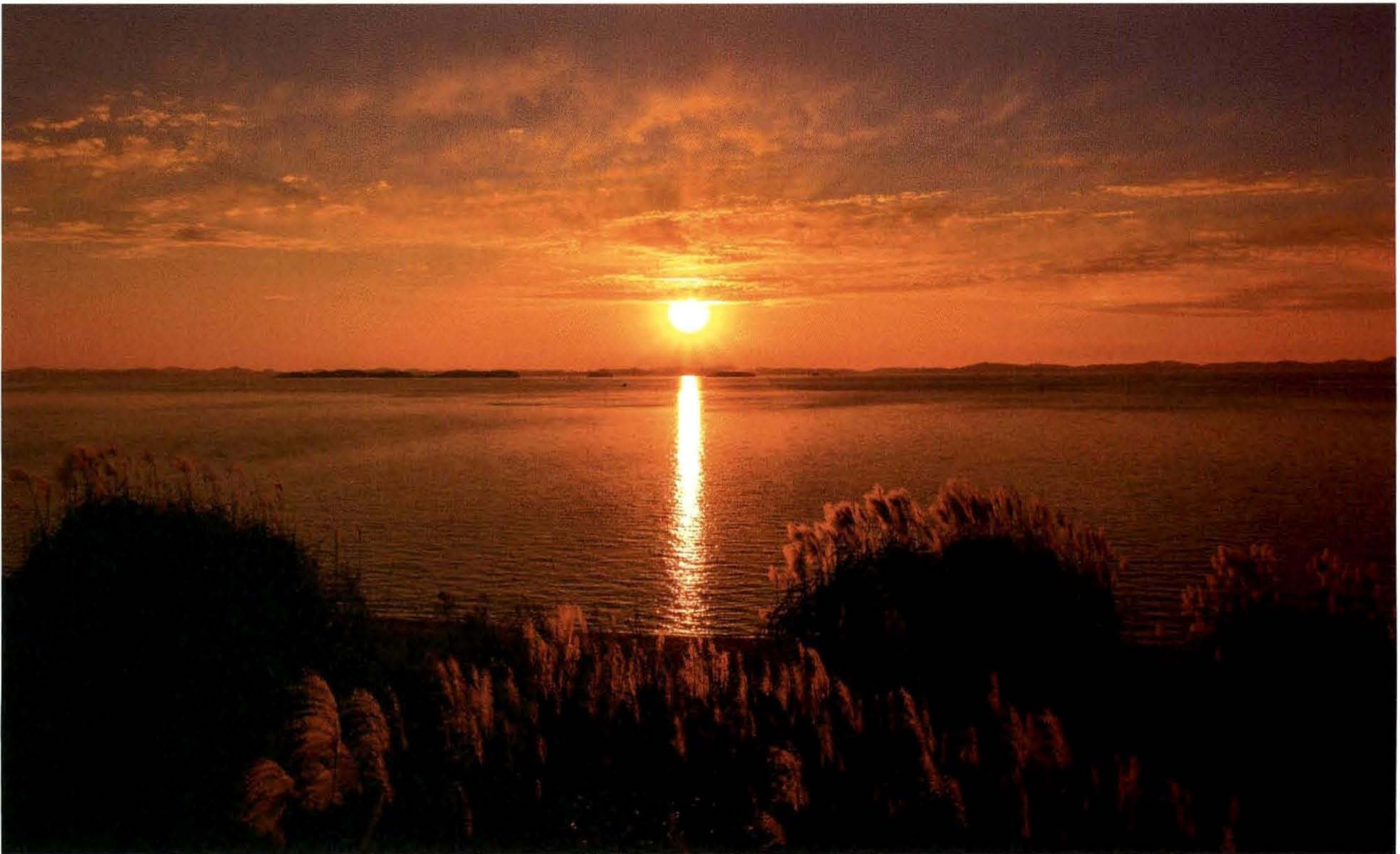
□ 남당항



□ 속동 천수만 노을



□ 죽도



□ 남당리 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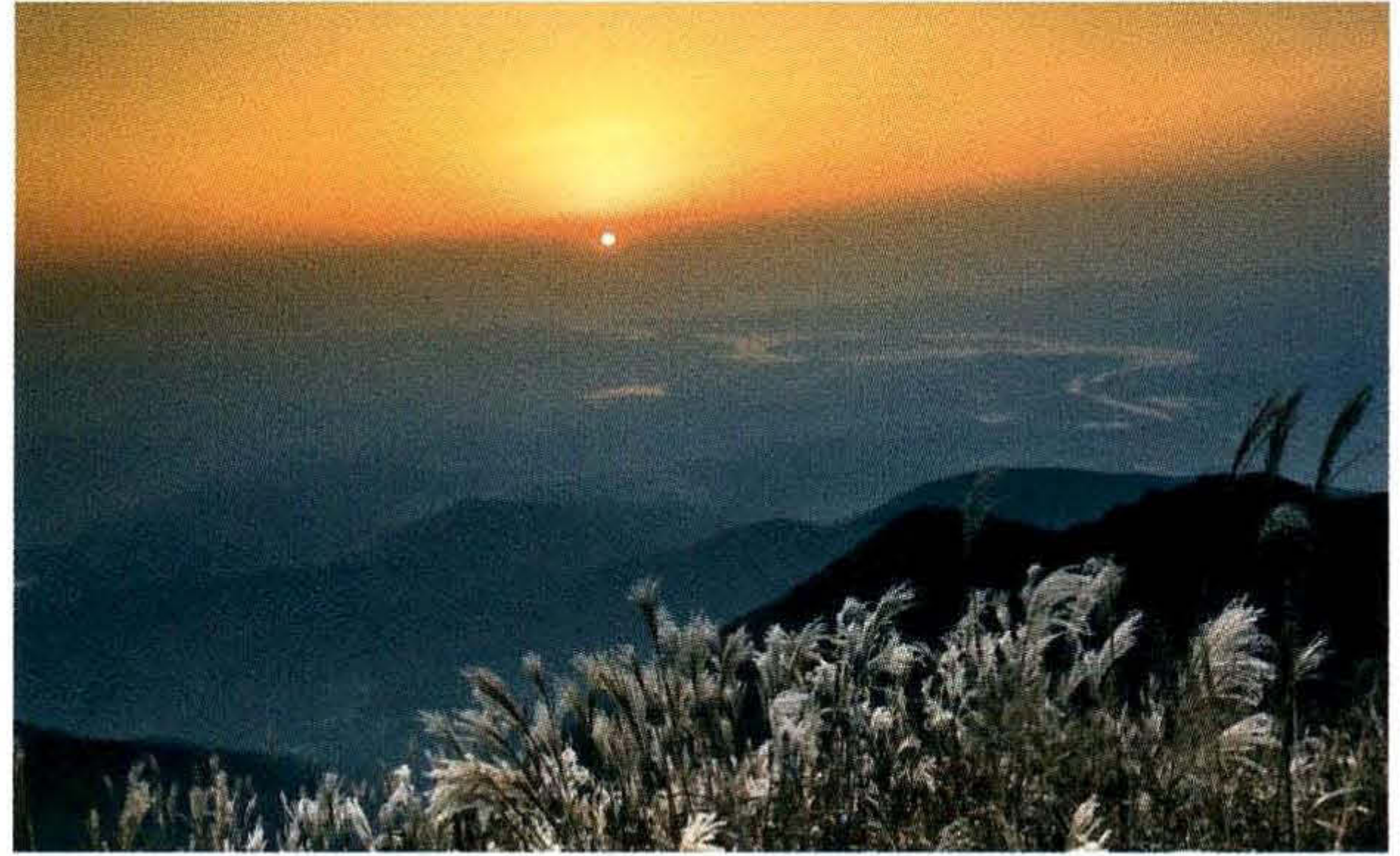
□ 백월산 설경(雪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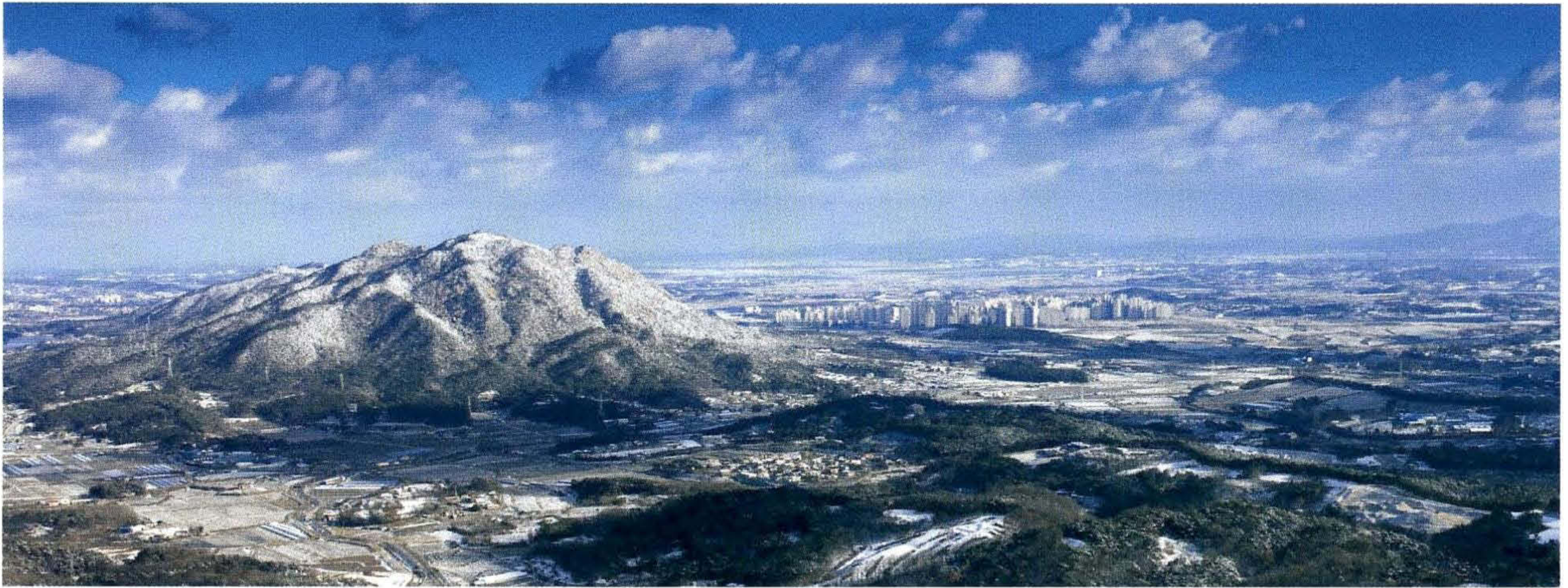
□ 용봉산 설경(雪景)



□ 백월산 홍주청난사 추경(秋景)



□ 오서산 정상에서 본 석양



□ 용봉산과 내포신도시 설경(雪景)



□ 오서산 설경(雪景)

홍성의 문화유산

- 발행처 : 홍성군
- 발행일 : 2018. 6. .
- 편 집 : 김정현(동화작가·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 글 : 조원찬
 - 갈산고등학교 교사
 - 홍주성역사관 운영위원
 - 홍성문화원 이사
 -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검정심사위원(교육부)
 - 유물·유적으로 보는 한국사 앱 편찬자문위원(교육부)
 - 편저 : 『홍성군지』, 『홍성의 문화유적』, 『홍주 역사 인물』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 교육자료』 외 다수
- 사 진 : 오경세
- 인 쇄 : 미림인쇄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17
 - Tel. 041-635-0046
 - Fax. 041-633-5560

※ 일부 사진자료는 홍성군 및 홍주성역사관에서 제공받았습니다.

